

『책 읽는 도시 김해』 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연구수행기관



제 출 문

김해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책 읽는 도시 김해’ 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7월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목 차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
II. 김해시 주요 현황과 지역 분석	21
1. 인문·사회적 특성	22
2. 재정 현황	34
III. 김해시 도서관 현황	39
1. 공공도서관 현황	40
2. 작은도서관 현황	45
3. 김해시 통합도서관시스템 이용 현황	50
IV.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	53
1. 조사의 개요와 의의	54
2. 성인 조사 결과	57
3. 학생 조사 결과	86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110
V. 책읽는도시 사업 내용과 평가	111
1. ‘책읽는도시 김해’ 사업의 진행 과정	112
2. ‘책읽는도시 김해’의 사업 내용	114
3. 성과와 과제	120
VI.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23
1. 도서관·독서진흥정책의 필요성	124
2. 김해시 <비전2035> 목표와 추진전략	127
3. ‘책읽는도시 김해’ 중·장기 비전과 목표	128
4. 발전 로드맵	129
5. 세부 실행 과제	130

VII. 김해시 도서관 활성화 방안	157
1.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158
2.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166
3. 작은도서관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	175
 부록	 183
1. ‘책읽는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록	184
2. 김해시립도서관 사서 간담회 회의록	193
3. 김해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담회 회의록	200
4. 차미옥 관장 인터뷰	206
5. 홍미선 팀장 인터뷰	212
6. 조강숙 과장 인터뷰	216
7.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 (성인)	221
8.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 (초·중·고등학생)	228

표 목 차

<표1> 김해시 연혁	22
<표2> 김해시 기후 현황	24
<표3> 김해시 읍면동별 면적(2015)	25
<표4> 김해시 인구 현황	27
<표5>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현황	29
<표6>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동 추이	29
<표7> 산업별 사업체수 변동 추이	30
<표8> 김해시 가구수 및 주택수 변화	31
<표9> 김해시 교육기관 현황	32
<표10> 김해시 복지시설 현황	33
<표11> 김해시 재정규모 및 구조 변동 추이	35
<표12> 김해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35
<표13> 김해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	36
<표14> 김해시 2017년도 본예산	37
<표15> 김해시 공공도서관 일반 현황	40
<표16> 김해시와 전국의 공공도서관 지표 비교	41
<표17> 김해시 공공도서관 장서 현황	41
<표18> 김해시 공공도서관별 도서구입 예산	42
<표19> 김해시 공공도서관 인력 현황	43
<표20> 김해시 공공도서관 연도별 이용자수 및 대출권수	44
<표21> 시비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	45
<표22> 시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작은도서관	46
<표23> 작은도서관 유형별 구분	47
<표24> 시비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의 연평균 이용 현황	47
<표25> 시비 지원 작은도서관의 인력 구성	48
<표26> 시비 지원 작은도서관의 재정 현황	48
<표27> 시비 지원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49
<표28> 통합도서관시스템 참여 도서관	50
<표29> 연도별 통합도서관 서비스 이용 현황	51
<표30> 2016년 월별 통합도서관 시스템 이용 현황	52
<표31> 김해시민 1인당 종이책 독서량 및 독서율	57

<표32> 종이책 독서량 및 독서율	57
<표33> 연령에 따른 종이책 독서량 및 독서율	58
<표34> 성별에 따른 종이책 독서량 및 독서율	59
<표35> 전자책 독서량 및 독서율	59
<표36> 김해시민 1인당 전자책 독서량 및 독서율	60
<표37> 전자책 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책 독서량 및 독서율	60
<표38> 독서량 인식 정도	61
<표39> 하루 평균 독서시간	62
<표40> 독서 장애 요인	63
<표41> 독서에 대한 인식	64
<표42> 주요 독서 장소	65
<표43> 성인 주요 도서 구입처	66
<표44> 김해시민의 연간 평균 도서 구입량	67
<표45>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68
<표46> 연령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률	69
<표47> 성별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률	69
<표48>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이용 횟수	70
<표49>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71
<표50>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72
<표51>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73
<표52> 공공도서관의 아쉬운 점	74
<표53>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75
<표54> 독서 프로그램 참여 경험	77
<표55> 참여한 독서 프로그램 유형	78
<표56> 독서 프로그램 참여 계기	79
<표57> 독서 프로그램 만족도	80
<표58>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81
<표59>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 인지도 조사	82
<표60>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 지지도	83
<표61> “책읽는도시 김해”를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	84
<표62> 학생 독서량 및 독서율	86
<표63> 하루 평균 독서시간 및 전자콘텐츠 읽기시간 비교	88
<표64> 독서 장애 요인	89
<표65> 독서에 대한 인식	90

<표66> 독서량 인식 정도	91
<표67> 독서의 목적	92
<표68> 학교에서의 독서지도	94
<표69> 선호하는 독서교육방법	95
<표70> 지난 1년간 학교도서관 이용 경험	96
<표71> 지난 1년간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	97
<표72>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	98
<표73> 학교도서관에 바라는 점	99
<표74>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100
<표75>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101
<표76>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102
<표77> 공공도서관에 아쉬운 점	103
<표78>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04
<표79>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	105
<표80> 참여한 독서동아리 유형	106
<표81> 독서동아리 참여 계기	107
<표82> 독서동아리 만족도	108
<표83> 독서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09
<표84> 책읽는도시를 만들기 위한 김해시 10대 시책사업(2007)	112
<표85> ‘책읽는도시 김해’의 세부 과제 제시(2007)	113
<표86> 연도별 김해의 책 선정도서	116
<표87> 김해시 연도별 출생아수 및 북스타트 꾸러미 배포 현황	117
<표88> 연도별 지원도서관 현황	118
<표89> 청소년인문학읽기전국대회 개최 현황	118
<표90> 독서능력(Literacy)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 연구결과 요약	125
<표91> 도서관의 중요성	125
<표92> ‘책읽는도시 김해’의 단계별 발전 계획	129
<표93> 부서별 담당 업무	134
<표94> 김해시립도서관 인력 현황	140
<표95> 통합도서관시스템 연령별 회원 비율	144
<표96> 용인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참여서점	152
<표97> 김해시 시내권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수	160
<표98> 김해시공공도서관 인력 현황	160
<표9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166

<표100> 시비 지원 작은도서관의 월간 대출 현황	167
<표101> 김해시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구성안	176
<표102> 김해시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세부항목	177

그 립 목 차

<그림1> 김해시 행정지도	26
<그림2> 2000 ~ 2015년 김해시 행정구역별 인구 증감률	27
<그림3> 김해시 고령인구비율 변화	28
<그림4> 성인 종이책 독자를 대상으로 한 종이책 독서량 및 독서율	58
<그림5> 전자책 독서량 및 독서율	59
<그림6> 전자책 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책 독서량 및 독서율	60
<그림7> 독서량 인식 정도	61
<그림8> 하루 평균 독서시간	62
<그림9> 독서에 대한 인식	64
<그림10> 주요 독서 장소	65
<그림11> 성인 주요 도서 구입처	66
<그림12> 김해시민 1인당 평균 도서 구입 권수	67
<그림13>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68
<그림14>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이용 횟수	70
<그림15>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71
<그림16>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72
<그림17>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73
<그림18> 공공도서관의 아쉬운 점	74
<그림19>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75
<그림20> 독서 프로그램 참여 경험	77
<그림21> 참여한 독서 프로그램 유형	78
<그림22> 독서 프로그램 참여 계기	79
<그림23> 독서 프로그램 만족도	80
<그림24>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81
<그림25>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 인지도 조사	82
<그림26>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 지지도	83
<그림27> 학교급별 독서율	86
<그림28> 학생 독서량 비교	87
<그림29> 하루 평균 독서시간 및 전자콘텐츠 읽기시간 비교	88
<그림30> 독서 장애 요인	89
<그림31> 독서에 대한 인식	90

<그림32> 독서량 인식 정도	91
<그림33> 독서의 목적	92
<그림34> 책을 선택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정보	93
<그림35> 책을 선택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정보	93
<그림36> 학교에서의 독서지도	94
<그림37> 지난 1년간 학교도서관 이용 경험	96
<그림38> 지난 1년간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	97
<그림39>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	98
<그림40> 학교도서관에 바라는 점	99
<그림41>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100
<그림42>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101
<그림43>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102
<그림44> 공공도서관에 아쉬운 점	103
<그림45>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04
<그림46>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	105
<그림47> 참여한 독서동아리 유형	106
<그림48> 독서동아리 참여 계기	107
<그림49> 독서동아리 만족도	108
<그림50> 독서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09
<그림51> 2035 가야 비전	127
<그림52> 중장기 비전과 목표	128
<그림53> ‘책읽는도시 김해’ 장기 발전 로드맵	129
<그림54> 제도 정비를 통한 ‘책읽는도시’ 발전 방안	131
<그림55> ‘책읽는도시’ 전담조직 변천 과정	133
<그림56>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부서 개편안	134
<그림57> 군포시의 독서·도서관 전담조직 체계	135
<그림58> 순천시의 독서·도서관 조직체계	135
<그림59> ‘책읽는도시 김해’의 새로운 슬로건 구상안	136
<그림60> 군포시 사례	138
<그림61>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시행 절차	151
<그림62> 부천시 ‘나눔 북 뱅크’ 포스터	152
<그림63> 지역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	158
<그림64> 김해시 시내권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범위	159
<그림65> 김해시 도서관 밀집지역	165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007년 8월 1일 김해시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독서문화와 도서관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여, 책 읽는 문화 활동을 통해 성숙한 도시로 발전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함.
 - 지식정보의 기반시설 구축 및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공동 수립·추진
 -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김해시의 독서문화 및 도서관문화 진흥계획 과정에 필요한 조사, 교육, 자문 등의 사회적 지원을 맡음.
 - 김해시는 계획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와 전담 조직 구성 등을 맡음.
- 이에 따라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2008년 ‘책읽는도시 김해’ 발전계획 연구를 수행하여 ‘책읽는도시 김해’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였고, 김해시는 지난 10년간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을 추진해왔음.
-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은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구상한 첫 사례임. 김해 이후 전국 30여 지자체에서 ‘책읽는도시’를 표방하는 등 김해시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번 연구는 김해시 책읽기 문화의 확산과 장기적인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지난 10년간의 과제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20년간의 ‘책읽는도시 김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음.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시간적·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8년 ~ 2037년(20년)
- 공간적 범위 : 김해시 행정구역 전체

2) 내용적 범위

- 지역특성 분석을 통한 도서관 발전방안 제시
 - 김해시 지역 현황과 특성 분석
 - 김해시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 김해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의 발전적 운영방향 제시
 - 김해시 관종별 도서관의 상호 협력 방안 제시
- ‘책읽는도시 김해’ 목표 및 비전 개발
 -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방향 제시
 - ‘책읽는도시 김해’ 내실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비전 제시
 - 중점추진과제별 연계 프로그램 및 방안 제시
- ‘책읽는도시 김해’ 내의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협력망 활성화
- ‘책읽는도시 김해’ 추진을 위한 민간합동 위원회 구성 범위 및 역할 분담 제시
- 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책읽는도시 김해’의 미래상 제시
-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분야의 기본적인 조직, 인력, 예산 계획

3) 조사 분야

- ‘책읽는도시 김해’의 종합계획이 계속사업으로서 차후 민선 7기 시정종합 계획 또는 중기 지방계획에 보고할 수 있는 독서·도서관 문화 발전 계획의 기초연구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함.
 - 김해시의 인구학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 등 기반조사
 - 기존의 도서관 운영 현황과 실태조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통합도서관 시스템 등)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상의 노력과 현황 조사
- 김해시와 비슷한 규모의 해외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함.
- 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책읽는도시 김해’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종합계획’ 작성에 포괄되어야 할 세부적인 실행계획과 조직 개선 방향, 예산집행 로드맵에 대해서도 제안하여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도약을 위한 이행과제를 발굴함.

4) 연구 방법

- ‘책읽는도시 김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헌조사는 물론 현장방문을 통한 인터뷰,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김해시민의 광범위한 의견과 지혜를 담아내야 함.
- 본 연구는 각종 자료(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정책문서, 단행본,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통계자료, 법령, 웹사이트 등 관련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답사와 실태조사,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 청취, 토론회와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수행함.
- 기초자료 분석
 - 김해시 기본현황, 기존 도서관 운영 현황 및 독서문화 실태를 조사하되 도서관의 접근성과 어린이·청소년·성인의 독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분석 및 검토를 수행

- 주민,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조사
- 적정규모의 도서관 시설 확충과 독서문화 확장 계획 및 이용활성화 방안 제시
- ‘책읽는도시 김해’의 미래상을 위한 시설 관계자 및 김해시민의 제언 제시

5)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조사 내용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조사 내용

구분	내용	방법
제1연구	중장기 발전계획과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점검	분석 및 자문
제2연구	주요 현황과 지역 분석	김해시 통계 내용 분석
제3연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현황 분석 (지표 산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활용 및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표본 1,105명)
제4연구	‘책읽는도시 김해’ 사업추진과 평가	사업 내용 분석 및 평가
제5연구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자료조사+심층 인터뷰
제6연구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제7연구	‘책읽는도시 김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정책도약을 위한 이행과제 발굴
제8연구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자료 내용 분석
제9연구	관계자 제언 제시	브레인스토밍 및 관계자 심층 인터뷰

○ 제1연구 : 김해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점검

○ 제2연구 : 주요 현황과 지역 분석

- <김해시 통계정보>를 통한 김해의 사회적, 재정적 현황 조사

○ 제3연구 : 도서관 및 독서문화 현황 분석

-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준하여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 ‘책읽는도시 김해’의 정책 전개를 통한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제시
- 독서율, 독서량, 도서관구입비 등의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공공도서관 만족 정도, 정책 제안사항 등 조사
-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 인지도 등 포함
- 통합도서관 시스템 운영 현황 포함

○ 제4연구 : ‘책읽는도시 김해’ 사업 평가

- 사업내용 분석 및 평가
- ‘책읽는도시 김해’ 중점추진과제별 과제 제시

○ 제5연구 :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 김해시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 파악
-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 제6연구 :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김해시 작은도서관의 과제 도출
- 시비 지원체계 점검 및 발전방안 제시
- 작은도서관 관계자 간담회, 토론회, 인터뷰, 자문회의 등 실시

○ 제7연구 : ‘책읽는도시 김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정책 추진 과제 및 세부실행 계획 제시
- 조직 개선 방향 및 예산 집행 로드맵 제시

○ 제8연구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국내·외 관련 사례 제시
-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제안

○ 제8연구: 관계자 제언 제시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기관 간담회 및 브레인스토밍 회의록 제시
- 관계자 심층 인터뷰 제시
- 정책자문회의 회의록 제시

Ⅱ. 김해시 주요 현황과 지역 분석

1. 인문·사회적 특성
2. 재정 현황

Ⅱ. 김해시 주요 현황과 지역 분석

1. 인문·사회적 특성

1) 연혁

- 김해시는 가야의 도읍으로서 신라의 경주, 조선의 한양에 버금가는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 삼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1995년 5월 10일 현재 김해시와 김해군이 통합하여 김해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됨.

<표1> 김해시 연혁

삼한시대	가야국에 속함, 변한의 맹주
통일신라시대	법흥왕 12년(서기 532년) 신라에 투항 문무왕 20년(서기 680년) 금관소경으로 승격 경덕왕 15년(서기 756년) 김해소경으로 개칭(현 김해)
고려시대	태조 23년(서기 971년) 김해부로 변경 성종 14년(서기 995년) 김해도호부 승격 충렬왕 19년(서기 1293년) 현으로 강등
조선시대	태종 12년(서기 1413년) 김해도호부 승격 고종 32년(서기 1895년) 지방관제 개혁에 따라 김해군으로 개칭 광무 10년(서기 1906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23개면이 김해군에 속함
일제치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1931년 김해면이 읍으로 승격 1942년 진영면이 읍으로 승격 1944년 하동면이 대동면으로 개칭
1978. 2. 15	대저읍, 명지면, 가락면 남동지구가 부산시로 편입
1981. 7. 1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
1989. 1. 1	가락면, 녹산면이 부산시로 편입
1995. 5. 10	김해시·군 통합
1998. 9. 12	칠산동과 서부동을 칠산서부동으로 통합
2013. 7. 1	장유면을 동으로 전환

2) 위치

- 김해시는 한반도의 동남단, 경상남도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총면적은 463.4km²으로 경상남도(10,537.2km²) 총면적의 4.4%에 해당함. 동쪽은 양산시 및 부산시 북구와 강서구가 인접하고 서쪽은 창원시, 남쪽은 강서구, 북쪽은 밀양시 및 양산시와 인접해 있음.
- 교통상으로 인근에 김해국제공항, 부산항 등 국제적인 교통망을 갖췄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동서로 남해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음.
-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릉이 시가지 중심에 있고, 구지봉과 가야시대의 고분군이 널리 분포되어 있음.
- 김해시의 행정구역은 1읍(진영읍), 6면(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12동(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내외동, 북부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지형/지세

- 김해시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바다로부터 육지로 들어오는 입구에 자리 잡았으며 중앙부는 낙동강 삼각주의 거대한 평야부를 이루어 김해시의 시가지와 일부 농경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 김해시의 산지는 소백산맥의 동연이 되는 서쪽에 있고, 서북부는 해발 300~400m 높이의 산악지대로서 정병산(566m)계의 노현산(379m), 비읍령(487m), 용지봉(744m), 불모산(801m), 팔판산(672m)이 있음.
- 중앙부에는 분성산(326m), 임호산(179m), 신어산(631m) 등이 있으며 신어산은 은하사, 영구암 등의 고찰이 있고, 남부에 위치한 금병산(271m)은 병풍처럼 길게 둘러져 있어 부산광역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음.
- 시의 북부를 관류하다가 동북부에서 방향을 바꾸어 남류하는 낙동강이 밀양시·양산시 및 부산광역시와의 자연적 경계를 형성함.

4) 기후

- 김해시는 해양성 온대지방으로 4계절 구분이 뚜렷하고 여름철 해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온화해 인간 활동에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최근 5년간의(2011~2015년) 연평균 기온은 15℃, 연평균 강수량은 1,536.4mm로 다우지역에 속함.

<표2> 김해시 기후 현황

기상상태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온-평균 (°C)	14.6	14.5	15.3	15.1	15.4
강수량 (mm)	1,478.6	1,983.3	1,130.1	1,693.1	1,396.7
상대습도-평균(%)	60.2	58.2	56.9	66.3	67.3
평균운량 (%)	5.0	5.3	5.5	5.8	4.8
일조시간 (01hr)	2,294.6	2,563.4	2,771.0	2,481.2	2,543.8
풍속-평균 (m/s)	3.3	3.3	3.4	3.2	3.1

출처 : 김해시 통계연보(2016)

5) 행정구역

- 2015년 말을 기준으로 김해시의 행정구역은 총 488.88km²이며 1읍 6면 12개의 행정동과 34개의 법정동, 487통, 250개의 행정리, 3,330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읍면동별 면적은 상동면이 70.53km²(15.2%)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회현동이 1.14km²(0.2%)로 가장 작음.

<표3> 김해시 읍면동별 면적(2015)

읍면동별	면적(km ²)	구성비(%)
진영읍	39.73	8.6
주촌면	31.22	6.7
진례면	44.83	9.7
한림면	59.41	12.8
생림면	50.20	10.8
상동면	70.53	15.2
대동면	48.60	10.5
동상동	1.80	0.4
회현동	1.14	0.2
부원동	1.99	0.4
내외동	5.38	1.2
북부동	13.88	3.0
칠산서부동	19.69	4.2
활천동	5.90	1.3
삼안동	11.28	2.4
불암동	2.59	0.6
장유1동	13.52	2.9
장유2동	19.70	4.3
장유3동	21.97	4.7
합계	488.88	100.0

출처 : 김해시 통계연보(2016)

<그림1> 김해시 행정지도



출처 : 두산백과사전

6) 인구

- 2017년 6월 김해시의 인구는 549,059명, 세대수는 202,940세대로 2012년 이후로 평균 3.1%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외국인 포함).
-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에 반해 세대상 인구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김해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해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2.6%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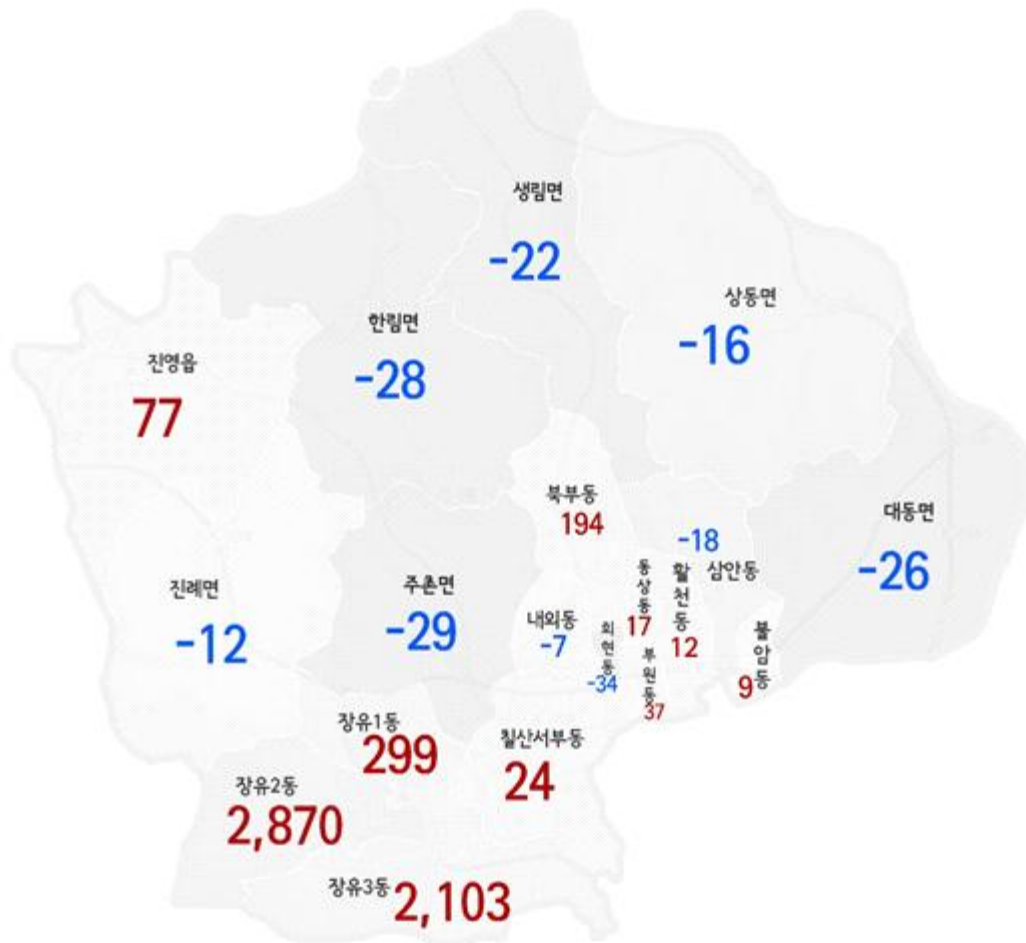
<표4> 김해시 인구 현황

(단위 : 세대, 명, %)

구 분	세대수 (외국인 제외)	총 인구수(외국인 포함)			성비	인구 증가율 (%)	세대당 인구수	외국인
		계	남	여				
2012	184,977	528,730	271,344	257,386	105.4	1.1%	2.8	15,470
2013	190,133	538,181	276,322	261,859	105.5	1.8%	2.8	16,132
2014	194,766	544,972	280,381	264,591	106.0	1.3%	2.8	17,732
2015	197,865	547,387	281,627	265,760	106.0	0.4%	2.8	18,522
2016	200,370	547,854	281,600	266,254	105.8	0.1%	2.7	18,432
2017.6	202,940	549,059	281,919	267,140	105.5	0.2%	2.7	17,948

출처 : 김해시청 홈페이지, 김해시 통계연보(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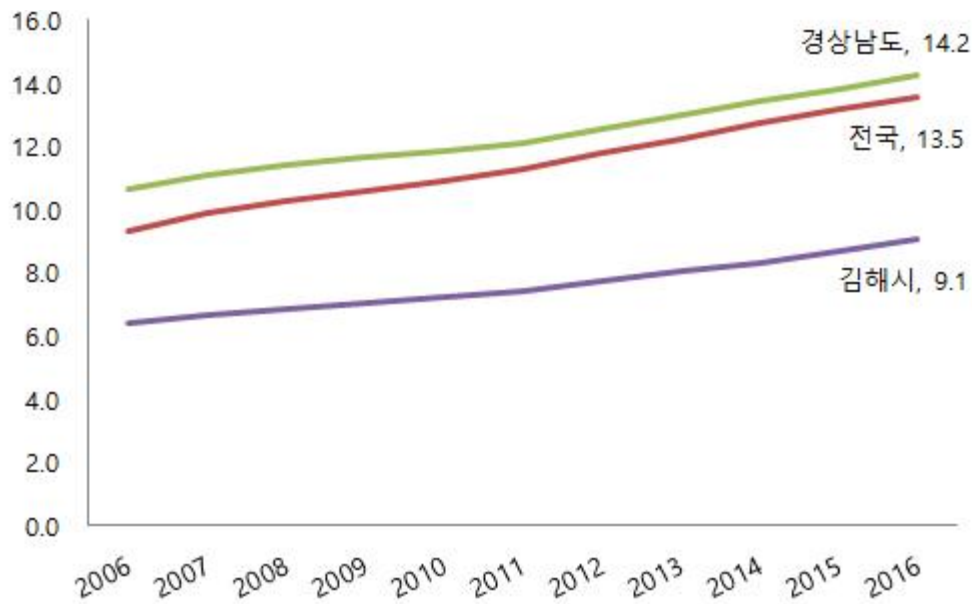
<그림2> 2000 ~ 2015년 김해시 행정구역별 인구 증감률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택지개발이 이뤄진 장유동, 북부동, 진영읍 등은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음. 반면 면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김해시의 노령인구 비율은 9.1%로, 전국 평균 13.5%보다 낮으나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

<그림3> 김해시 고령인구비율 변화



7) 산업구조 현황 및 변화

- 김해시는 남해고속도로, 국도 58호선, 14호선 우회도로와 연결하기에 교통이 편리하며 김해국제공항, 철도, 부산신항만과의 접근성도 좋음.
- 사업체수는 2015년 기준으로 43,398개, 종사자수는 222,71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사업체수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많음. 2015년 종사자 수는 222,711명으로, 남성 134,718명(60.49%), 여성 87,993명(39.51%)임.

<표5>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현황

산업	2015	
	사업체수	종사자수
총 계	43,398	222,711
농업 임업 및 어업	15	129
광 업	11	126
제 조 업	9,985	94,40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	63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95	1,413
건 설 업	1,230	8,916
도매 및 소매업	9,802	28,137
숙박 및 음식점업	7,281	20,001
운 수 업	3,697	8,33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115	1,323
금융 및 보험업	290	3,7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10	3,74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98	4,03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36	4,0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0	3,805
교육서비스업	2,166	15,39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67	13,2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20	3,75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693	7,584

출처 : 김해시 통계연보(2016)

<표6>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동 추이

구 분	합 계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종사자수			개 인		회사법인	
		합 계	남	여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2011	36,512	195,583	118,164	77,219	30,436	90,031	4,482	82,746
2012	38,275	200,639	120,298	80,341	31,831	92,119	4,786	85,145
2013	40,179	211,270	126,459	84,811	33,158	95,601	5,273	91,010
2014	42,029	219,140	131,509	87,631	34,424	99,166	5,836	95,036
2015	43,398	222,711	134,718	87,993	35,795	99,670	5,839	97,273

출처 : 김해시 통계연보(2016)

-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반면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큰 변동이 없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음.

<표7> 산업별 사업체수 변동 추이

산업	사업체수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계	36,512	38,275	40,179	42,029	43,398
농업 임업 및 어업	6	7	10	15	15
광 업	7	6	6	11	11
제 조 업	7,550	8,075	8,580	9,285	9,98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	16	17	18	1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7	149	170	185	195
건 설 업	936	1,001	1,079	1,187	1,230
도매 및 소매업	8,105	8,591	9,107	9,412	9,802
숙박 및 음식점업	6,567	6,705	6,951	7,104	7,281
운 수 업	2,843	3,009	3,338	3,717	3,69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87	87	97	113	115
금융 및 보험업	303	292	289	285	290
부동산 및 임대업	1,163	1,232	1,302	1,423	1,5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6	590	584	639	69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17	256	284	310	33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6	68	69	71	70
교육서비스업	2,202	2,222	2,215	2,179	2,16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17	1,536	1,555	1,529	1,36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36	924	917	910	9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409	3,509	3,610	3,636	3,693

출처 : 김해시 통계연보(2016)

8) 생활환경

① 주택현황

- 2015년 김해시의 가구수는 186,657가구, 주택수는 186,974가구로, 주택보급률은 100.2%임.
- 가구수와 주택수는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 일반가구수가 전년대비 6,208가구, 주택수가 4,639가구 감소하였음.
-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118,646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가구주택’ 32,047호, ‘단독주택’ 16,060호 순임.

<표8> 김해시 가구수 및 주택수 변화

구분	일반 가구수	주택수						
		합계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보 급률(%)
2011년	172,563	172,868	22,118	31,716	107,045	1,570	10,419	100.2
2012년	179,081	178,423	22,049	35,841	108,170	1,733	10,630	99.6
2013년	185,845	187,312	21,895	38,074	114,691	1,781	10,871	100.8
2014년	192,865	191,613	21,778	40,263	116,745	1,796	11,031	99.4
2015년	186,657	186,974	16,060	32,047	118,646	1,897	11,235	100.2

출처 : 김해시 통계연보(2016)

② 교육

- 김해시에는 2015년 유치원 88개소, 초등학교 58개소, 중학교 31개소, 일반계고등학교 15개소, 특수목적고등학교 1개소, 특성화고등학교 5개소, 자율고등학교 2개소, 전문대학 및 대학 1개소, 대학교 3개소, 대학원 10개소, 특수학교 1개소가 있음.
- 학생수는 총 107,740명으로 초등학교 학생수가 36,183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20,525명으로 많음. 고등학생 수는 일반계고등학교 15,140명, 특성화고등학교 2,874명임.

<표9> 김해시 교육기관 현황

현 황	학교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학 교 수	총 계	186	216	213	213	215
	유 치 원	70	90	88	87	88
	초등학교	57	58	57	58	58
	중학교(국공립)	27	27	27	27	27
	중학교(사립)	4	4	4	4	4
	일반계고등학교(국공립)	13	13	13	14	14
	일반계고등학교(사립)	1	1	1	1	1
	특수목적고등학교(국공립)	1	1	1	1	1
	특성화고등학교(국공립)	3	3	3	3	3
	특성화고등학교(사립)	2	2	2	2	2
	자율고등학교(국공립)	2	2	2	2	2
	전문대학 및 대학	1	1	1	1	1
	대 학 교	3	3	3	3	3
	대 학 원	8	10	10	9	10
	특수학교	1	1	1	1	1
학 생 수	총 계	119,634	112,473	111,420	107,694	107,740
	유 치 원	8,528	10,182	9,920	9,393	9,646
	초등학교	45,473	36,681	36,535	35,923	36,185
	중학교(국공립)	27,454	22,001	21,179	19,796	19,376
	중학교(사립)	1,280	1,267	1,183	1,149	1,149
	일반계고등학교(국공립)	14,431	14,543	14,627	14,878	14,609
	일반계고등학교(사립)	18	18	18	18	531
	특수목적고등학교(국공립)	398	398	376	379	372
	특성화고등학교(국공립)	2,417	2,275	2,099	2,039	2,029
	특성화고등학교(사립)	1,307	1,185	1,163	935	845
	자율고등학교(국공립)	1,995	1,914	2,149	2,020	1,899
	전문대학 및 대학	1,187	1,264	1,532	1,520	1,378
	대 학 교	18,239	18,128	18,050	17,608	17,654
	대 학 원	1,750	1,720	1,695	1,162	1,788
	특수학교	274	277	299	279	279
교 직 원수	총 계	8,847	8,561	8,078	7,928	7,801
	유 치 원	631	740	884	678	695
	초등학교	3,514	2,902	2,486	2,559	2,447
	중학교(국공립)	1,921	1,548	1,308	1,316	1,301
	중학교(사립)	121	114	95	93	93
	일반계고등학교(국공립)	975	1,027	1,108	1,090	1,066
	일반계고등학교(사립)	668	676	650	651	41
	특수목적고등학교(국공립)	56	64	67	78	77
	특성화고등학교(국공립)	232	236	216	199	209
	특성화고등학교(사립)	97	93	96	92	86
	자율고등학교(국공립)	131	122	139	140	135
	전문대학 및 대학	58	61	69	78	82
	대 학 교	1,383	1,446	1,416	1,415	1,422
	대 학 원	54	53	42	49	49
	특수학교	91	94	110	98	98

출처 : 김해시 통계연보(2016)

- 교직원수는 2015년 기준으로 총 7,801명이며 2011년 이후로 매년 평균 3.1%씩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교직원 수는 ‘초등학교’ 교직원수가 2,477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반계고등학교(사립)’ 교직원수가 41명으로 가장 적음.

③ 복지시설

- 김해시의 복지시설은 여성복지시설 2개소, 아동복지시설 5개소, 장애인복지생활시설 4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0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539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9개소가 입지하고 있음.

<표10> 김해시 복지시설 현황

시설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복지시설	2	2	1	3	2
아동복지시설	3	5	5	5	5
장애인복지생활시설	3	3	4	3	4
노인주거복지시설	2	2	1	-	-
노인여가복지시설	526	527	534	533	539
노인의료복지시설	20	19	21	20	19

출처 : 김해시 통계연보(2016)

2. 재정 현황

1) 재정 현황

- 김해시의 2017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323,08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045,662백만원, 특별회계 242,857백만원, 기금 34,568백만원으로 구성됨.
- 김해시의 2016 재정공시(결산)을 기준으로 김해시의 재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재정자립도 : 42.28%
 - 재정자주도 : 64.54%
 - 김해시 채무액 : 1,233억원
 - 주민1인당 채무액 : 233천원
- 김해시의 재정자립도는 42.28%, 재정자주도는 64.54%로 유사지방자치단체(50만 이상 15개 시) 재정자립도 평균 54.40%, 재정자주도 75.4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 김해시의 지방채무액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1,051억원)보다 182억원 많고, 주민1인당 채무액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253천원)보다 20천원 적음.
- 2010년부터 지방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동종평균보다 높았던 주민1인당 채무액 폭이 크게 개선되었음.

<표11> 김해시 재정규모 및 구조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세입/세출/ 잉여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현액	계	1,077,132	1,127,932	1,255,801	1,327,321	1,465,852
	일 반	944,465	954,813	1,052,161	1,067,490	1,191,032
	특 별	132,667	173,119	203,640	259,831	274,820
세 입	계	1,072,441	1,135,730	1,278,220	1,354,231	1,503,858
	일 반	937,979	959,570	1,061,053	1,105,353	1,223,415
	특 별	134,462	176,160	217,167	248,878	280,443
세 출	계	913,52-	962,229	1,056,127	1,095,788	1,255,566
	일 반	812,524	828,768	911,075	917,961	1,060,351
	특 별	100,996	133,461	145,052	177,827	195,215
잉 여	계	158,922	173,501	222,083	258,443	248,292
	일 반	125,456	130,802	149,978	187,392	163,064
	특 별	33,466	42,699	72,115	71,051	85,228

출처 : 김해시 통계연보(2016)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구조

1) 일반회계 세입결산

<표12> 김해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843,047	954,813	1,052,161	1,067,490	1,223,415
지방세	215,470	235,227	242,266	253,900	291,090
세외수입	56,074	67,072	56,290	56,057	76,490
지방교부세	146,260	149,552	141,478	153,738	146,777
조정교부금	86,470	75,517	70,553	73,800	109,771
보조금	294,059	284,364	329,989	345,408	359,748
지방채	1,400	-	57,780	16,500	23,2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314	143,081	153,805	168,087	216,340

출처 : 김해시 통계연보(2016)

- 2015년 김해시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223,415백만원으로 이 전년도 합계금액인 1,067,490백만원보다 155,925백만원 증가함.
- 분야별 세입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보조금이 세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의 60.43%를 이룸.

2) 일반회계 세출결산

<표13> 김해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812,524	828,768	911,075	917,961	1,060,351
일반공공행정	52,461	65,047	129,709	78,783	78,257
공공질서 및 안전	9,355	7,932	7,011	7,747	7,101
교육	19,635	18,721	20,989	21,909	17,289
문화 및 관광	49,510	42,641	51,213	66,767	84,590
환경보호	104,302	99,980	87,559	82,015	113,103
사회복지	226,910	247,997	281,791	307,608	328,805
보건	13,308	14,545	14,897	15,696	17,953
농림해양수산	65,079	60,965	59,953	58,321	60,411
산업, 중소기업	18,787	16,312	13,363	13,361	30,893
수송 및 교통	129,546	123,758	119,411	129,944	170,666
국토 및 지역개발	38,587	40,255	32,352	33,870	43,318
과학기술	-	-	-	-	-
예비비	-	-	-	-	-
기타	85,043	90,615	92,828	101,940	107,965

출처 : 김해시 통계연보(2016)

- 2015년 김해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060,351백만원으로 이 전년도 합계금액 917,961백만원보다 142,390백만원 증가함.
- 분야별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31%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16.09%, 환경보호 10.66% 순으로 높음.

3) 2017 본예산 현황

- 2017년 김해시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117,581,609천원으로 일반회계 1,045,661,810천원(93.56%)과 특별회계 71,919,799천원(6.44%)으로 이루어짐.

<표14> 김해시 2017년도 본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강률
합계		1,117,581,609	1,038,033,211	7.66%
일반회계		1,045,661,810	969,017,313	7.91%
특별회계		71,919,799	69,015,898	4.21%
기타 특별회계		71,919,799	69,015,898	4.21%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4,477,599	4,453,222	0.55%
	수질개선특별회계	9,512,111	8,041,502	18.29%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3,098,238	13,647,179	△4.02%
	기반시설특별회계	470,760	457,520	2.87%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02,210	92,593	10.3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140,248	2,145,150	△0.2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913,911	6,497,951	6.40%
	주택사업특별회계	101,857	99,378	2.4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2,068,545	30,662,420	4.59%
	지하수특별회계	3,034,320	2,918,883	3.95%

- 전년도예산액에 비해 전체적으로 7.66%의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7.91%, 특별회계에서 4.21% 증가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가 가장 많은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1.17%), 수질개선특별회계(0.8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Ⅲ. 김해시 도서관 현황

1. 공공도서관 현황
2. 작은도서관 현황
3. 김해시 통합도서관시스템 이용 현황

Ⅲ. 김해시 도서관 현황

1. 공공도서관 현황

1) 일반 현황

<표15> 김해시 공공도서관 일반 현황

도서관명	운영주체	개관년도 (년)	면적 (m ²)	장서량 (권)
칠암도서관	김해시	1999	5,869	190,919
장유도서관	김해시	2002	6,901	177,503
화정글샘도서관	김해시	2008	4,245	118,921
진영한빛도서관	김해시	2009	6,568	111,618
김해기적의도서관	김해시	2011	1,458	52,287
소 계			25,041	651,248
김해도서관	교육청	1985	6,679	322,150
진영도서관	교육청	1990	1,324	103,395
소 계			8,003	425,545
합 계			33,044	1,076,793

출처: 김해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김해시 제공자료(2016년 기준)

- 김해시의 공공도서관은 2017년 현재 총 7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김해시에서 5개관, 교육청에서 2개관을 운영하고 있음.
- 김해시는 통합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립도서관 5개관과 작은도서관 36개소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불포함).

<표16> 김해시와 전국의 공공도서관 지표 비교

	1관당 인구수(명)	시민 1인당 장서수(권)	사서(정규직) 1인당 서비스 인구(명)	시민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	1관당 대출자수(명)
김해	78,198	1.82	12,441	1,748	13,601
전국	52,688	1.82	12,651	1,710	12,166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15년 기준)

- 2015년 기준으로 김해시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78,198명으로, 전국 평균 52,688명보다 많음.
- 시민 1인당 장서수는 1.82권으로 전국 평균과 같으며, 시민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는 1,748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음.
- 사서(정규직) 1인당 서비스 인구수는 김해 12,441명, 전국 12,651명으로 큰 차이가 없음.

<표17> 김해시 공공도서관 장서 현황

(단위 : 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788,881	848,223	889,634	945,405	996,495
칠암도서관	156,681	164,704	166,139	172,886	183,279
장유도서관	141,452	149,182	144,247	149,688	156,012
화정글샘도서관	77,680	84,410	86,662	96,403	107,573
진영한빛도서관	59,182	75,625	83,177	90,797	96,669
김해기적의도서관	22,091	29,446	38,628	44,562	47,332
김해도서관	251,795	260,655	281,810	296,820	307,331
진영도서관	80,000	84,201	88,971	94,249	98,299

※ 도서(인쇄자료)수만 포함됨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15년 기준)

- 김해시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2011년 788,881권에서 2015년 996,495권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평균 6%의 증가율을 보임.

- 김해기적의도서관의 장서증가율은 연평균 21.5%로 가장 높으며, 칠암도서관의 장서증가율이 연평균 4.0%로 가장 낮음.

<표18> 김해시 공공도서관별 도서구입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772,915	1,050,443	1,020,544	1,063,430	1,061,989
칠암도서관	101,069	168,880	89,580	180,340	179,940
장유도서관	93,606	98,600	271,000	218,400	211,500
화정글샘도서관	126,840	154,800	161,100	154,648	182,440
진영한빛도서관	122,500	130,330	100,800	100,800	139,000
김해기적의도서관	95,900	120,900	84,700	139,480	76,600
김해도서관	170,000	297,448	246,264	213,552	211,552
진영도서관	63,000	79,475	67,100	56,210	60,957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15년 기준)

- 2015년 도서구입 예산은 김해도서관이 211,552천원으로 가장 많고, 진영도서관이 60,957천원으로 가장 적음.
- 김해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은 2014년이 1,063,430(천원)으로 가장 많고, 2011년이 772,915(천원)으로 가장 적음.

2) 인력 현황

<표19> 김해시공공도서관 인력 현황

(단위 : 명)

도서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계	사서직	행정직	전산직	기타	사서직	기타
칠암도서관	14	6	4	1	3	7	14
장유도서관	12	6	3	0	3	10	18
화정글샘도서관	8	4	2	0	2	6	21
진영한빛도서관	11	5	3	1	2	5	22
김해기적의도서관	6	3	2	0	1	3	7
김해도서관	29	18	8	0	3	10	9
진영도서관	5	2	1	0	2	1	1
합 계	85	44	23	2	16	42	92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15년 기준)

- 김해시 공공도서관의 정규직 인력은 칠암도서관이 14명으로 가장 많으며 김해기적의도서관이 6명으로 가장 적음. 교육청 운영 도서관의 경우 김해도서관이 29명으로 가장 많으며, 진영도서관이 5명으로 가장 적음.
- 비정규직을 포함한 김해시립도서관 5개관의 전체 인력은 164명이며, 이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68.9%로 인력의 2/3가 비정규직임.

3) 이용 현황

<표20> 김해시 공공도서관 연도별 이용자수 및 대출권수

(단위 : 명, 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이용자	3,276,213	3,248,493	3,219,935	2,958,206	3,039,314
	대출권수	1,574,552	1,534,584	1,671,715	1,321,026	1,400,806
칠암도서관	이용자	440,677	411,185	352,779	291,568	296,291
	대출권수	211,017	176,031	186,159	131,418	126,778
장유도서관	이용자	737,258	678,105	621,698	570,328	605,007
	대출권수	381,114	273,463	276,854	109,140	240,180
화정글샘도서관	이용자	493,740	449,136	405,075	333,385	329,514
	대출권수	325,971	300,495	302,760	256,475	247,521
진영한빛도서관	이용자	537,310	392,208	367,136	363,705	316,692
	대출권수	145,011	129,378	150,421	108,691	103,309
김해기적의도서관	이용자	15,527	123,415	135,553	133,807	103,710
	대출권수	24,941	178,804	201,226	172,574	147,348
김해도서관	이용자	974,063	1,113,361	1,257,611	1,140,904	1,241,589
	대출권수	450,679	449,587	517,558	514,829	504,286
진영도서관	이용자	77,638	80,083	80,083	124,509	146,511
	대출권수	34,819	26,926	36,737	27,899	31,384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15년 기준)

- 2015년 김해시 공공도서관의 전체 이용자수는 3,039,314명, 대출권수는 1,440,806권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최근 5년의 변화로 볼 때 이용자수와 대출권수 모두 감소하는 추세임.

2. 작은도서관 현황

1) 김해시 작은도서관 현황

<표21> 시비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

번호	도서관명	개관 년도	장서량 (권)	대출 권수(권)	대출자 수(명)	면적 (㎡)	유형
1	월산주공작은도서관	2006	12,428	5,707	1,997	118	아파트
2	장유대우도서관	2007	15,253	5,801	1,932	181.74	아파트
3	대동한마음작은도서관	2007	11,695	9,845	3,170	115	아파트
4	대포천작은도서관	2007	8,200	2,268	847	96	공공시설
5	불암동작은도서관	2007	9,695	1,065	368	111	공공시설
6	젤미작은도서관	2008	12,703	15,000	5,232	149.4	아파트
7	책고래작은도서관	2008	11,265	6,017	1,693	193	아파트
8	삼계푸르지오작은도서관	2008	10,650	11,698	4,133	157	아파트
9	시호미래작은도서관	2008	8,377	4,641	1,779	99	공공시설
10	생각이크는작은도서관	2008	7,624	4,090	1,635	118.44	아파트
11	덕산작은도서관	2008	10,483	1,510	695	120	아파트
12	하늘빛작은도서관	2008	8,623	3,847	1,360	211	아파트
13	캐슬작은도서관	2008	7,602	4,482	1,441	85.8	아파트
14	진례작은도서관	2008	9,349	1,708	782	140.99	공공시설
15	팔판작은도서관	2009	8,252	5,096	1,729	138	아파트
16	글해움작은도서관	2009	8,970	9,916	2,710	109	아파트
17	우리작은도서관	2009	9,115	4,120	1,370	115.3	아파트
18	뜨란채작은도서관	2009	7,475	4,828	1,895	111	아파트
19	분성IPARK작은도서관	2009	7,292	967	384	148.5	아파트
20	삼계로알작은도서관	2009	9,535	5,453	1,811	135	아파트
21	이안나누리작은도서관	2009	7,239	4,966	1,678	129	아파트
22	한국작은도서관	2009	8,789	6,368	2,009	138	아파트
23	석봉마을작은도서관	2009	5,516	5,741	1,997	121.5	아파트
24	대동푸른뜰작은도서관	2009	6,378	3,723	1,278	88.4	공공시설
25	김해글로벌도서관	2009	7,368	6,650	2,354	71	기타
26	한신책사랑작은도서관	2010	6,459	10,227	2,910	88	아파트
27	떡갈나무숲작은도서관	2010	5,266	5,974	2,244	148	아파트
28	리첼작은도서관	2010	6,718	3,388	1,283	194.93	아파트
29	활천행복작은도서관	2010	6,835	1,920	627	95	공공시설
30	일동한신꿈나무작은도서관	2010	5,688	4,714	1,616	190	아파트
31	U보라작은도서관	2010	5,832	1,619	615	120	아파트
32	주촌디딤돌작은도서관	2010	5,702	3,166	1,102	106.6	공공시설
33	소리작은도서관	2010	6,599	1,344	699	255	기타
34	중흥샘이깊은작은도서관	2012	4,176	10,508	3,609	122.1	아파트
35	울하e편한작은도서관	2012	6,415	11,192	3,186	125	아파트
36	내외작은도서관	2012	7,254	5,319	1,762	240	공공시설

출처: 김해시 제공자료(2016년 기준)

<표22> 시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작은도서관

번호	도서관명	개관년도	장서량(권)	유형
1	꿈샘작은도서관	2005	-	교회
2	한길솔로몬작은도서관	2007	2,500	교회
3	행복한작은도서관	2008	3,500	교회
4	진영소망작은도서관	2009	6,000	교회
5	두란노작은도서관	2012	8,055	교회
6	미래티움작은도서관	2013	6,000	아파트
7	꿈꾸는숲속작은도서관	2013	3,000	교회
8	푸른숲작은도서관	2013	4,000	교회
9	울상마을푸르지오작은도서관	2014	5,037	아파트
10	일동미라주아파트작은도서관	2014	1,500	아파트
11	팔판빛오름작은도서관	2015	10,000	아파트
12	진영동문굿모닝힐아파트작은도서관	2016	-	아파트
13	샘터도서관	2016	-	교회
14	월산마을1단지작은도서관	2016	-	아파트
15	거꾸로 작은도서관	2016	-	기타
16	디딤돌 작은도서관	2016	-	교회
17	유토피아 작은도서관	2016	-	아파트
18	김해울학책나무작은도서관	2017	-	기타

출처: 김해시 제공자료(2017년 5월 기준)

- 김해시의 작은도서관은 2017년 7월 현재 총 5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그 중 36개소는 김해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5개관과 함께 김해시 통합도서관시스템 체제에 속해있음.
- 김해시의 운영지원을 받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총 18개소로, 교회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개관하였음.
- 작은도서관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55개소 중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곳이 33개소로 가장 많고, 교회 9개소, 공공시설 9개소, 기타 4개소임.
- 김해시의 운영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 36개소 중 26개소는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8개소는 공공시설, 2개소는 기타시설에 위치하고 있음.
- 비지원 작은도서관의 교회에 소속된 작은도서관이 9개소(50%)로 가장 많

으며, 아파트 작은도서관 7개소(38.9%), 기타 2개소(11.1%)가 있음.

<표23> 작은도서관 유형별 구분

		합계	공동주택	공공시설	교회	기타
사립	시비 지원 도서관	36	26	8		2
	비지원 도서관	18	7		9	2
공립		1		1		
합계		55	33	9	9	4

출처: 김해시 제공자료(2017년 7월 기준)

2) 시비 지원을 받는 도서관의 운영 현황¹⁾

① 이용 현황

<표24> 시비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의 연평균 이용 현황

(단위 : 권, 명)

	장서량	대출자수	대출권수	면적(m ²)
총계	296,820	65,932	194,878	4,885.7
1관 평균	8,245	1,831	5,413.3	135.7

출처: 김해시 제공자료(2016년 기준)

- 김해시의 운영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 36개소의 장서보유량 평균은 8,245권, 대출자수 1,831명, 대출권수 5,413.3권이며, 평균면적은 135.7m²임.
- 전담인력은 각 관당 1명씩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중 30개소의 실무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사서자격증 15개소, 독서·유아교육 등 자격증 15개소).

1) 김해시 통합도서관시스템 이용 현황 및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2016, 김해시 평생교육사업소) 등의 자료를 분석함.

② 인력 현황

- 36개소 중 21개소가 자원봉사 모임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수는 평균 9명임.

<표25> 시비 지원 작은도서관의 인력 구성

전체	전담인력 수	전담인력의 자격증 소지	자원봉사자 구성	평균 자원봉사자 수
36개소	36명	30개소	21개소	9개소

출처 :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김해시, 2016)

③ 재정 현황

<표26> 시비 지원 작은도서관의 재정 현황

구 분	현 황
운영예산액	- 평균 : 1관당 24,290천원 - 내용 : 시보조 21,600천원, 자부담 2,690천원
재정자립도(자부담률)	- 평균 : 1관당 6.5% - 비율 : 30%내외 2개소, 10%이상 5개소, 5%이상 12개소, 5% 미만 17개소
기부금 접수실적	- 실적 : 12개소 - 내용 : 기부금 8개소, 현물 4개소
입주자 대표회의 지원	- 실적 : 24개소 - 내용 : 운영비 13개소, 공과금 8개소, 기타 9개소

- 1관당 평균 운영예산은 24,290천원임. 그중 시 보조금은 21,600천원이며 자부담액은 2,690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5%임. 특히 절반에 가까운 17개소의 재정자립도가 5%에도 미치지 못함.

④ 프로그램 현황

- 시비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 36개소의 연간 총 강좌수는 897개로, 1관당 24.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문화강좌수는 659개, 독서프로그램수는 238개로, 대체로 문화강좌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27> 시비 지원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도서관명	전체 강좌수	문화 강좌수	독서프로그램수
합 계	897	659	238
U.보라작은도서관	17	12	5
글혜움작은도서관	14	12	2
김해글로벌도서관	34	19	15
내외작은도서관	31	20	11
대동푸른뜰작은도서관	14	1	13
대동한마음작은도서관	19	16	3
대포천작은도서관	5	4	1
덕산작은도서관	28	21	7
떡갈나무숲작은도서관	16	12	4
뜨란채작은도서관	38	30	8
리첼작은도서관	13	12	1
분성아이파크작은도서관	14	10	4
불암동작은도서관	19	15	4
삼계로알작은도서관	54	40	14
삼계푸르지오작은도서관	22	19	3
생각이크는작은도서관	15	5	10
석봉마을작은도서관	24	24	0
소리작은도서관	19	4	15
시호미래작은도서관	10	3	7
우리작은도서관	20	20	0
월산주공작은도서관	23	20	3
울하e편한작은도서관	21	21	0
이안나누리작은도서관	46	40	6
일동한신꿈나무작은도서관	30	26	4
장유대우작은도서관	58	58	0
젤미작은도서관	45	34	11
주촌디딤돌작은도서관	16	12	4
중흥샘이깊은작은도서관	33	27	6
진례작은도서관	6	6	0
책고래작은도서관	38	38	0
캐슬작은도서관	8	5	3
팔판작은도서관	74	26	48
하늘빛작은도서관	28	24	4
한국작은도서관	18	11	7
한신책사랑작은도서관	19	12	7
활천행복작은도서관	8	0	8

출처 : 김해시 제공자료(2016년 기준)

3. 김해시 통합도서관시스템 이용 현황

1) 통합도서관시스템 참여 도서관

- 김해시는 통합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총 44개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원하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서 대출 및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통합도서관시스템에는 칠암도서관, 장유도서관, 화정글샘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김해기적의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5개소와 작은도서관 37개소, 기타시설 2개소(청소년문화의집, 시청 행정자료실)가 참여하고 있음.

<표28> 통합도서관시스템 참여 도서관

구분	도서관명
공공도서관 (5개관)	칠암도서관, 장유도서관, 화정글샘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김해기적의도서관
작은도서관 (36개소)	월산주공작은도서관, 대우작은도서관, 대포천작은도서관, 대동한마음작은도서관, 불암동작은도서관, 삼계푸르지오작은도서관, 진례작은도서관, 시호미래작은도서관, 하늘빛작은도서관, 덕산작은도서관, 젤미작은도서관, 캐슬작은도서관, 책고래작은도서관, 생각이크는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우리작은도서관, 팔판작은도서관, 글혜움작은도서관, 석봉마을작은도서관, 한신책사랑작은도서관, 뜨란채작은도서관, 이안나누리작은도서관, 삼계로알작은도서관, 분성IPARK작은도서관, 김해글로벌도서관, 소리작은도서관, 내외작은도서관, 리첼작은도서관U보라작은도서관, 대동푸른뜰작은도서관, 일동한신꿈나무작은도서관, 떡갈나무숲작은도서관, 주촌디딤돌작은도서관, 활천행복작은도서관, 한국작은도서관, 율하e편한작은도서관, 중흥샘이깊은작은도서관
기타 (3개소)	생림북카페, 청소년문화의집, 시청행정자료실

출처: 김해통합도서관 홈페이지

2) 연도별 통합도서관 서비스 이용 현황

<표29> 연도별 통합도서관 서비스 이용 현황

구분	배송건수 (회)	타관제공 및 반납책수(권)	타관제공 책수(권)
2010년	65,237	225,440	79,515
2011년	84,699	301,934	115,541
2012년	84,515	338,834	120,343
2013년	76,863	296,392	100,301
2014년	69,006	283,101	89,788
2015년	71,975	291,394	101,409
2016년	80,871	342,404	127,726

출처: 김해시 제공자료

- 2016년의 타관제공 및 반납책수는 342,404권, 타관제공책수는 127,726권의 수치를 기록함.
- 연도별 통합도서관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로 이용횟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이는 2016년에 김해시립도서관 1인당 대출가능권수가 5권에서 7권으로 상향조정된 결과임.
- 이용 현황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4년으로 배송건수 69,006건, 타관제공 및 반납책수 283,101권, 타관제공책수 89,788권으로 나타남.

3) 월별 통합도서관시스템 이용 현황

<표30> 2016년 월별 통합도서관 시스템 이용 현황

(단위 : 권)

월별	타관 배송		타관 대출 및 반납		타관 제공	
	배송 건수	일평균	대출 및 반납 책수	일평균	제공 책수	일평균
1월	7,018	351	29,761	1,488	11,557	578
2월	5,755	320	24,035	1,335	7,934	441
3월	7,036	320	28,394	1,291	11,263	512
4월	7,106	338	29,535	1,406	10,882	518
5월	6,175	343	26,278	1,460	10,128	563
6월	7,188	327	28,574	1,299	10,231	465
7월	7,431	338	30,484	1,386	12,097	550
8월	5,778	304	34,917	1,838	12,559	661
9월	7,059	372	29,522	1,554	10,130	533
10월	6,537	327	25,476	1,274	9,819	491
11월	6,914	329	28,305	1,348	10,312	491
12월	6,874	312	27,123	1,233	10,814	492
합계	80,871	332	342,404	1,409	127,726	525
월평균	6,739	332	28,534	1,409	10,644	525

출처: 김해시 제공자료(2017년 5월 기준)

- 김해시에서는 2016년에 월평균 6,739건의 타관대출 및 반납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월평균 28,534권의 책이 대출 및 반납되었으며, 월평균 10,644권의 책이 타관으로 제공되었음.

IV.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

1. 조사의 개요와 의의
2. 성인 조사 결과
3. 학생 조사 결과

IV.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

1. 조사의 개요와 의의

1) 조사의 개요

- 지난 10년간 ‘책읽는도시 김해’의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김해시민들의 독서문화, 도서관문화, 정책인지와 공감의 정도 등에 대해서 과정을 진단하고 재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태와 지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7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함.

2) 조사의 의의

- 이번에 실시된 <2017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음. <국민 독서실태 조사>의 경우 성인 5,000명, 학생 3,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7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는 성인 443명, 학생 662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음.
- 앞으로 중장기적인 ‘책읽는도시 김해’가 점검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추이 변화를 분석하여 김해시민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변화 양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이 조사는 ‘책읽는도시 김해’의 정책 점검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임.

3) 조사 방법

- 조사 대상 및 규모
 - 성인 : 김해시 거주 중인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443명
 - 학생 : 김해시 초등 4학년 ~ 고등 2학년 662명

○ 조사 실시 기간

- 성인 : 2017년 3월 14 ~ 15일
- 학생 : 2017년 6월 5 ~ 8일

○ 조사 방법

- 성인 : 연령, 성별, 거주지에 따라 대상 표본을 나눔, 자기기입식
- 학생 : 학교급, 성별에 따라 표본을 나눔, 자기기입식

4) 응답자 특성

○ 성인

항목		사례수 (명)	비율 (%)
성별	남	142	32.4
	여	296	67.6
연령	18-29세	90	20.5
	30-39세	112	25.6
	40-49세	133	30.4
	50-59세	76	17.4
	60-69세	17	3.9
	70세 이상	10	2.3
학력	중졸 이하	16	3.7
	고졸	144	33.3
	대졸(재학생 포함)	258	59.6
	대학원 수료 이상	15	3.5
직업	관리자	14	3.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	3.3
	사무 종사자	58	13.6
	서비스 종사자	28	6.5
	판매 종사자	22	5.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1.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9	2.1
	장치·기계·조작·조립직 종사자	7	1.6
	단순노무 종사자	9	2.1
	군인	34	7.9
	자영업 종사자	40	9.3
	학생	26	6.1
	전업주부	119	27.8

IV.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

	은퇴/무직	20	4.7
	기타	23	5.4
소득	100만원 미만	56	13.8
	100 ~ 200만원 미만	85	20.9
	200 ~ 300만원 미만	73	17.9
	300 ~ 400만원 미만	61	15.0
	400 ~ 500만원 미만	59	14.5
	500 ~ 600만원 미만	45	11.1
	600 ~ 700만원 미만	12	2.9
	700만원 이상	16	3.9
거주지역	장유1동	31	7.0
	장유2동	23	5.2
	장유3동	40	9.0
	동상동	4	0.9
	회현동	5	1.1
	부원동	24	5.4
	내외동	55	12.4
	북부동	89	20.1
	칠산서부동	6	1.4
	활천동	56	12.7
	삼안동	11	2.5
	불안동	6	1.4
	진영읍	61	13.8
	주촌면	1	0.2
	진례면	6	1.4
	한림면	11	2.5
	생림면	2	0.5
	상동면	5	1.1
	대동면	6	1.4

○ 학생

항목		사례수 (명)	비율 (%)
성별	남	331	50.0
	여	331	50.0
학교급	초등학생	207	31.3
	중학생	226	34.1
	고등학생	229	34.6

2. 성인 조사 결과

1) 독서량 및 독서율

① 종이책 독서량 및 독서율

<표31> 김해시민 1인당 종이책 독서량 및 독서율

구 분	독서율	독서량
2017 김해시	75.2%	8.7권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65.3%	9.1권
2008년 김해시	86.0%	12.6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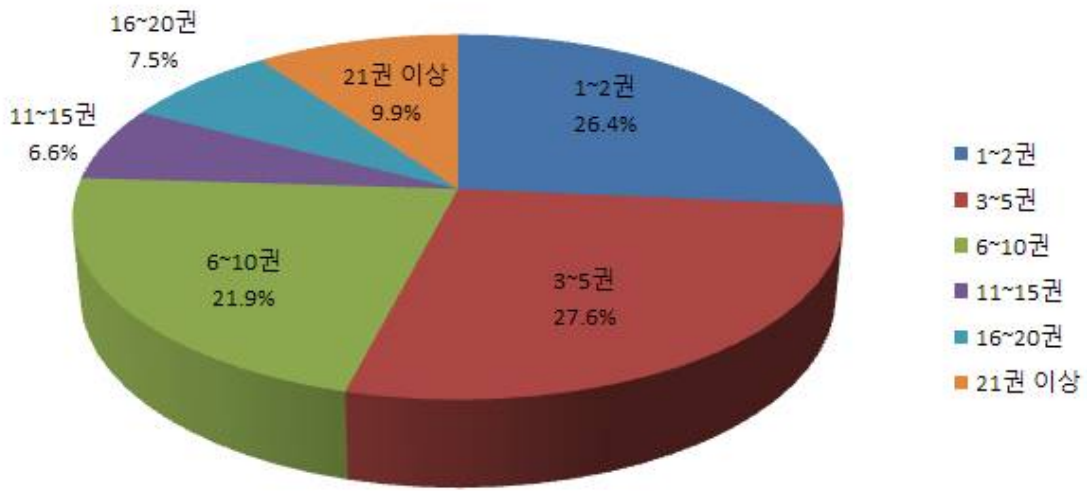
- 김해시민의 지난 1년간 종이책 독서율은 75.2%, 독서량은 8.7권으로 나타남.
- 김해시민의 독서량은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의 연간 국민 독서율 65.3%보다 높지만, <2008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에 비해서는 10.8% 낮음.
- 김해시민의 독서량은 2008년 김해시민 평균 12.6권보다 3.9권이 적으며, 전국 평균 9.1권보다도 0.4권이 적음.
- 독서율과 독서량 하락은 전세계적 추세이지만, 김해시의 경우 독서량 하락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큼.

<표32> 종이책 독서량 및 독서율

	읽지 않음	1~2권	3~5권	6~10 권	11~15 권	16~20 권	21권 이상	총계
응답수	110	88	92	73	22	25	33	443
비율	24.8%	19.9%	20.8%	16.5%	5.0%	5.6%	7.4%	100.0%

- 종이책 독서량은 ‘읽지 않음’ 응답비율이 24.8%로 가장 높으며, ‘3~5권’을 읽는 사람 20.8%, ‘1~2권’을 읽는 사람 19.9% 순으로 이어짐.
- 18%의 응답자만이 1년에 책을 12권(한 달에 한 권) 이상 읽는다고 답하여 독서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4> 성인 종이책 독자를 대상으로 한 종이책 독서량 및 독서율



- 종이책 독자만을 대상으로 독서량을 조사한 결과 ‘3~5권’을 읽는다고 밝힌 응답자가 27.6%로 가장 많음. 이어서 ‘1~2권’ 26.4%, ‘6~10권’ 21.9% 순으로 나타남.

② 연령별 독서량 및 독서율

<표33> 연령에 따른 종이책 독서량 및 독서율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독서량	8.5권	9.0권	11.8권	5.6권	2.5권
독서율	81.1%	75.0%	77.4%	72.4%	51.9%
응답수	90	112	133	76	27

- 독서량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18~29세’ 81.1%, 가장 적은 연령대는 ‘60세 이상’ 51.9%로 성인 종이책 독서율은 50세 이상부터 급격히 감소함.

③ 성별에 따른 독서량 및 독서율

<표34> 성별에 따른 종이책 독서량 및 독서율

	남성	여성
독서량	6.8권	9.6권
독서율	68.3%	78.4%
응답수	142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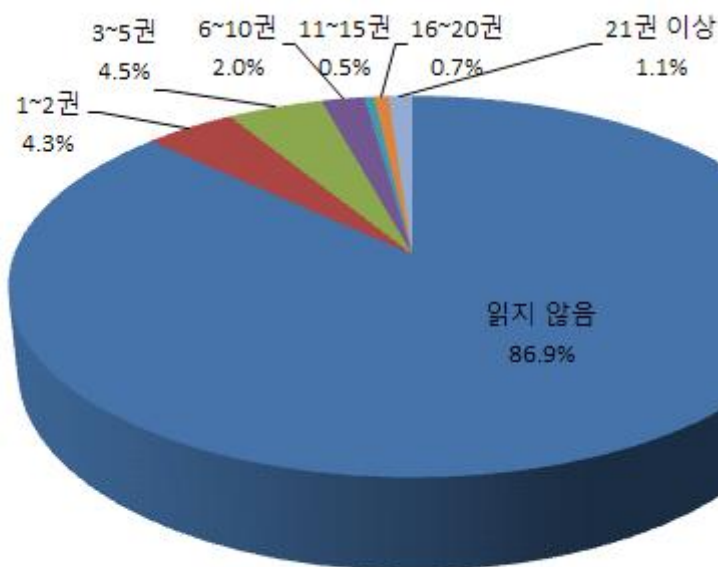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독서량 및 독서율은 남성 6.8권(68.3%), 여성 9.6권(78.4%)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남.

④ 전자책 독서량 및 독서율

<표35> 전자책 독서량 및 독서율

	읽지 않음	1~2권	3~5권	6~10 권	11~15 권	16~20 권	21권 이상	총계
응답수	385	19	20	9	2	3	5	443
비율	86.9%	4.3%	4.5%	2.0%	0.5%	0.7%	1.1%	100.0%

<그림5> 전자책 독서량 및 독서율



<표36> 김해시민 1인당 전자책 독서량 및 독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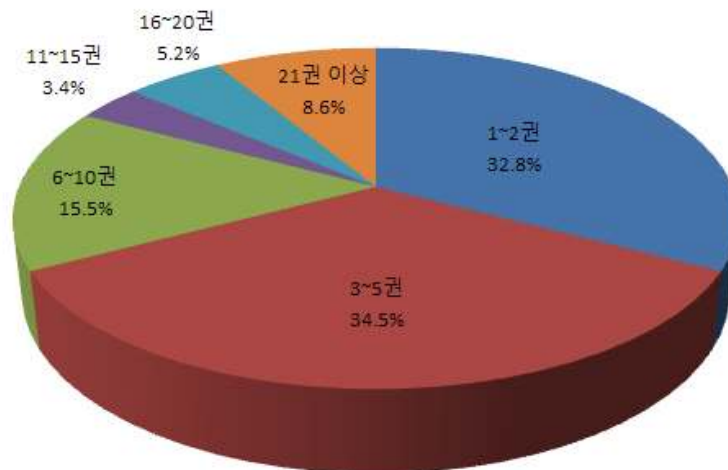
	독서량	독서율
2017 김해시	1.4권	13.1%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0.7권	10.2%

- 전자책 비독자를 포함한 김해시민의 지난 1년간 전자책 독서율은 13.1%로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의 1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자책 독서량은 1.4권으로 전국 평균 0.7권에 비해 2배 많음.
- 전자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86.9%%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종이책 위주로 독서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37> 전자책 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책 독서량 및 독서율

	1~2권	3~5권	6~10권	11~15권	16~20권	21권 이상	총계
응답수	19	20	9	2	3	5	58
비율	32.8%	34.5%	15.5%	3.4%	5.2%	8.6%	100.0%

<그림6> 전자책 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책 독서량 및 독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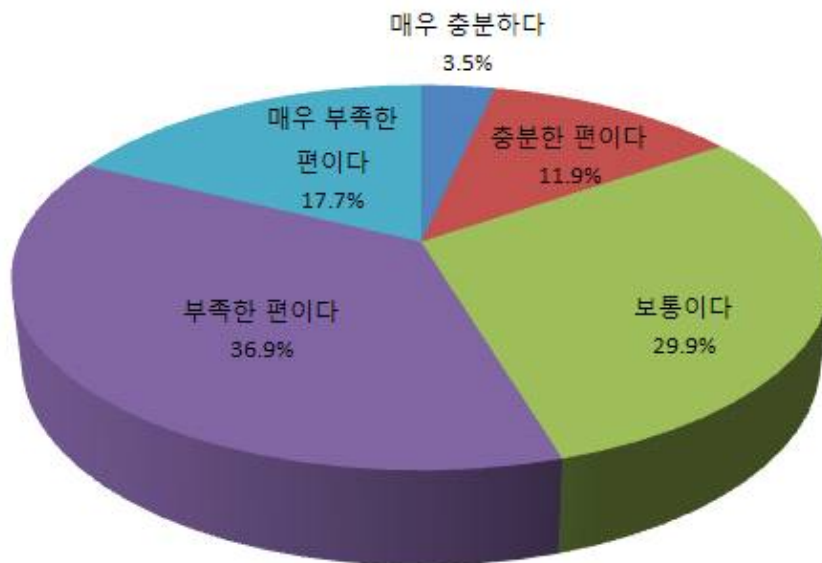
- 전자책 독자만을 대상으로 독서량을 조사한 결과 ‘3~5권’을 읽는다고 밝힌 응답자가 34.5%로 가장 많음. 이어서 ‘1~2권’ 32.8%, ‘6~10권’ 15.5% 순으로 나타남.

2) 독서량 인식 정도

<표38> 독서량 인식 정도

	매우 충분하다	충분한 편이다	보통이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한 편이다	총계
응답수	12	41	103	127	61	344
비율	3.5%	11.9%	29.9%	36.9%	17.7%	100.0%

<그림7> 독서량 인식 정도



- 독서량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15.4%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충분한 편이다’)라 응답했지만, ‘부족하다’(‘부족한 편이다’+‘매우 부족한 편이다’)는 응답이 54.6%에 달함.
-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충분하다’ 10.5%, ‘부족하다’ 64.9%로, 김해시민은 전국 평균에 비해 독서량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편임.

3) 하루 평균 독서시간

<표39> 하루 평균 독서시간

	항목	읽지 않음	0~ 30분	30~ 60분	60~ 120분	120~ 180분	180~ 240분	240분 이상	총계
평 일	응답 수	178	98	83	60	19	3	2	443
	비율	40.2%	22.1%	18.7%	13.5%	4.3%	0.7%	0.5%	100.0 %
주 말	응답 수	260	42	69	40	18	6	8	443
	비율	58.7%	9.5%	15.6%	9%	4.1%	1.4%	1.8%	100.0 %

<그림8> 하루 평균 독서시간



- 김해시민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평일 42.57분, 주말 38.92분으로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의 평일 22.8분, 주말 25.3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읽지 않음’의 비율이 평일에는 40.2%, 주말에는 58.7%에 달하여 아직 상당수의 시민이 독서와 밀접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4) 독서 장애 요인

<표40> 독서 장애 요인

항목	응답수	비율
일(공부) 때문에 바빠서	200	45.7%
다른 여가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76	17.4%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54	12.3%
책을 읽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15	3.4%
책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13	3.0%
책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2	0.5%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3	0.7%
몸이 불편하여 책 읽기가 어려워서	5	1.1%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2	0.5%
책을 사볼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9	2.1%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5	10.3%
기타	14	3.2%
총계	4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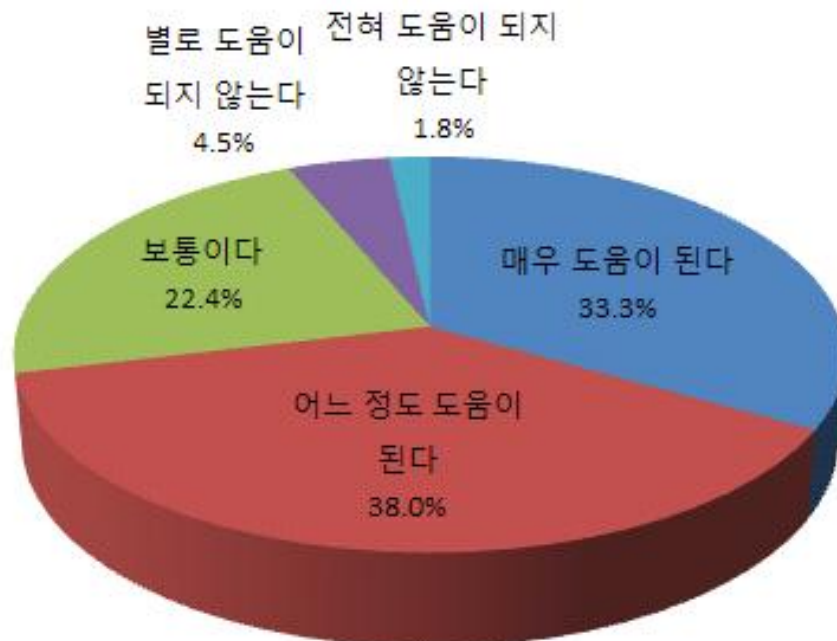
- 독서 장애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일(공부) 때문에 바빠서’를 선택한 응답자가 45.7%로 가장 많고, ‘다른 여가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자도 17.4%로 나타남.
- 독서활동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경쟁적인 학업 및 취업준비, 사회생활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줄고 스마트폰이 일상적인 매체가 됨에 따라 독서에 투자하던 시간과 노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됨.
-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자는 10.3%로 나타남. 이는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의 5.9%에 비해 높은 수치임. 따라서 김해시민들의 독서 필요성 인식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5) 독서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표41> 독서에 대한 인식

	매우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총계
응답수	147	168	99	20	8	443
비율	33.3%	38.0%	22.4%	4.5%	1.8%	100.0%

<그림9> 독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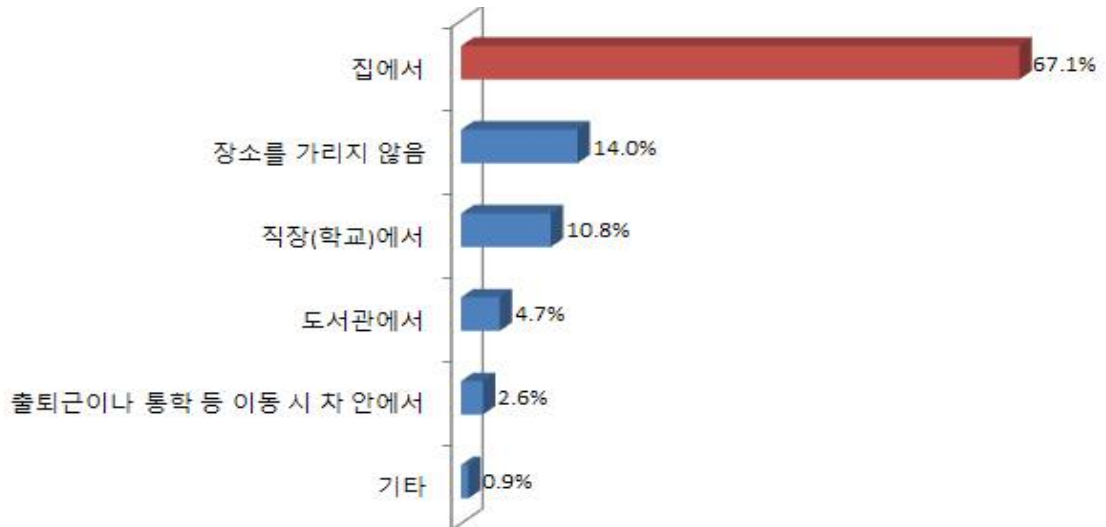
- 독서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71.3%,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의 비율은 6.3%임.
-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 성인의 65.9%가 독서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김해시민이 상대적으로 독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주요 독서 장소

<표42> 주요 독서 장소

	집에서	직장(학교)에서	출퇴근, 통학 등 이동 시	도서관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음	기타	총계
응답수	230	37	9	16	48	3	343
비율	67.1%	10.8%	2.6%	4.7%	14.0%	0.9%	100.0%

<그림10> 주요 독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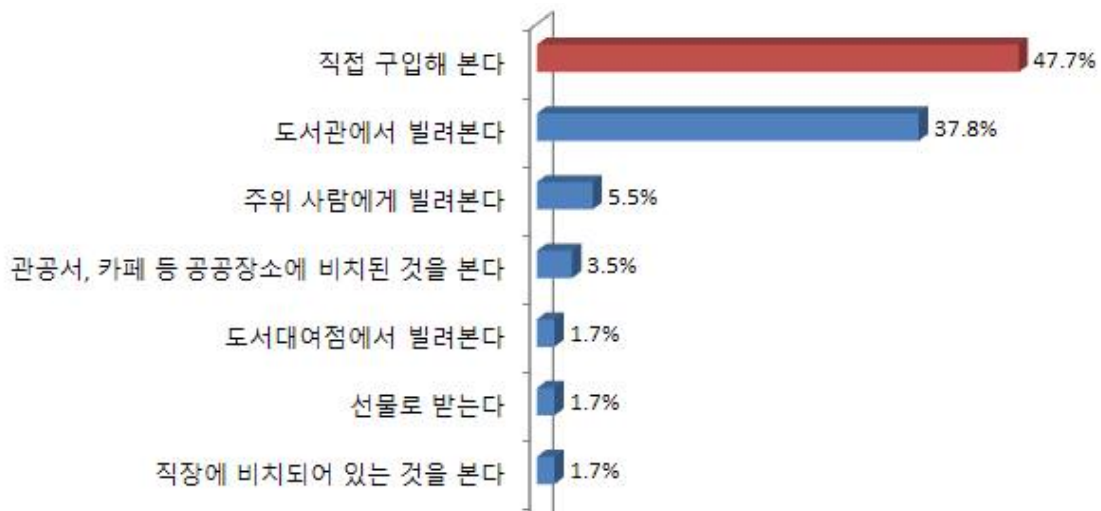
- 성인 독자들이 평소 책을 읽는 장소는 ‘집’이라는 응답이 67.1%로 압도적으로 높음. 다음으로 ‘장소를 가리지 않음’ 14.0%, ‘직장(학교)에서’ 10.8% 순임.
-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도 ‘집’ 응답률이 5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성인 독서자들의 주요 독서 장소로 집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응답 비율을 고려해볼 때 가정과 학교의 독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7) 주요 도서 구입처

<표43> 성인 주요 도서 구입처

항목	응답수	비율
직접 구입해 본다	164	47.7%
도서관에서 빌려본다	130	37.8%
주위 사람에게 빌려본다	19	5.5%
도서대여점에서 빌려본다	6	1.7%
선물로 받는다	6	1.7%
직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본다	6	1.7%
관공서, 카페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것을 본다	12	3.5%
기타	1	0.3%
총계	344	100.0%

<그림11> 성인 주요 도서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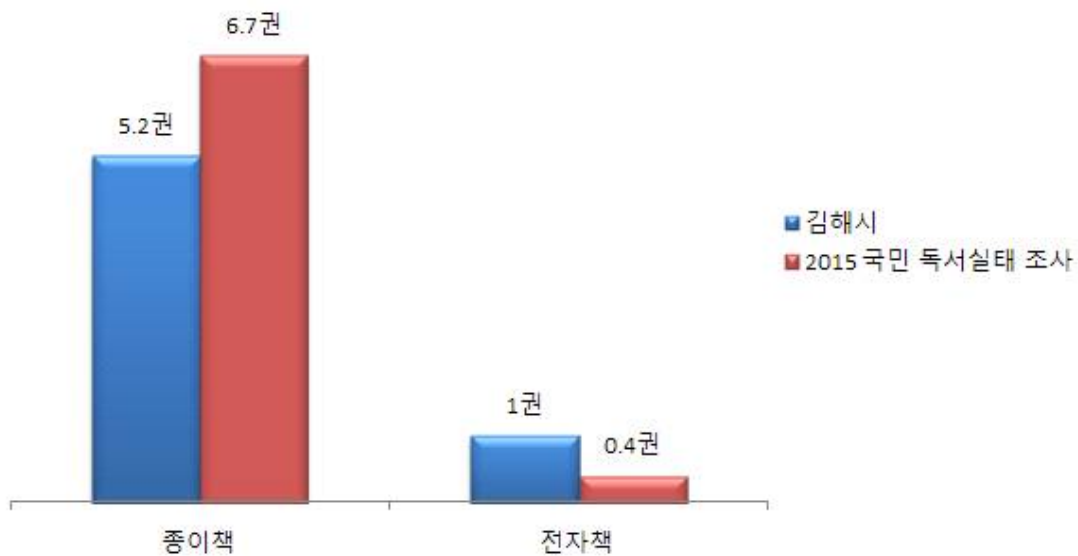
- 성인 독서자의 47.7%는 책을 직접 구입해서 보며, ‘도서관에서 빌려본다’ 37.8%, ‘주위 사람에게 빌려본다’ 5.5% 등 책을 빌려보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빌려본다’의 비율은 12.3%로 김해시민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도서관에서의 도서대출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8) 연간 도서 구입량

<표44> 김해시민의 연간 평균 도서 구입량

	종이책	전자책
2017 김해시	5.2권	1.0권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6.7권	0.4권

<그림12> 김해시민 1인당 평균 도서 구입 권수



- 지난 1년간(2016년) 1권 이상 읽었다고 밝힌 김해시민의 종이책 구입권수는 5.2권, 전자책 구입권수는 1.0권으로 나타남.
-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종이책 구입권수는 6.7권, 전자책 구입권수는 0.4권임. 김해시의 종이책 구입권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적으나, 전자책 구입권수는 상대적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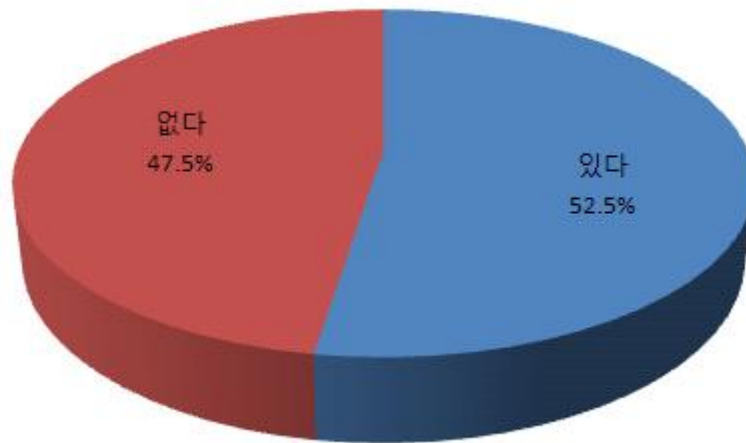
9) 공공도서관 이용률

①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표45>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있다	없다	합계
응답수	231	209	440
비율	52.5%	47.5%	100.0%

<그림13>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52.5%가 ‘있다’고 답함. 이는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의 28.2%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임.
- <2008년 김해시민 독서실태 조사>에서의 ‘이용함’ 55%보다 소폭 감소함.

②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률

<표46> 연령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률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응답수	90	111	132	76	26
이용률	59.3%	52.7%	57.1%	44.2%	19.2%

<표47> 성별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률

	남성	여성
응답수	141	294
이용률	37.6%	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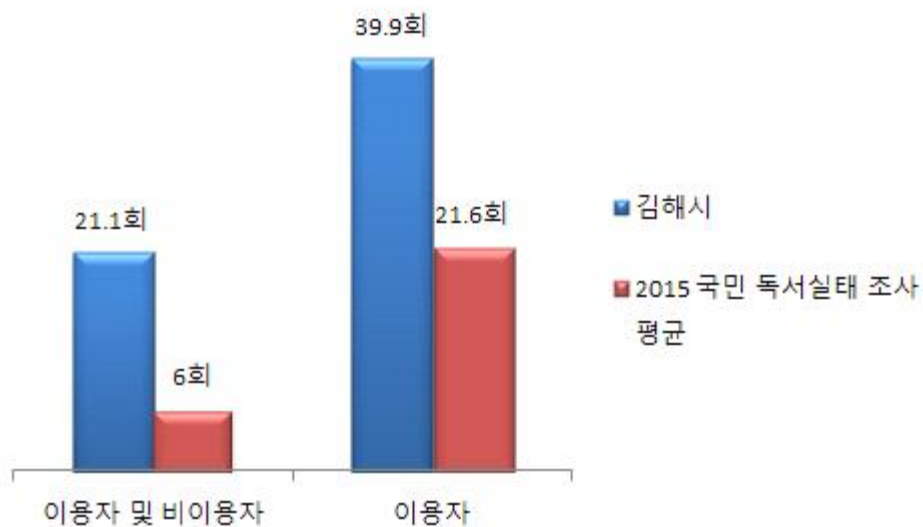
- 연령별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18~29세’가 59.3%로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이 19.2%로 가장 낮음.
- 성별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여성’ 59.9%, ‘남성’ 37.6%로 여자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그룹(노인, 남성)에 대한 서비스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0) 공공도서관 이용 횟수

<표48>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이용 횟수

	전체 평균	공공도서관 이용자 평균
2017 김해시	21.1회	39.9회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평균	6.0회	21.6회

<그림14>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이용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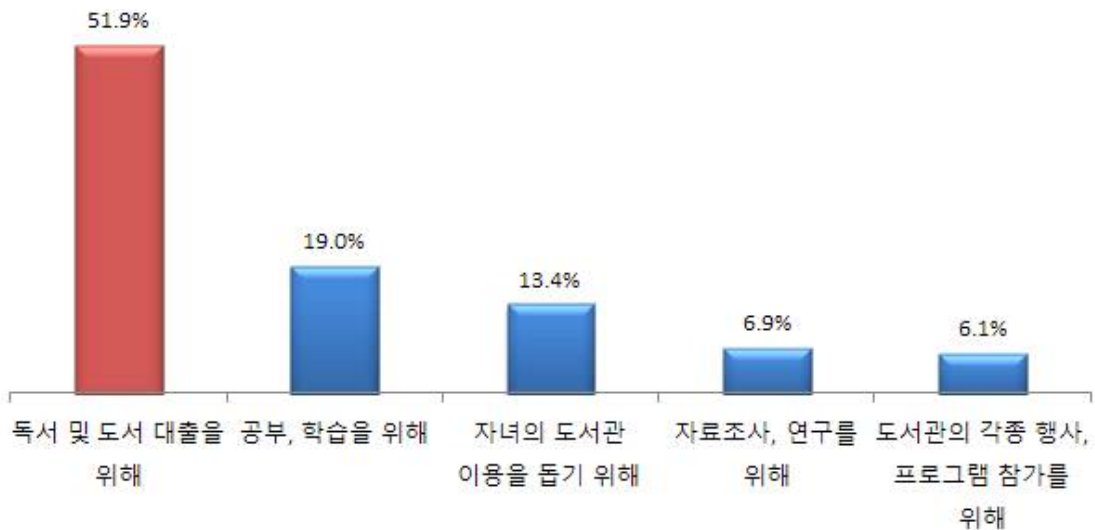
- 공공도서관 비이용자를 포함한 김해시민 1인당 공공도서관 이용 횟수는 21.1회, 비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 1인당 공공도서관 이용횟수는 39.9회로 나타남.
-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의 이용자 및 비이용자의 공공도서관 이용 횟수 6회,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이용 횟수 21.6회에 비해 김해시민의 도서관 이용 횟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11)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표49>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항목	응답수	비율
독서 및 도서 대출을 위해	120	51.9%
공부, 학습을 위해	44	19.0%
자녀의 도서관 이용을 돕기 위해	31	13.4%
자료조사, 연구를 위해	16	6.9%
도서관의 각종 행사,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14	6.1%
기타	6	2.6%
총계	231	100.0%

<그림15>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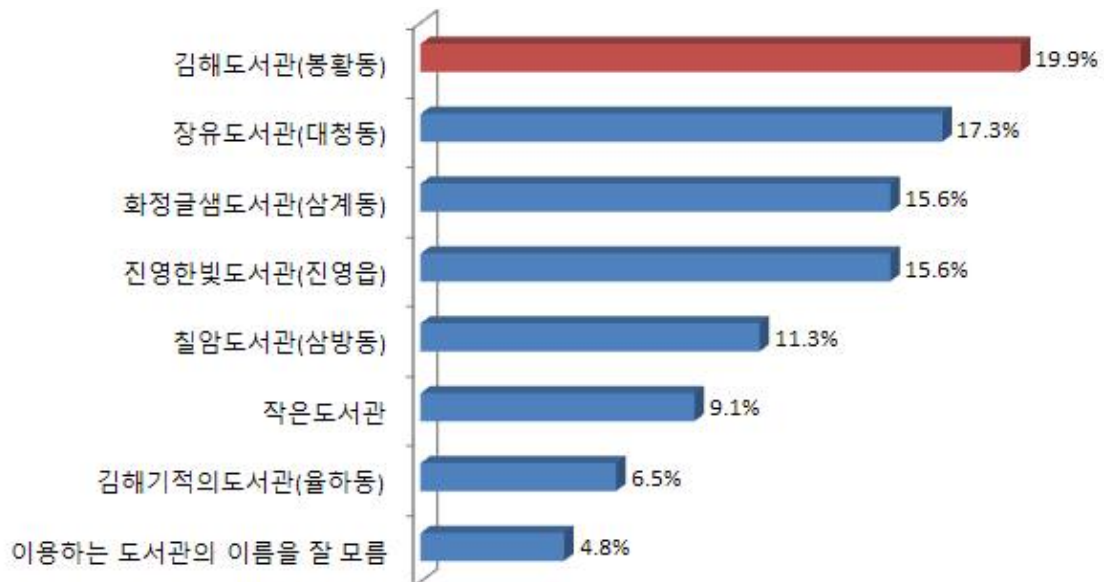
-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을 묻는 질문에 ‘독서 및 도서 대출을 위해’가 51.9%로 가장 많았고, ‘공부, 학습을 위해’ 19.0%, ‘자녀의 도서관 이용을 돕기 위해’ 13.4% 순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여전히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핵심은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8년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에서는 ‘책 열람 및 대출’이 69%, ‘시험공부 등을 위한 좌석 이용’의 비율은 9%였음. 따라서 독서 및 도서 대출 목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비율은 줄고 공부와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12)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표50>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항목	응답수	비율
김해도서관(봉황동)	46	19.9%
장유도서관(대청동)	40	17.3%
화정글샘도서관(삼계동)	36	15.6%
진영한빛도서관(진영읍)	36	15.6%
칠암도서관(삼방동)	26	11.3%
작은도서관	21	9.1%
김해기적의도서관(울하동)	15	6.5%
이용하는 도서관의 이름을 잘 모름	11	4.8%
총계	231	100.0%

<그림16>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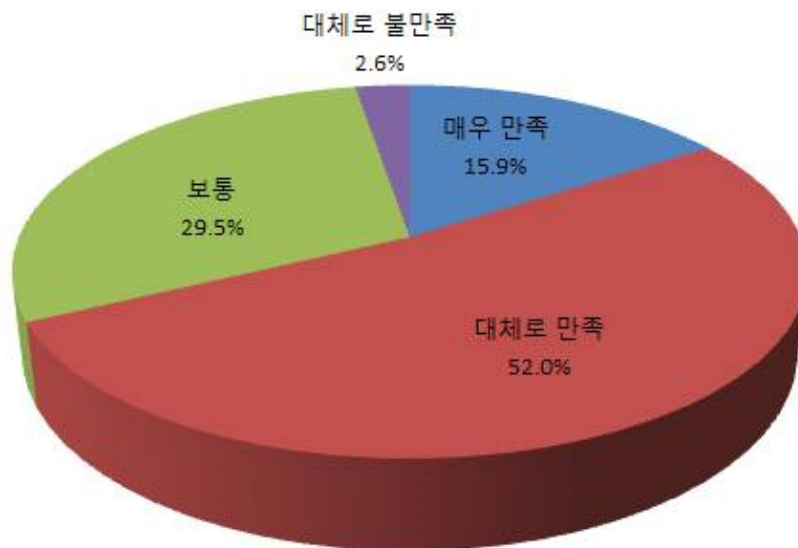
- 지난 1년간(2016년)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주 이용 도서관을 알아본 결과, 86.2%의 응답자가 공공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9.1%에 달함.

13)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표51>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응답수	36	118	67	6	0	231
비율	15.9%	52.0%	29.5%	2.6%	0.0%	100.0%

<그림17>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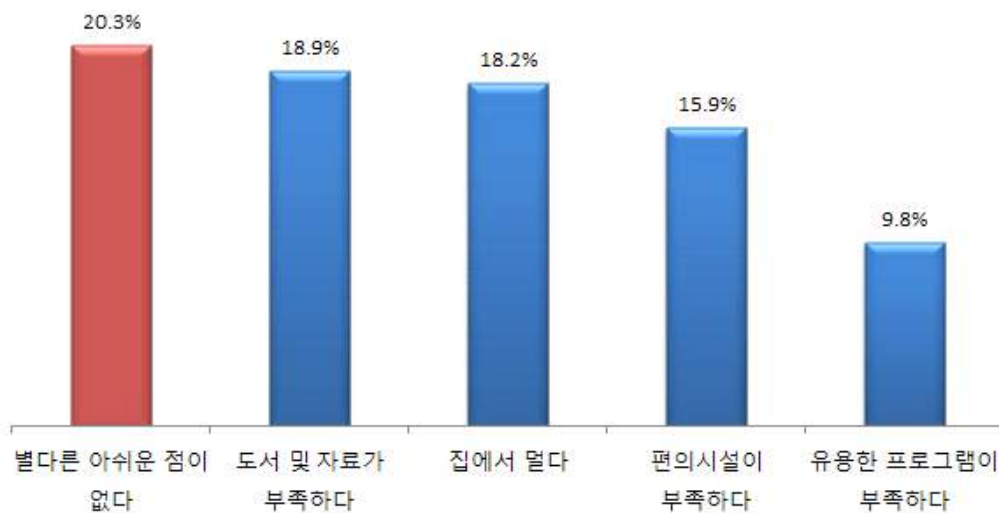
-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15.9%, ‘대체로 만족’ 52%, ‘보통’ 29%, ‘대체로 불만족’ 3%가 답했으며,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음.
- ‘만족하다’(‘매우 만족’+‘대체로 만족’)의 비율은 67.9%, ‘불만족하다’(‘대체로 불만족’+‘매우 불만족’)의 비율은 2.6%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보임.
- <2008년 김해시민 독서실태 조사>는 ‘대체로 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으로 단순화한 결과, ‘대체로 만족’ 63.2%, ‘대체로 불만족’ 36.8%이었음. 이를 통해 지난 9년간 공공도서관의 불만족도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14) 공공도서관의 아쉬운 점

<표52> 공공도서관의 아쉬운 점

항목	응답수	비율
별다른 아쉬운 점이 없다	60	20.3%
도서 및 자료가 부족하다	56	18.9%
집에서 멀다	54	18.2%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47	15.9%
유용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29	9.8%
개관시간이 짧다	23	7.8%
기타	13	4.4%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8	2.7%
시설이 낙후됐다	5	1.7%
도서관 이용 절차가 까다롭다	1	0.3%
총계	296	100.0%

<그림18> 공공도서관의 아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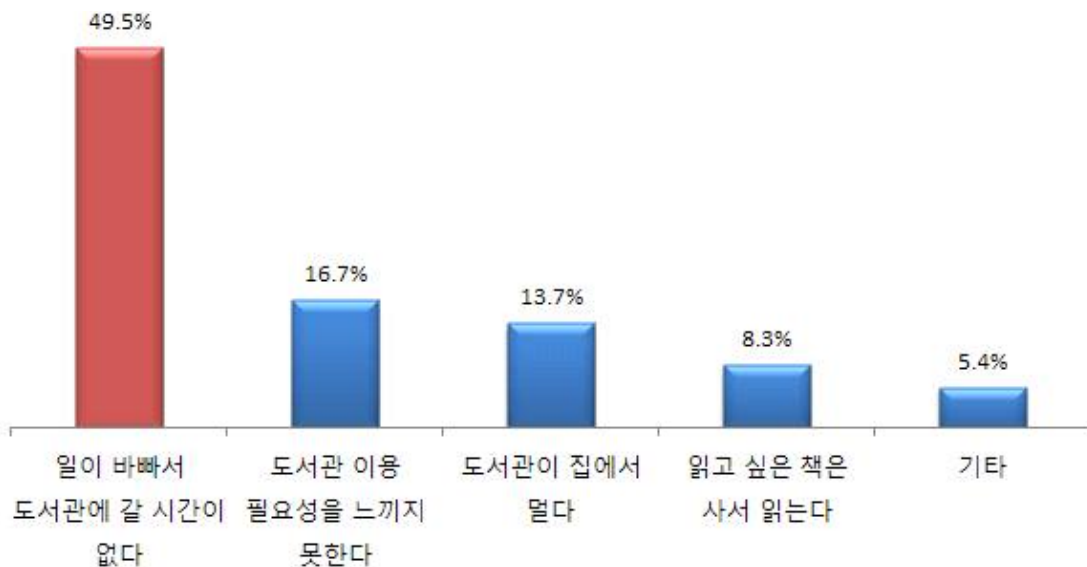
- 공공도서관 이용자에게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아쉬운 점이 없다’는 응답이 20.3%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도서 및 자료가 부족하다’ 18.9%, ‘집에서 멀다’ 18.2% 순으로 답함.
- <2008년 김해시민 독서실태 조사>에서의 ‘신간도서 부족’ 27.4%, ‘집에서 멀어서’ 25.8%와 비교하면 ‘도서 및 자료가 부족하다’와 ‘집에서 멀다’는 여전히 공공도서관에 대한 주된 불만족 사유가 됨을 알 수 있음.

15)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표53>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항목	응답수	비율
일이 바빠서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다	101	49.5%
도서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34	16.7%
도서관이 집에서 멀다	28	13.7%
읽고 싶은 책은 사서 읽는다	17	8.3%
기타	11	5.4%
직장 도서실(또는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	4	2.0%
도서관 개관 시간이 짧다	3	1.5%
도서관 이용 절차가 까다롭다	3	1.5%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다	1	0.5%
독서상담, 안내를 해주는 사서가 없다	1	0.5%
도서관에 읽을 만한 책이 없다	1	0.5%
총계	204	100.0%

<그림19>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공공도서관 비이용자에게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이 바빠서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다’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도서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6.7%, ‘도서관이 집에서 멀다’ 13.7% 순으로 응답함.
-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서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44.2%로 가장 높았지만, 김해시는 16.7%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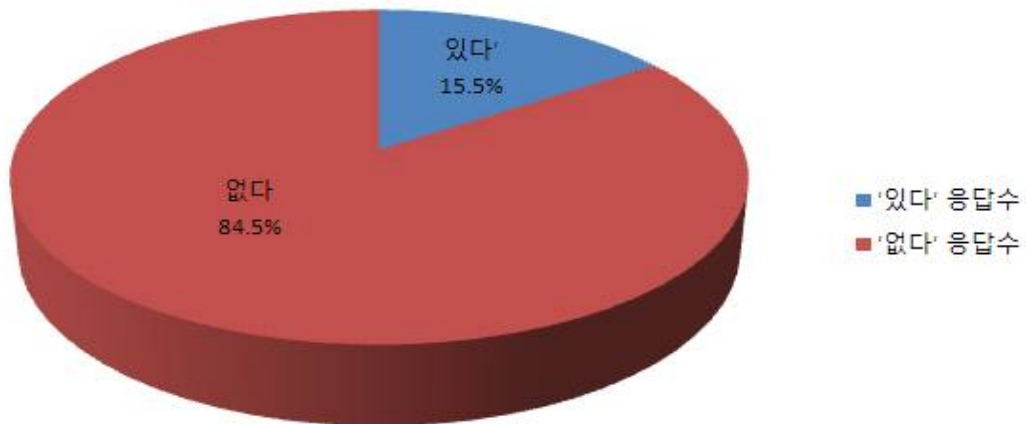
16) 독서 프로그램 참여 경험

① 독서프로그램 참여 경험

<표54> 독서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있다	없다	합계
응답수	68	372	440
비율	15.5%	84.5%	100.0%

<그림20> 독서 프로그램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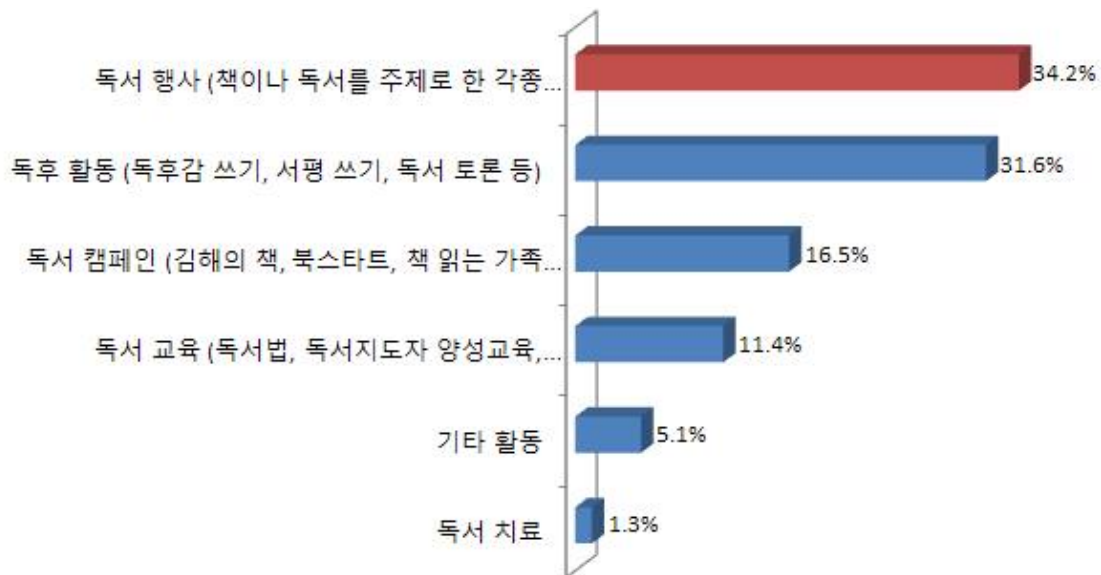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독후감, 쓰기, 독서토론, 저자 강연회, 독서교육, 독서치료 등 독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5.5%임.
-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의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은 2.9%로, 김해시민의 독서 프로그램 참여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음.

② 참여한 독서 프로그램 유형

<표55> 참여한 독서 프로그램 유형

항목	응답수	비율
독서 행사 (독후감 쓰기, 서평 쓰기, 독서 토론 등)	27	34.2%
독후 활동 (김해의 책, 북스타트, 책 읽는 가족 등)	25	31.6%
독서 캠페인 (책이나 독서를 주제로 한 각종 전시회, 세미나, 강연회 등)	13	16.5%
독서 교육 (독서법, 독서지도자 양성교육, 독서논술 등의 교육 강좌)	9	11.4%
기타 활동	4	5.1%
독서 치료	1	1.3%
총계	79	100.0%

<그림21> 참여한 독서 프로그램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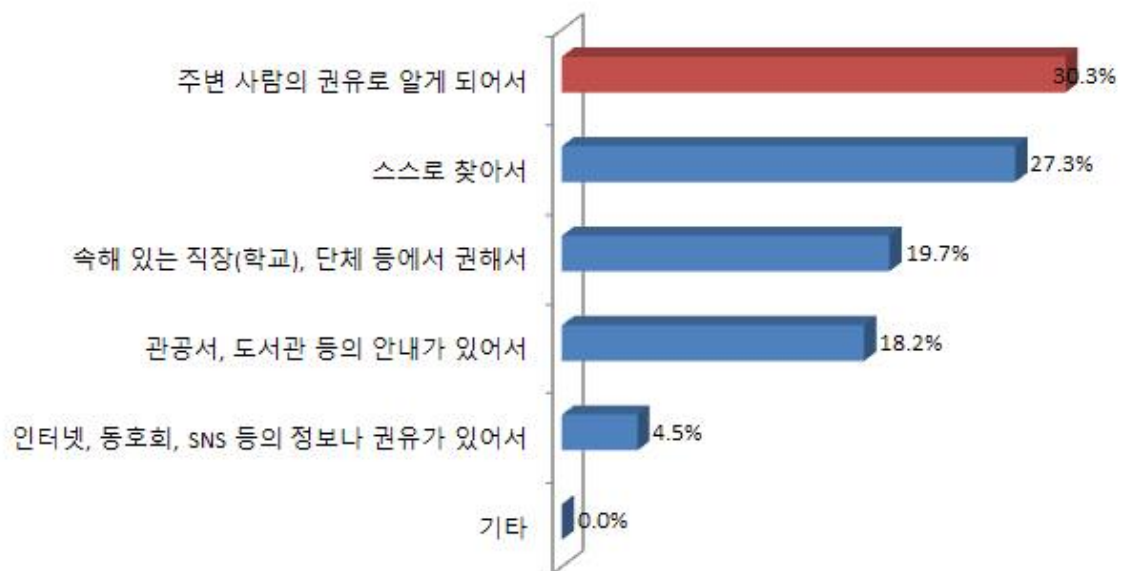
- 참여한 프로그램 유형을 묻는 질문에 ‘독서 행사’ 34.2%, ‘독후 활동’ 31.6% 순으로 응답함.
- <2015년 국민독서실태 조사>에서는 ‘독서 행사’ 41.4%, ‘독후 활동’ 31.6%의 비율이 가장 높고 ‘독서 치료’가 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③ 독서 프로그램 참여 계기

<표56> 독서 프로그램 참여 계기

항목	응답수	비율
주변 사람의 권유로 알게 되어서	20	30.3%
스스로 찾아서	18	27.3%
속해 있는 직장(학교), 단체 등에서 권해서	13	19.7%
관공서, 도서관 등의 안내가 있어서	12	18.2%
인터넷, 동호회, SNS 등의 정보나 권유가 있어서	3	4.5%
기타	0	0.0%
총계	65	100.0%

<그림22> 독서 프로그램 참여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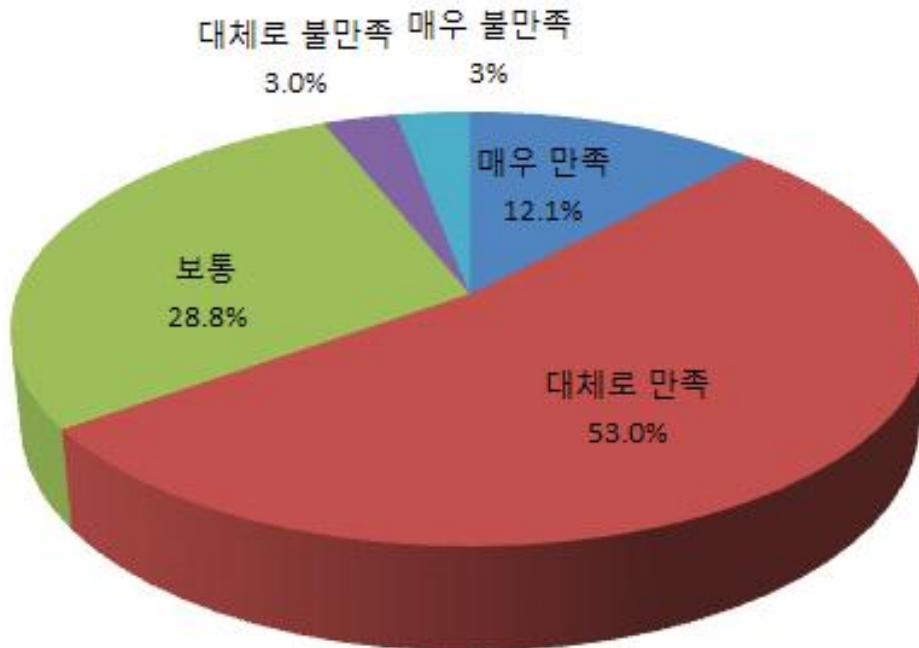
- 독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참여 계기를 묻는 질문에 ‘주변 사람의 권유로 알게 되어서’ 30.3%, ‘스스로 찾아서’ 27.3%, ‘속해 있는 직장(학교), 단체 등에서 권해서’ 19.7% 순으로 나타남.

④ 독서 프로그램 만족도

<표57> 독서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응답수	8	35	19	2	2	66
비율	12.1%	53.0%	28.8%	3.0%	3.0%	100.0%

<그림23> 독서 프로그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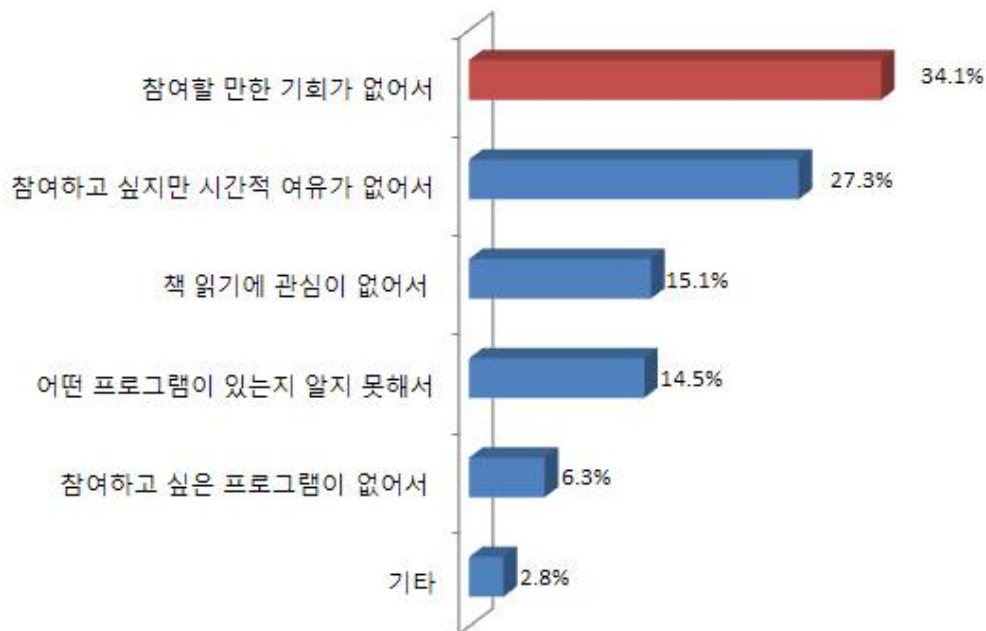
- 독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65.1%, ‘불만족’(‘대체로 불만족’+‘매우 불만족’) 6%로 독서 프로그램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⑤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표58>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항목	응답수	비율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120	34.1%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96	27.3%
책 읽기에 관심이 없어서	53	15.1%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51	14.5%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22	6.3%
기타	10	2.8%
총계	352	100.0%

<그림24>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34.1%가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로 응답하였음. 이어서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7.3%, ‘책 읽기에 관심이 없어서’ 15.1% 순으로 나타남.
- 시민들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야간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볼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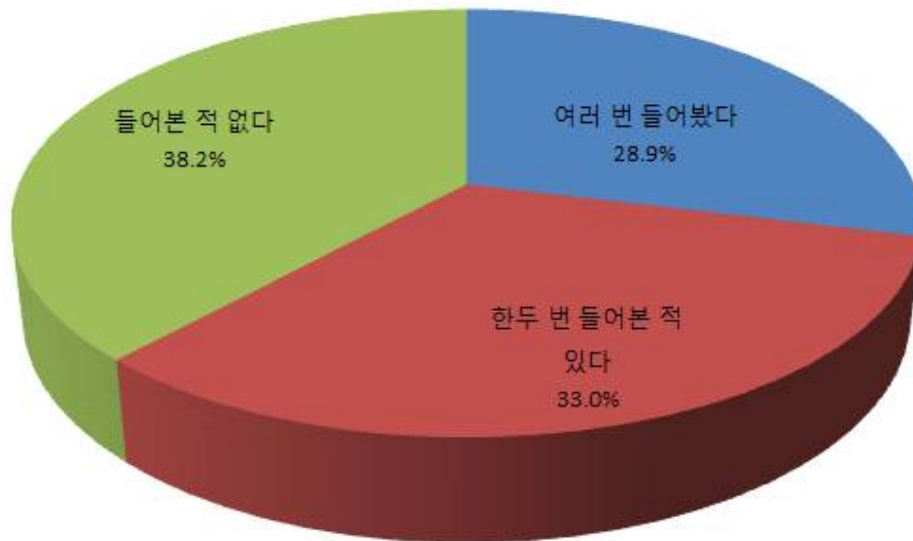
17)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에 대한 평가

①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 인지도 조사

<표59>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 인지도 조사

	여러 번 들어봤다	한두 번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없다	합계
응답수	127	145	168	440
비율	28.9%	33.0%	38.2%	100.0%

<그림25>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 인지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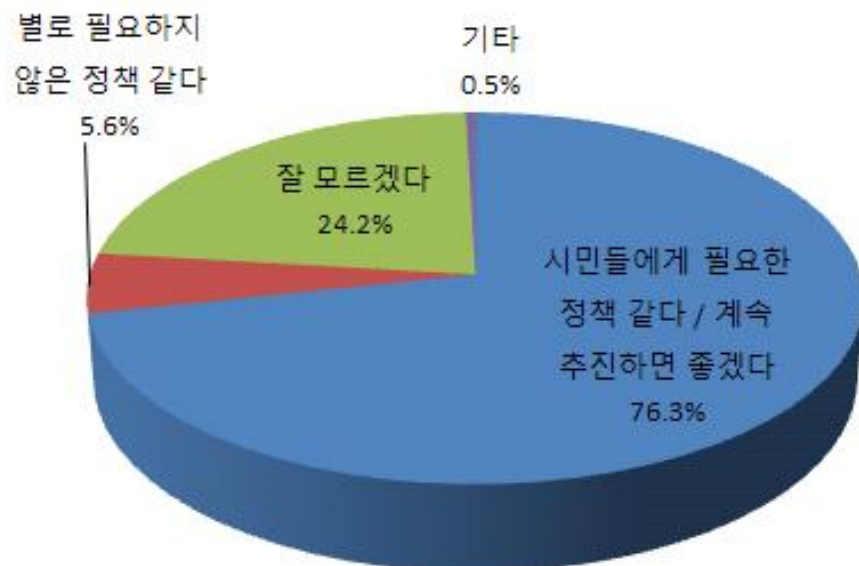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가운데 61.9%의 시민들이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 슬로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여러 번 들어봤다’는 응답이 28.9%에 불과하여 ‘책읽는도시’ 브랜드가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책읽는도시’ 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의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 지지도 조사

<표60>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 지지도

항목	응답수	비율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같다 / 계속 추진하면 좋겠다	316	76.3%
별로 필요하지 않은 정책 같다	23	5.6%
잘 모르겠다	100	24.2%
기타	2	0.5%
총계	441	100.0%

<그림26>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 지지도



- 전체 응답자의 76.3%가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6%로, 정책의 지지도는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잘 모르겠다’의 응답은 24.2%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③ “책읽는도시 김해”를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

<표61> “책읽는도시 김해”를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

분야	제안 내용
도서관	○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매점,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추가” “회원증 발급처 확대” “어린이실 환경개선” “삼정동 내 대형도서관 건립”
	○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확대 “도서관 버스 운영” “공공장소 책 비치” “DVD 대출 확대” “도서관 간의 연계대출” “월별 추천도서 서비스” “회원 가입절차 간소화”
	○ 도서관 장서 확충 “각 분야의 전문서적 비치” “대학교 전공서적 비치” “라이트노벨 등 장르의 다양화” “자격증 및 취업지원 도서 비치” “e-book 콘텐츠 확충”
	○ 도서관 근무자 역량 강화 “사서들의 전문성 강화” “경직된 운영방식 및 사무적인 태도 개선” “선진국도서관 답사를 통한 근무자의 역량 강화”
	○ 도서관 이용시간 연장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유아 및 학생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 “성인 및 직장인 프로그램 확대”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
	○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이용에 대한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필요”
	○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시설 지원” “문화프로그램 지원” “아파트작은도서관 확대”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확대” “실무자 및 운영자 교육을 통해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독서 문화	○ 신중한 김해의 책 선정 ○ 학교 일과시간 중 독서시간 제공 ○ 형식적인 홍보 자제 ○ 독서코칭 전문가를 통한 독서상담 ○ 북 페스티벌 개최 및 책 베풀시장 운영 ○ 도서 무료 배포 ○ 성과 위주가 아닌 과정 위주(독서 후 토론이나 느낌 나누기)의 프로그램 지원 ○ 동네 거점 문화시설 배정 및 지원 ○ 대학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 ○ 연령층별 독서퀴즈 대회 활성화 ○ 유명인사들의 도서추천 홍보
----------	---

3. 학생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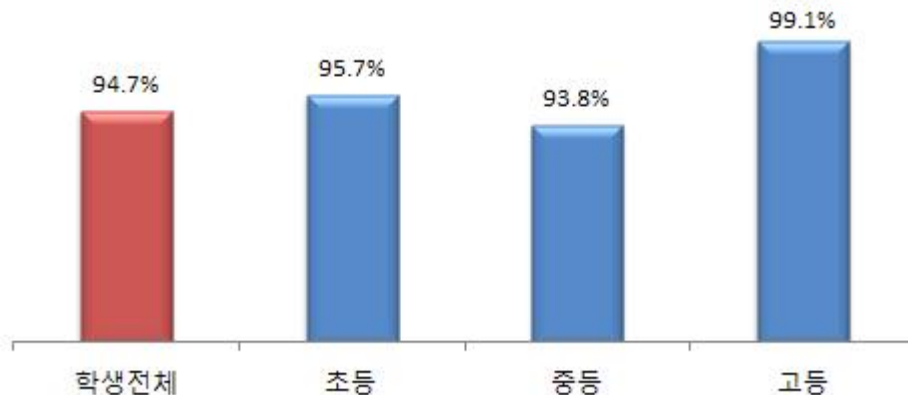
1) 독서량 및 독서율

① 독서량 및 독서율

<표62> 학생 독서량 및 독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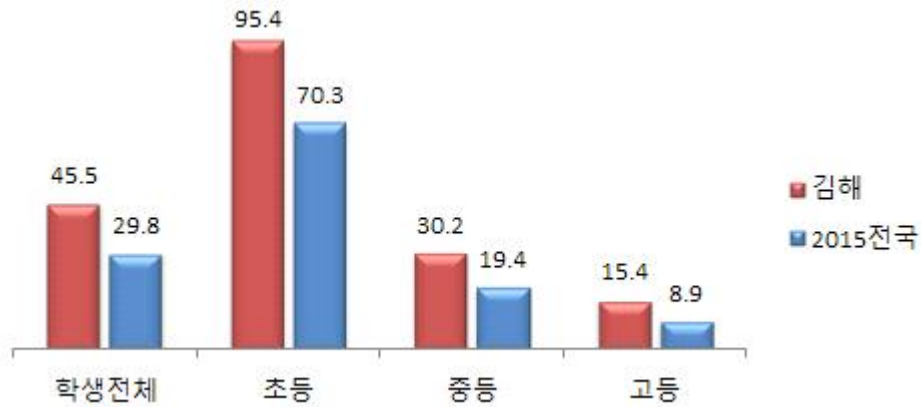
구분		학생전체	초등	중등	고등
2017 김해시	독서량	45.5권	95.4권	30.2권	15.4권
	독서율	94.7%	95.7%	93.8%	99.1%
2015 국민 독서 실태 조사	독서량	29.8권	70.3권	19.4권	8.9권
	독서율	94.9%	99.4%	95.0%	91.3%

<그림27> 학교급별 독서율



- 지난 1년간 김해시 학생 1인당 독서율은 94.7%, 독서량은 45.5권으로 나타났다.
- 독서율은 고등학생이 99.1%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 95.7%, 중학생이 93.8%임.
-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이 99.4%로 가장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김해시는 고등학생 독서율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임.

<그림28> 학생 독서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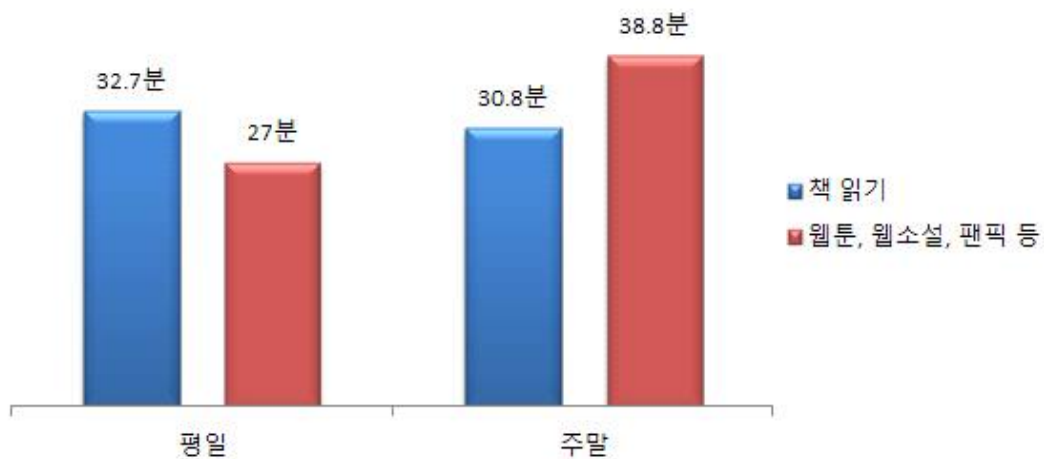
- 김해시 학생 1인당 독서량은 45.5권으로,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의 전국 평균 독서량 29.8권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급별로 살펴봐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전국 평균보다 많음.
- 김해시 조사결과와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모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② 하루 평균 독서시간

<표63> 하루 평균 독서시간 및 전자콘텐츠 읽기시간 비교

	독서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만화 제외)	전자매체 (웹툰, 웹소설, 팬픽 등)
평일	32.7분	27.0분
주말	30.8분	38.8분

<그림29> 하루 평균 독서시간 및 전자콘텐츠 읽기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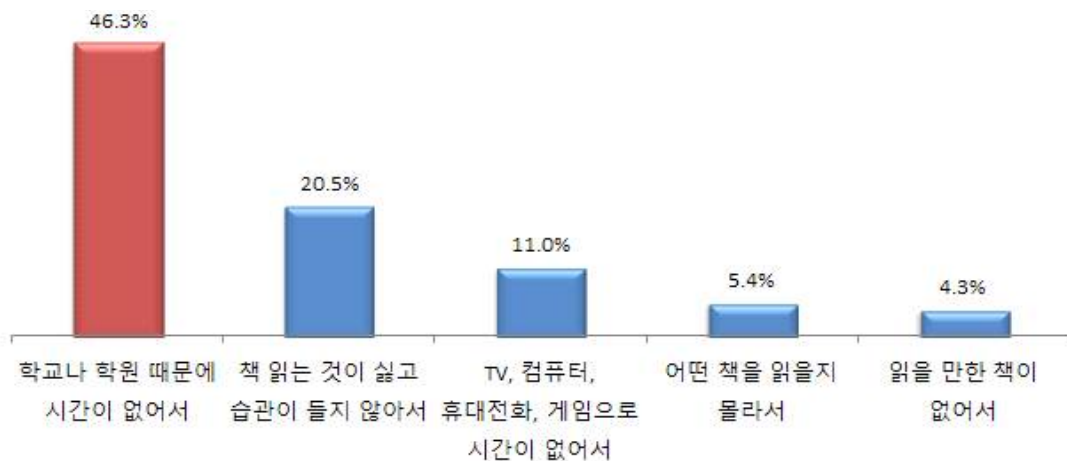
- 김해시 학생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평일 32.7분, 주말 30.8분으로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의 평일 45.0분, 주말 58.9분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웹툰, 웹소설, 팬픽 등 전자매체를 통한 읽기시간은 평일 27분, 주말 38.8분으로, 주말에는 독서시간은 줄고 전자콘텐츠 읽기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독서 장애 요인

<표64> 독서 장애 요인

항목	응답수	비율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303	46.3%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134	20.5%
TV, 컴퓨터, 휴대전화, 게임으로 시간이 없어서	72	11.0%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35	5.4%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28	4.3%
책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18	2.8%
기타	17	2.6%
부모님, 선생님이 억지로 읽으라고 해서	14	2.1%
부모님, 선생님이 독서 대신 공부하길 원하셔서	10	1.5%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8	1.2%
학교도서관 등 책을 빌릴 곳이 없어서	5	0.8%
책을 사볼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5	0.8%
집안일을 도와야 해서	5	0.8%
합계	654	100.0%

<그림30> 독서 장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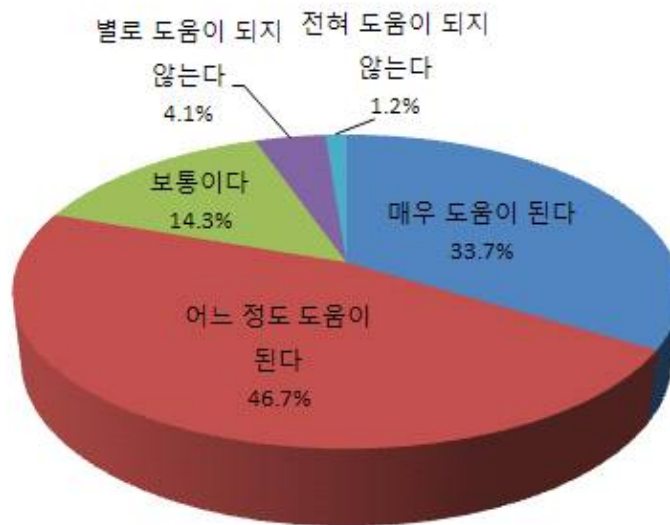
- 독서 장애 요인을 묻는 질문에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를 선택한 응답자가 46.3%로 가장 많고,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20.5%, ‘TV, 컴퓨터, 휴대전화, 게임으로 시간이 없어서’ 11% 순으로 나타남.

3) 독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표65> 독서에 대한 인식

	매우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계
응답수	222	307	94	27	8	658
비율	33.7%	46.7%	14.3%	4.1%	1.2%	100.0%

<그림31> 독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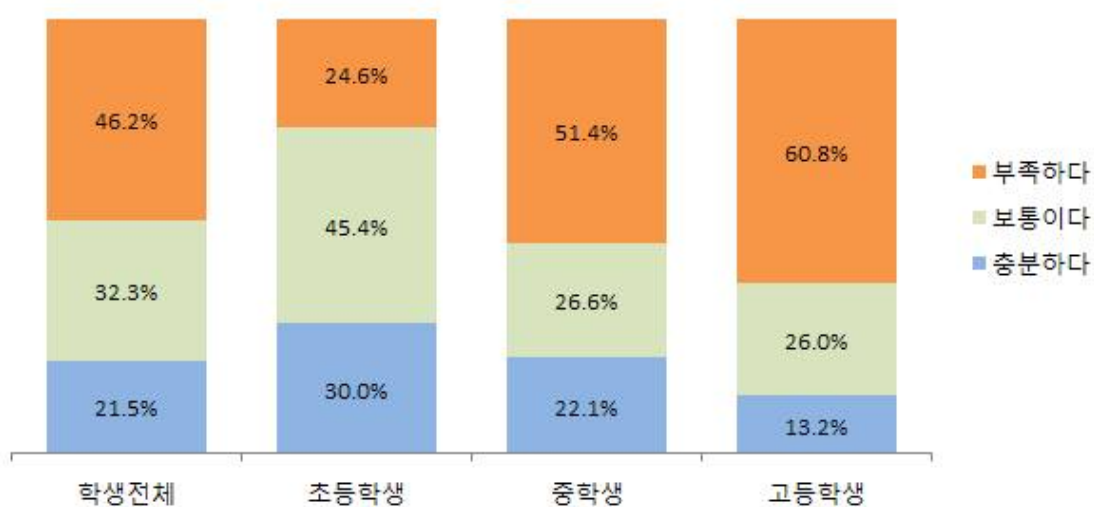
- 독서의 유용성을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0.4%,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의 비율은 5.3%임.
- 따라서 김해시의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는 학생의 75.3%가 독서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4) 본인의 독서량에 대한 평가

<표66> 독서량 인식 정도

	매우 충분 하다	충분 한 편이다	보통이다	부 족 한 편이다	매우 부족 한 편이다	합계
합계	49	92	212	202	101	656
초등학생	24	38	94	42	9	207
중학생	19	30	59	77	37	222
고등학생	6	24	59	83	55	227

<그림32> 독서량 인식 정도



- 본인의 독서량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1.5%가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충분한 편이다’)라 응답했지만, ‘부족하다’(‘부족한 편이다’+‘매우 부족한 편이다’)는 응답은 46.2%에 달함.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독서량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줄고,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아짐.
-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는 ‘충분하다’ 20.3%, ‘부족하다’ 51.9%로, 김해시 조사 결과와 비슷함.

5) 독서의 목적

<표67> 독서의 목적

항목	응답수	비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293	44.5%
책 읽는 것이 즐거워서	94	14.3%
학교 공부나 숙제에 도움이 되므로	57	8.7%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	54	8.2%
진학이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므로	43	6.5%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39	5.9%
도서관수업 시간에 과제 해결을 위해서	28	4.3%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28	4.3%
기타	19	2.9%
친구들과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	3	0.5%
합계	658	100.0%

<그림33> 독서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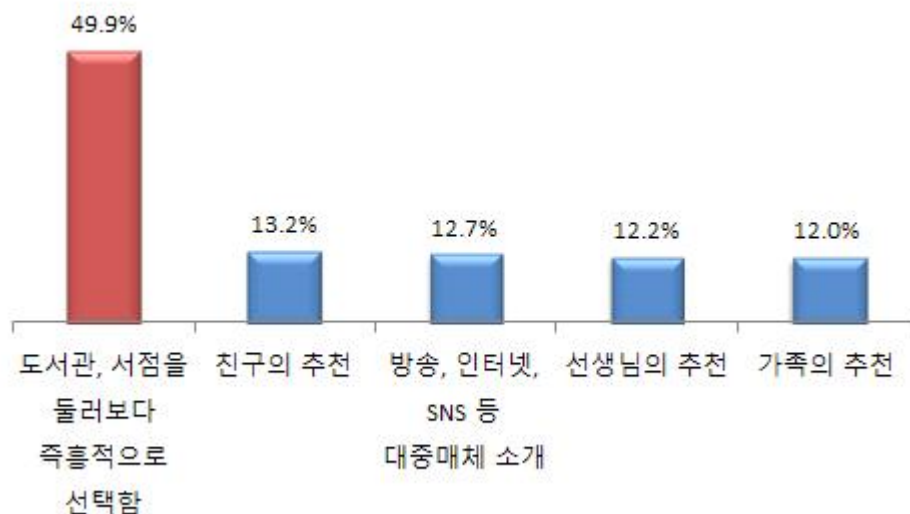
- 독서의 주된 목적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44.5%로 가장 높고, ‘책 읽는 것이 즐거워서’ 14.3%, ‘학교 공부나 숙제에 도움이 되므로’ 8.7%,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 8.2% 순으로 나타남.
-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23.1%, ‘책 읽는 것이 즐거워서’ 15.7%,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 15.3% 순으로 지식 정보의 습득 목적이 가장 큼.

6) 책을 선택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정보

<그림34> 책을 선택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정보

항목	응답수	비율
도서관, 서점을 둘러보다 즉흥적으로 선택함	287	49.9%
친구의 추천	76	13.2%
방송, 인터넷, SNS 등 대중매체 소개	73	12.7%
선생님의 추천	70	12.2%
가족의 추천	69	12.0%

<그림35> 책을 선택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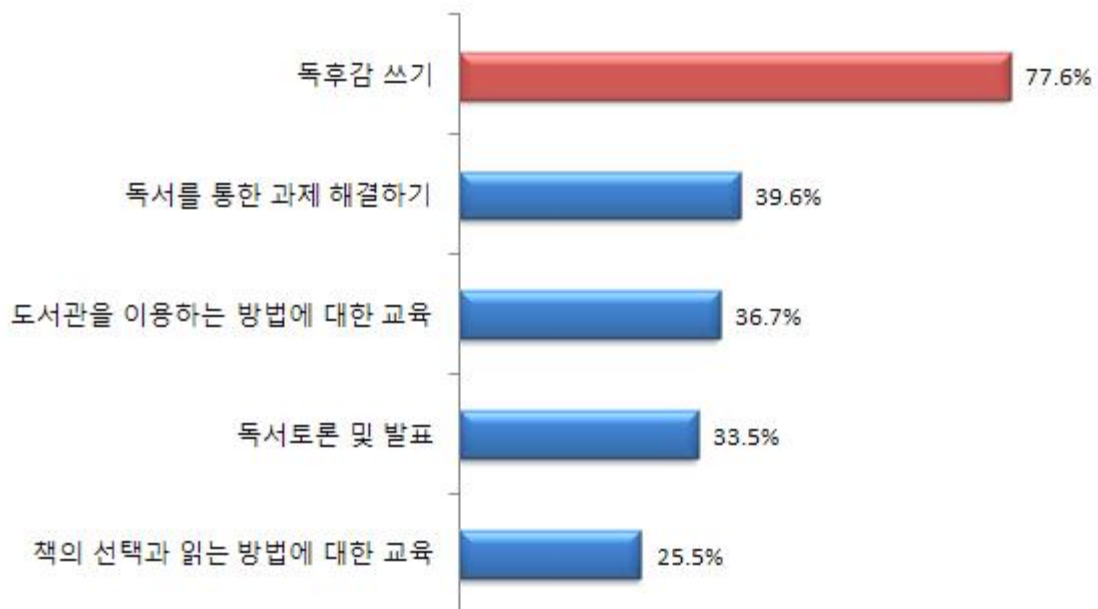
- 책을 선택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정보로는 ‘도서관, 서점을 둘러보다 즉흥적으로 선택함’이 49.9%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의 추천’이 13.2%, ‘방송, 인터넷, SNS 등 대중매체 소개’ 12.7% 순으로 나타남.
-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점·도서관에서 직접 살펴보고’가 36.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가족·선생님·친구의 추천’ 18.9%, ‘베스트셀러 목록’ 10.3% 순으로 나타남.

7) 학교에서의 독서지도

<표68> 학교에서의 독서지도

항목	응답수	비율
책의 선택과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	169	22.5%
독후감 쓰기	514	77.6%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243	36.7%
독서토론 및 발표	222	33.5%
독서를 통한 과제 해결하기	262	39.6%
표절(베끼기) 예방 지도	116	17.5%
독서지도가 전혀 없었다	59	8.9%
기타	22	3.3%

<그림36> 학교에서의 독서지도



- 학생들에게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은 독서지도를 묻는 질문(복수선택)에 대한 응답으로 ‘독후감 쓰기’(77.6%)가 가장 많음. 다음으로 ‘독서를 통한 과제 해결하기’ 39.6%,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36.7% 순임. ‘독서지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응답도 8.9%에 달함.

8) 선호하는 독서교육 방법

<표69> 선호하는 독서교육방법

(단위: 점)

항목	초등 학생	중·고등학 생
A. 책을 읽어주거나, 읽다가 궁금한 걸 물어볼 사람이 있다	3.2	3.1
B. 내 수준에 맞거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소개 받는다	3.7	3.8
C.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 읽을 만한 책이 더 많아진다	3.7	3.7
D. 책읽기를 수행평가나 성적에 반영한다	1.4	2.6
E. 친구들과 책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마련된다	3.3	3.1
F. 흥미로운 체험활동을 한다	3.3	3.2
G. 책을 고르고 읽는 방법, 책 읽고 글쓰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3.1	3.2
H. 독서 관련 대회를 한다	3.1	3
I. 학교나 가정에서 억지로 책을 읽게 하지 않는다	3.3	3.5

5: 매우 필요함 4: 필요함 3: 보통 2: 필요없음 1: 전혀 필요없음

- 김해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독서교육방법은 ‘내 수준에 맞거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소개 받는다’이고, 두 번째로 선호하는 방법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 읽을 만한 책이 더 많아진다’임.
- 따라서 개인별 맞춤서비스와, 양질의 장서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선호도가 가장 낮은 독서교육 방법은 ‘책읽기를 수행평가나 성적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나타남.
- 교육현장에서 자주 실시하고 있는 ‘독서 관련 대회’에 대한 선호도는 초등학생 3.1, 중·고등학생 3.0으로, 두 번째로 선호도가 낮음.

9) 학교도서관 이용률

① 학교도서관 이용률

<표70> 지난 1년간 학교도서관 이용 경험

	있다	없다	합계	이용률
초등학생	192	13	205	93.7%
중학생	192	27	219	87.7%
고등학생	200	23	223	89.7%
응답수	584	63	647	90.3%

<그림37> 지난 1년간 학교도서관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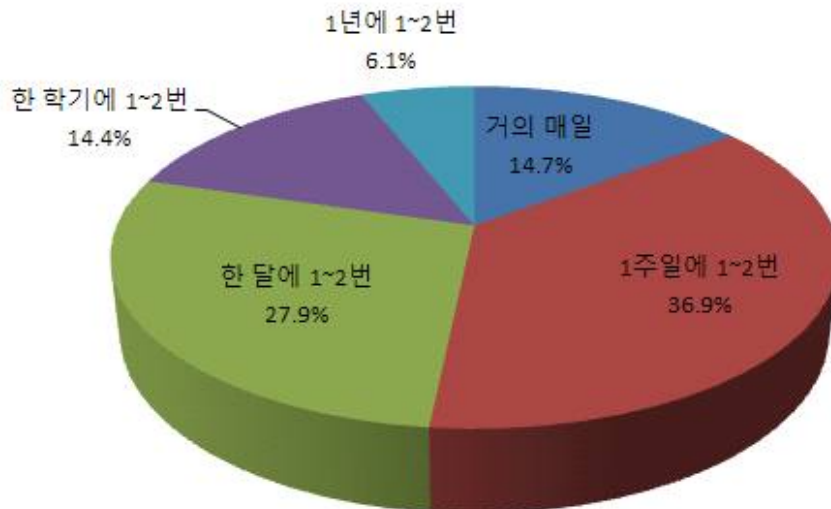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학교도서관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90.3%가 ‘있다’고 답함. 이는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의 84.2%보다 6.1% 높은 수치임.
-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초등학생이 93.7%로 가장 높고, 중학생이 87.7%로 가장 낮음.

②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

<표71> 지난 1년간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

항목	응답수	비율
거의 매일	85	14.7%
1주일에 1~2번	213	36.9%
한 달에 1~2번	161	27.9%
한 학기에 1~2번	83	14.4%
1년에 1~2번	35	6.1%
합계	577	100.0%

<그림38> 지난 1년간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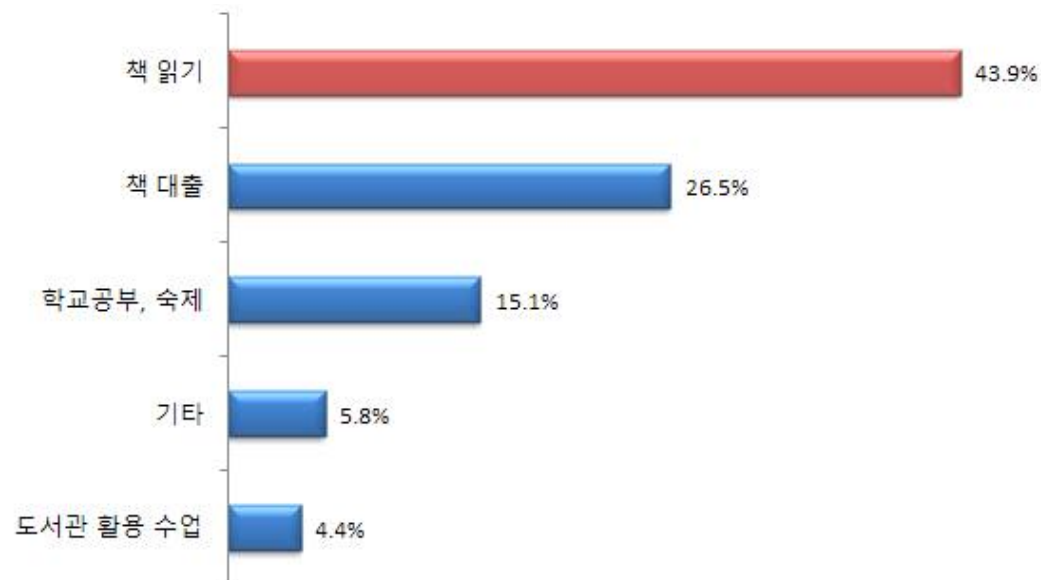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577명)의 14.7%는 ‘거의 매일’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6.1%의 학생은 ‘1년에 1~2번’ 이용하고 있음.
- 주 1~2회 이상 이용하는 습관적 이용자(‘거의 매일’+‘1주일에 1~2번’)의 비율은 51.6%로 나타남.
-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이용학생의 12.3%가 ‘거의 매일’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고, 47.2%가 주 1~2회 이상 이용하는 습관적 이용자인 것으로 볼 때, 김해시의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수는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임.

③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

<표72>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

항목	응답수	비율
학교공부, 숙제	86	15.1%
책 대출	151	26.5%
책 읽기	250	43.9%
인터넷 이용	4	0.7%
DVD나 영화 감상	4	0.7%
독서 프로그램 참여	15	2.6%
도서관 활용 수업	25	4.4%
방과 후 교실	2	0.4%
기타	33	5.8%
합계	570	100.0%

<그림39>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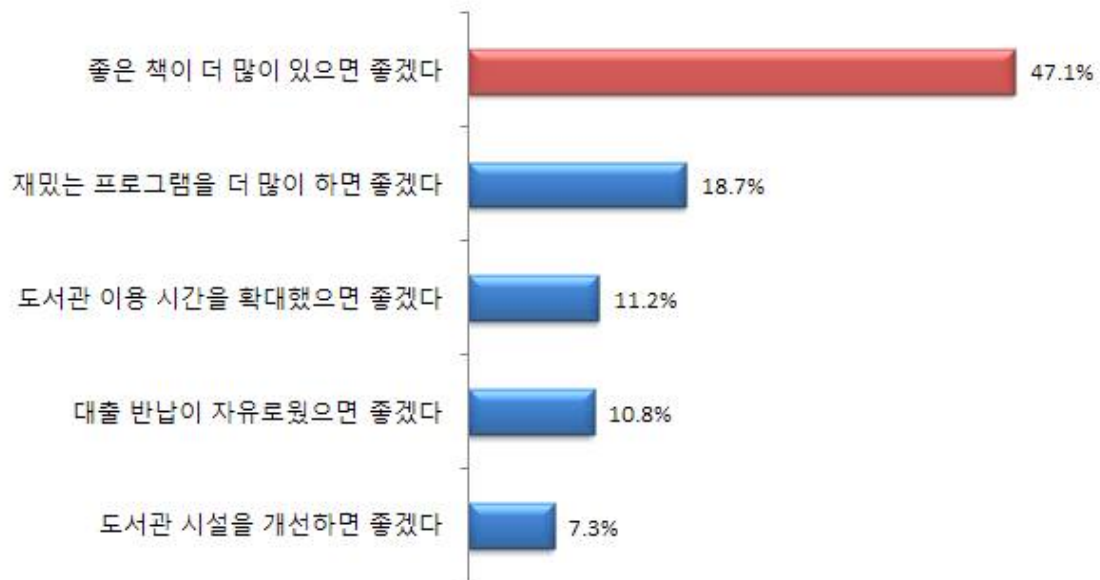
-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을 묻는 질문에 ‘책 읽기’가 43.9%로 가장 많았고, ‘책 대출’ 26.5%, ‘학교공부, 숙제’ 15.1%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목적 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책 대출’ 49.1%, ‘책 읽기’ 26.0%로 독서활동 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남.

④ 학교도서관에 바라는 점

<표73> 학교도서관에 바라는 점

항목	응답수	비율
좋은 책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302	47.1%
재밌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면 좋겠다	120	18.7%
도서관 이용 시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72	11.2%
대출 반납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69	10.8%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면 좋겠다	47	7.3%
기타	17	2.7%
사서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14	2.2%
합계	641	100.0%

<그림40> 학교도서관에 바라는 점



- 학교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좋은 책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가 47.1%로 가장 높아 장서 확충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재밌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면 좋겠다’ 18.7%, ‘도서관 이용 시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11.2%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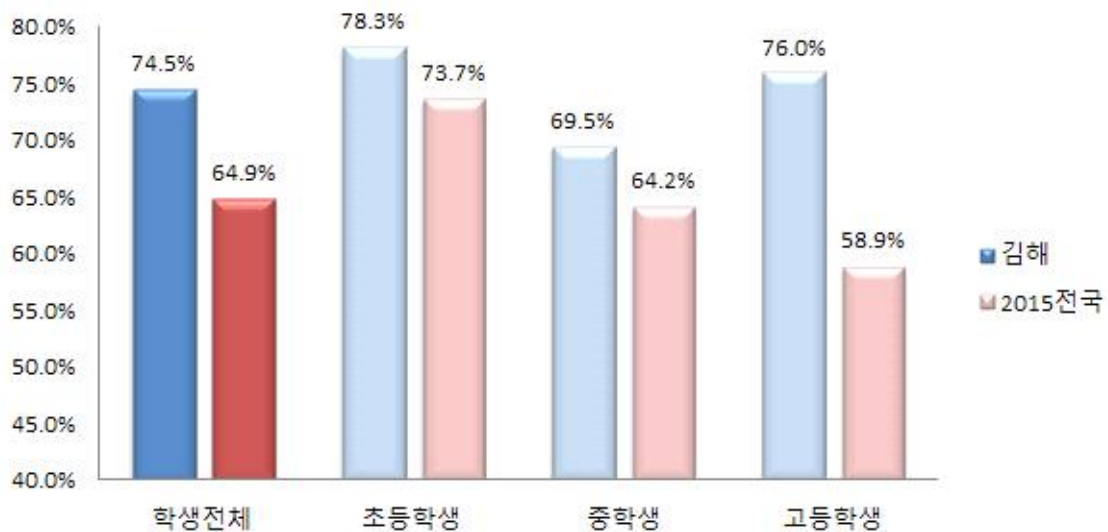
10) 공공도서관 이용률

①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표74>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김해		2015전국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학생전체	74.5%	25.5%	64.9%	35.1%
초등학생	78.3%	21.7%	73.7%	26.3%
중학생	69.5%	30.5%	64.2%	35.8%
고등학생	76.0%	24.0%	58.9%	41.1%

<그림41>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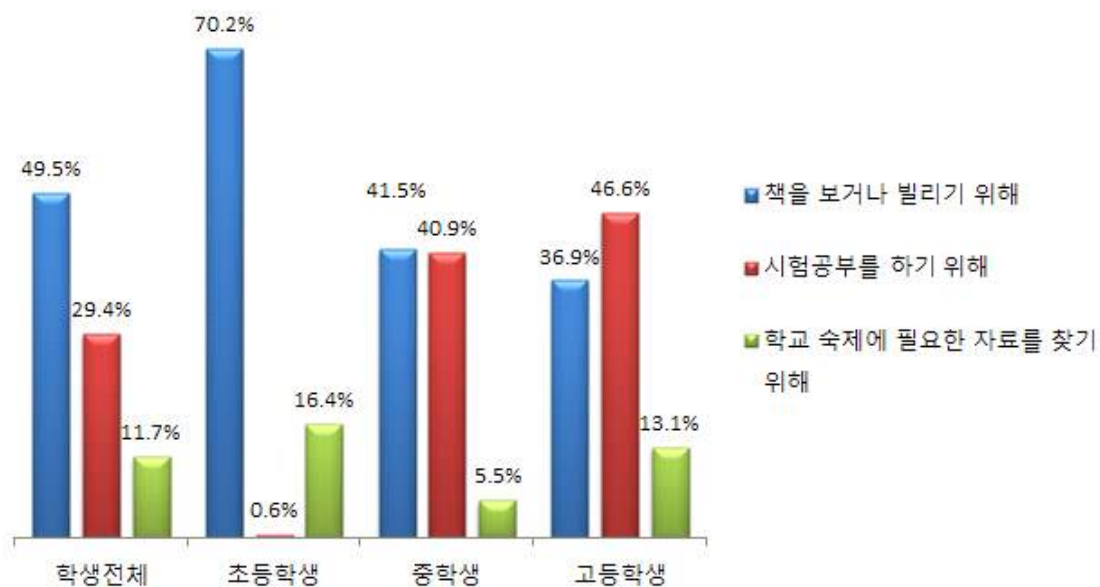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학생의 74.5%가 ‘있다’고 답함.
-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는 64.9%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적 있다고 답하여 김해시 학생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에 반해, 김해시는 고등학생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이 특징임.

②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표75>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항목	학생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책을 보거나 빌리기 위해	49.5%	70.2%	41.5%	36.9%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29.4%	0.6%	40.9%	46.6%
학교 숙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11.7%	16.4%	5.5%	13.1%

<그림42>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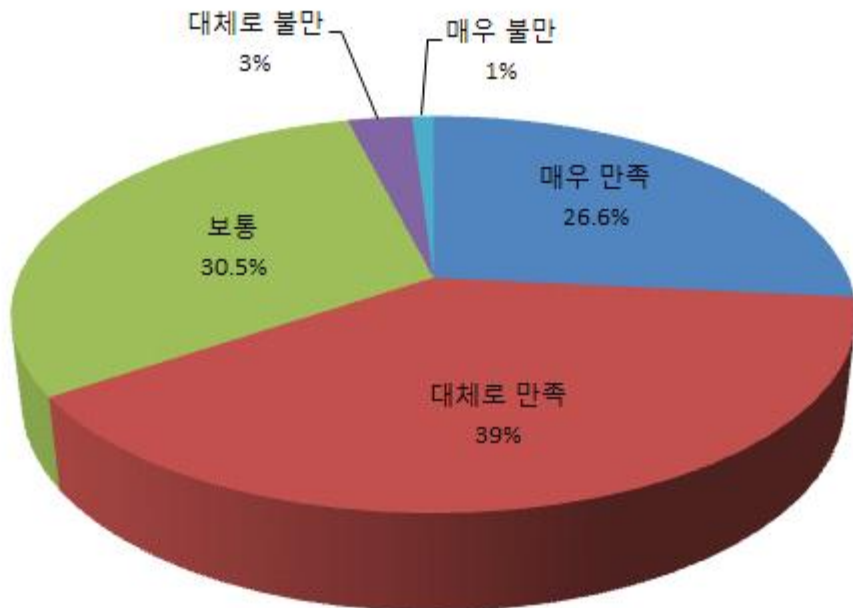
-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을 묻는 질문에 ‘책을 보거나 빌리기 위해’가 49.5%로 가장 많았고,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29.4%, ‘학교 숙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11.7% 순으로 응답함.
- 초등학생은 독서활동 목적이 높은 것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독서 목적은 낮아지고 학습 목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는 ‘책을 보거나 빌리기 위해’ 54.0%,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29.7%, ‘학교 숙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9.7% 순으로 응답하여 전국 학생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이 김해시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음.

③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표76>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합계
응답수	135	198	155	15	5	508
비율	26.6%	39.0%	30.5%	3.0%	1.0%	100.0%

<그림43>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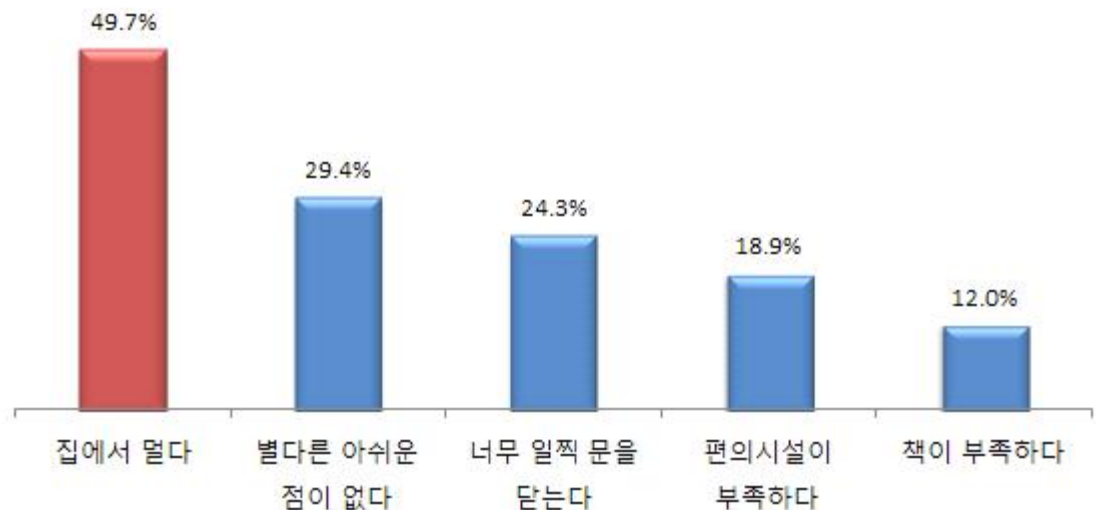
-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26.6%, ‘대체로 만족’ 26.6%, ‘보통’ 30.5%, ‘대체로 불만’ 3%, ‘매우 불만’ 1% 순으로 응답함.
- ‘만족하다’(‘매우 만족’+‘대체로 만족’)의 비율은 65.6%, ‘불만족하다’(‘대체로 불만’+‘매우 불만’)의 비율은 4%로, 학생들의 공공도서관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보임.

④ 공공도서관에 아쉬운 점

<표77> 공공도서관에 아쉬운 점

항목	응답수	비율
집에서 멀다	245	49.7%
별다른 아쉬운 점이 없다	145	29.4%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	120	24.3%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93	18.9%
책이 부족하다	59	12.0%
유익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43	8.7%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38	7.7%
이용 방법이 까다롭다	36	7.3%
기타	32	6.5%
시설이 낙후됐다	29	5.9%
합계	296	100.0%

<그림44> 공공도서관에 아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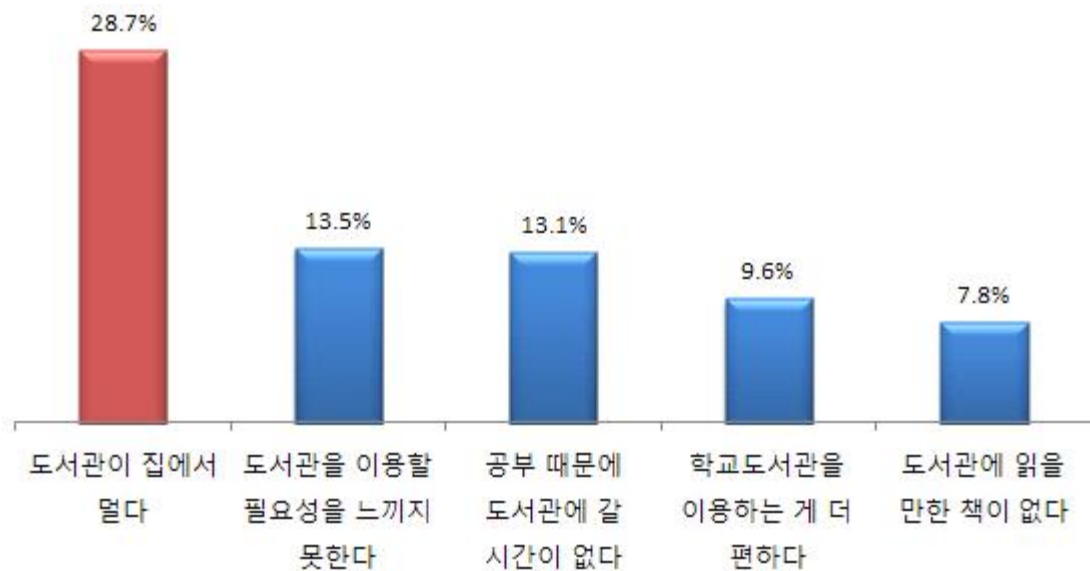
- 공공도서관 이용자에게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집에서 멀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아 여전히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별다른 아쉬운 점이 없다’ 29.4%,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 24.3%,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18.2% 순으로 답함.

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표78>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항목	응답률
도서관이 집에서 멀다	28.7%
도서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3.5%
공부 때문에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다	13.1%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	9.6%
도서관에 읽을 만한 책이 없다	7.8%
원하는 책을 찾기가 어렵다	6.0%
책이 낡고 지저분하다	2.8%
읽고 싶은 책은 사서 읽는다	2.5%
앉을 자리가 없다	1.4%
도서관이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	1.4%
도서관 이용 절차가 까다롭다	1.4%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다	1.4%
독서상담, 안내를 해주는 사서가 없다	0.4%

<그림45>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공공도서관 비이용자에게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도서관이 집에서 멀다’라는 응답이 28.7%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도서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3.5%, ‘공부 때문에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다’ 13.1% 순으로 응답함.

11)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

①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

<표79>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

	‘있다’ 응답수	‘없다’ 응답수	합계
응답수	131	501	632
비율	20.7%	79.3%	100.0%

<그림46>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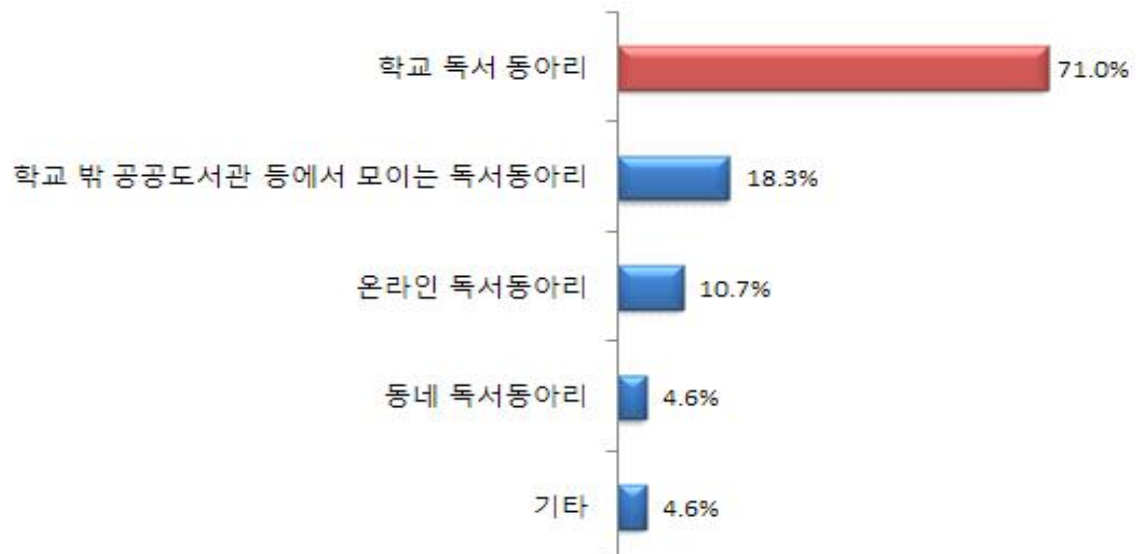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학생은 20.7%임.
-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 학생들의 독서동아리 참여율은 12.8%로, 김해시 학생들의 독서동아리 참여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② 참여한 독서동아리 유형

<표80> 참여한 독서동아리 유형

항목	응답수	비율
학교 독서동아리	93	71.0%
학교 밖 공공도서관 등에서 모이는 독서동아리	24	18.3%
온라인 독서동아리	14	10.7%
동네 독서동아리	6	4.6%
기타	6	4.6%

<그림47> 참여한 독서동아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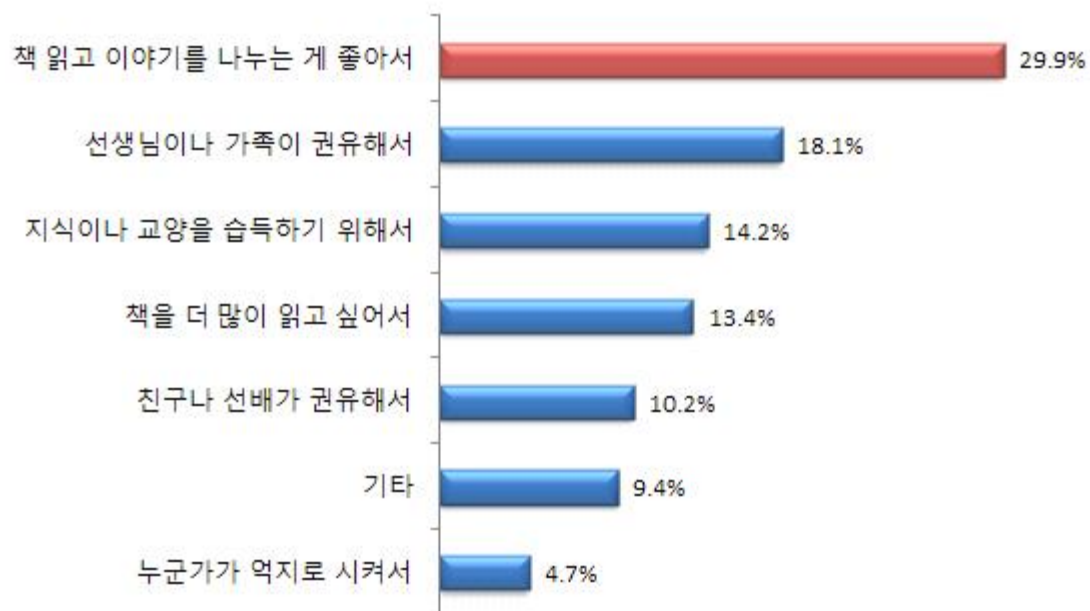
- 참여한 독서동아리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학교 독서 동아리’ 71.0%, ‘학교 밖 공공도서관 등에서 모이는 독서동아리’ 18.3% 순으로 응답함.

③ 독서동아리 참여 계기

<표81> 독서동아리 참여 계기

항목	응답수	비율
책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서	38	29.9%
선생님이나 가족이 권유해서	23	18.1%
지식이나 교양을 습득하기 위해서	18	14.2%
책을 더 많이 읽고 싶어서	17	13.4%
친구나 선배가 권유해서	13	10.2%
기타	12	9.4%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6	4.7%
합계	127	100.0%

<그림48> 독서동아리 참여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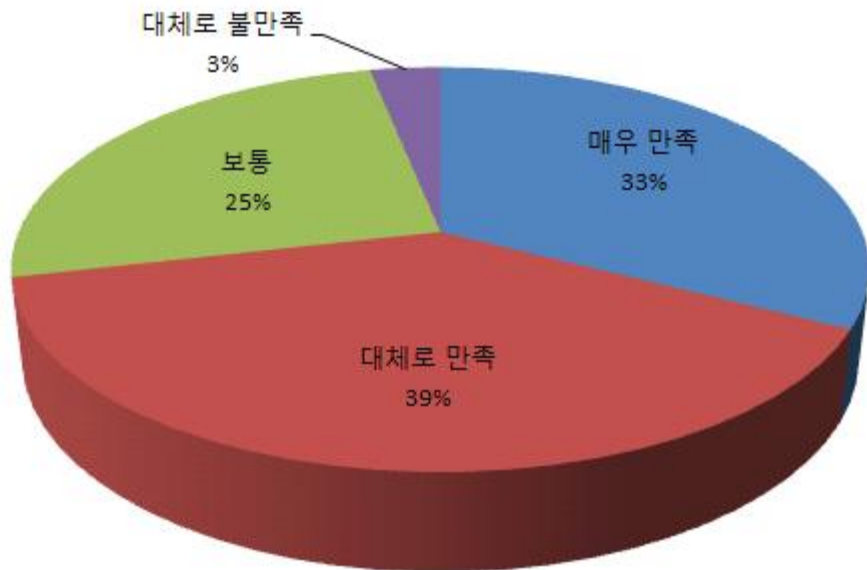
- 독서동아리 참여 계기를 묻는 질문에 ‘책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서’ 29.9%, ‘선생님이나 가족이 권유해서’ 18.1%, ‘지식이나 교양을 습득하기 위해서’ 14.2% 순으로 나타남.

④ 독서동아리 만족도

<표82> 독서동아리 만족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응답수	41	49	32	4	0	126
비율	32.5%	38.9%	25.4%	3.2%	0.0%	100.0%

<그림49> 독서동아리 만족도



- 독서동아리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71.4%, ‘대체로 불만족’) 3.2%이며, ‘매우 불만족’이라 답한 응답자는 없었음.

⑤ 독서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표83> 독서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항목	응답수	비율
독서에 관심이 없어서	167	34.6%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82	17.0%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가 없어서	70	14.5%
어떤 독서동아리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81	16.8%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47	9.7%
기타	36	7.5%
합계	483	100.0%

<그림50> 독서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학생 응답자(632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독서동아리 비참여자들(501명)의 경우, '독서에 관심이 없어서'가 34.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17%, '어떤 독서동아리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16.8% 순으로 나타남.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 응답자 중 독서량, 독서율, 공공도서관 이용률 등 독서지표가 낮은 계층은 고령층과 남성임. 이들을 위한 독서진흥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김해시 성인 독서량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높음. 이는 공공도서관 이용이 독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함.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을 묻는 질문에서도 ‘독서 및 도서대출’이 감소하고 ‘공부·학습 목적’이 증가했음.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에게도 나타나는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 및 도서대출 목적은 감소, ‘공부’ 목적은 증가함. 이처럼 계속 도서관이 독서실화된다면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도서관이 도서관답게 이용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공도서관 이용목적, 공공도서관에 아쉬운 점 등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 볼 때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은 ‘자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
- 본인의 독서량에 대해 ‘부족하다’는 답변이 많고, 독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인정함. 그러나 독서를 취미로 여기기보다는 의무적인 일처럼 느끼는 경향도 있음. 따라서 비독자·간헐적 독자층을 대상으로 책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높은 편임. 그러나 여전히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작은도서관이 대부분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접근성이 낮다고 느끼는 것은 시민들이 작은도서관보다는 공공도서관을 더 선호하기 때문임. 작은도서관은 나름의 장점과 역할이 있지만, 시설과 기능,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을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음. 따라서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함.
-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 김해의 책 등 프로그램과 더불어 ‘책읽는도시’ 정책의 종합적인 홍보를 통해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며 정책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V. 책읽는도시 사업 내용과 평가

1. ‘책읽는도시 김해’ 사업의 진행 과정
2. ‘책읽는도시 김해’의 사업내용
3. 독서문화 진흥
4. 교육지원

V. ‘책읽는도시 김해’ 사업의 내용과 평가

1. ‘책읽는도시 김해’ 사업의 진행 과정

- 김해시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2007년 8월 협약을 체결하고 김해시의 독서·도서관 문화를 개선하고 성찰하는 시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 이를 위해 김해시는 10대 시책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같은 해 10월 김해시는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 선포식’을 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책읽는도시임을 선포하였음.

<표84> 책읽는도시를 만들기 위한 김해시 10대 시책사업(2007)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책읽는도시 김해” 종합계획 마련② 민관 합동의 위원회 구성③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④ 어린이전용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 신축⑤ 학교도서관 지원⑥ 공동도서관 발전 도모⑦ 대학도서관 발전 도모⑧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인 북스타트 실시⑨ 매년 정기적인 “책도시” 행사 공동개최⑩ 김해시와 책사회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
|---|

- 10대 시책의 첫 번째 과제인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2008년에 ‘책읽는도시 김해 발전계획 연구’를 수행함.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함.

<표85> '책읽는도시 김해'의 세부 과제 제시(2007)

1.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

- 시민 독서실태 지표 개선
-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김해시 대표 공공도서관 설치 추진
- 적정수의 작은도서관 개발과 운영지원
- 책읽기의 시민 생활화 추진
- 책읽는도시 김해'의 전국 모델화 추진

2. 독서교육환경 지원정책

- 초중고 학교도서관 개선
-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
- 독서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독서 '토론' 교육의 실시 지원

3. 기업정보서비스 지원정책

- 기업지원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
- 중소기업/특화산업 정보네트설치와 운영지원
- 가야문화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 도서관을 통한 창업/경영 카운슬링 제공

4. 주민 웰빙개발 지원정책

- 육아의 사회적 지원: 북스타트, 북스타트 플러스, 책날개
-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학습 기회 확대: 도서관 서비스 개선
- 학습지진아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도서관을 통한 취업 정보, 교육, 상담 지원
- 도서관의 복합문화 프로그램 강화: 문화복지 확대
-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문화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 도서관을 통한 주민 친밀공동체 구축과 사회참여 자극

5. 국제화 정책

-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World Book Capital) 지정 추구
- 고대 가야왕국의 '수도' 이미지 국제적 부각
- '신화의 고장' 이미지 제고
- 가야문화의 역사자료 집성, 관광자원/콘텐츠 집중 개발

2. ‘책읽는도시 김해’의 사업 내용

- 김해시는 ‘책읽는도시 김해’ 사업의 일환으로 제도 정비, 독서인프라 구축, 독서문화진흥사업 실시,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음.

1) 제도 정비

① 독서·도서관 전담부서 조직

- 김해시는 효율적·유기적 업무수행을 위해 당시 서로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하여 2007년 10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독서·도서관 전담부서인 도서관정책팀을 신설함. 이후 2010년에 기존 평생학습지원과 조직을 개편하여 도서관사업소를 조직함.

② ‘작은도서관 조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

- 김해시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년에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음. 조례에는 김해시의 책무, 「도서관법」을 상향하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을 명시하여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펼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독서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2012년에 제정하였음. 이는 김해시 독서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적을 규정하여 김해시가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제공하였음.

③ 민관 협의체 구성

- 김해시는 타 공공기관, 주민, 지역사회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범시민적 독서운동을 추진하고자 김해의책추진협의회, 청소년인문학읽기전국대회 운영위원회 등과 같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음.

2)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① 공공도서관 건립

- 김해시는 부족한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시립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해왔음. 2007년 당시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은 2개관이었는데, 이후 화정글샘도서관(2008년 개관), 진영한빛도서관(2009년 개관), 김해기적의도서관(2011년 개관)을 건립하였음. 2017년 현재 5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개관을 건립 중에 있음.

② 작은도서관 활성화

- 김해시는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보충하고 주민생활권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민간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였음. 김해시는 작은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와 자료구입비 등 1관당 매월 150~20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음. 김해시의 지원과 공동주택단지 개발 등에 의해 2007년 29개소였던 작은도서관은 2017년 현재 55개소로 증가하였음.
- 또한 매년 2회 이상 작은도서관 관계자 교육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③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

- 김해시는 시민들의 도서관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에 통합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함.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임. 이에 따라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료의 소장 도서관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단일 회원증으로 어느 도서관에서든 대출·반납할 수 있게 됨.

3) 독서문화 진흥

① 김해의 책

- 김해시는 시민이 함께 같은 책을 읽고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2007년부터 ‘김해의 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매년 ‘김해의 책’으로 일반도서와 어린이도서 각 1권씩 선정하고, 저자강연회, 토론회, 독서활동 사례 공

모 등을 진행함.

-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담아내고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도서관 사서, 학교 교사,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김해의책선정단과 김해의책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표86> 연도별 김해의 책 선정도서

연도	구분	서명	저자	출판사
2007	일반	제4의 제국	최인호	여백미디어
2008	대표도서	완득이	김려령	창비
	보조도서	우리 가족입니다	이혜란	보림
	보조도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강풀	문학세계사
2009	일반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어린이	멀쩡한 이유정	유은실	푸른숲
2010	일반	그건, 사랑이었네	한비아	푸른숲
	어린이	도서관 벌레와 도서관 벌레	김미애	파란정원
2011	일반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박경화	북센스
	어린이	얼음소년	조원희	느림보
2012	일반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어린이	코끼리 아줌마의 햇살 도서관	김혜연	비룡소
2013	일반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오우아
	어린이	시간가게	이나영	문학동네
2014	일반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	이동원	예담
	어린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시공주니어
2015	일반	투명인간	성석제	창비
	어린이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	황선미	비룡소
2016	일반	카메라, 편경을 부탁해	강윤중	서해문집
	어린이	여름이 반짝	김수빈	문학동네
2017	일반	한 스푼의 시간	구병모	위즈덤하우스
	어린이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	박현경	해와나무

② 북스타트

-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2003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임. 김해시는 2007년부터 북스타트를 도입을 하여 매년 김해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약 5,000명)에게 그림책 2권이 든 꾸러미를 선물하고 있음.
- 도서관에서 꾸러미를 배부하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김해시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음. 시립도서관 5개관과 작은도서관 등에서 담당 사서와 자원활동가들이 책 읽어주기, 책놀이, 신체놀이 등의 후속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표87> 김해시 연도별 출생아수 및 북스타트 꾸러미 배포 현황

연도	출생아수(명)	배포꾸러미수(개)	예산(백만원)
2007	5,800	1,000	-
2008	5,376	3,000	-
2009	5,267	7,000	105
2010	5,607	6,047	80.4
2011	5,473	5,498	67.5
2012	5,629	5,578	74.5
2013	5,060	5,600	72.6
2014	5,287	5,238	72
2015	5,182	5,051	75.3
2016	4,784	4,627	75
2017(계획)		5,000	95

출처 : KOSIS, 김해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4) 교육지원

①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도서관을 지원해오고 있음.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88> 연도별 지원도서관 현황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획)
지원 학교수(개)	7	13	16	27	29	31	42	38	33
예산 (백만원)	70	75	40	70	50	50	50	90	90

② 청소년인문학읽기전국대회 개최

<표89> 청소년인문학읽기전국대회 개최 현황

회차 (년도)	주제	초청저자
제1회 (2009)	사람답게 산다는 것...	차윤정, 윤지강, 박구용, 강수돌
제2회 (2010)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	박현욱, 류정순, 전대원, 우석훈
제3회 (2011)	정의로운 세상,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장영란, 이 한, 강명관, 강신주
제4회 (2012)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박남준, 이희수, 최재천, 하종강
제5회 (2013)	성숙한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김선형, 강수돌, 서 민, 오항녕
제6회 (2014)	우리는 왜 역사를 말하는가?	김별아, 백승종, 강신익, 박숙자
제7회 (2015)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강 미, 김찬호, 조홍섭, 하상필
제8회 (2016)	진실에 질문을 던지다	손아람, 김익중, 김두식, 정찬일
제9회 (2017)	희망을 말한다는 것	김선우, 김승환, 구본권, 이정모

* 제 1회차 대회는 신종플루로 인해 개최하지 못함

- 청소년인문학읽기전국대회는 김해시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대회로, 전국의 청소년(고등학생)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토론의 전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대회임.

- 공동체 놀이, 저자와의 대화, 질문하는 독자, 토론하는 독자로 구성된 대회 운영 모델과 ‘비경쟁토론’이라는 토론 방식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음. 김해 대회를 모델로 하여 전북과 강원 그리고 서울, 인천에서 비경쟁토론 방식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김해 청소년인문학읽기대회를 경험한 교사들이 교실과 지역에서 비경쟁토론 방식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3. 성과와 과제

1) 성과

① 지방자치단체 독서진흥정책의 모델 제시

- ‘책읽는도시 김해’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독서·도서관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례임. 김해 이후 전국 30여 지자체가 ‘책읽는도시’임을 표방하며 김해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였을 정도로 김해의 시도는 지방행정의 역사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큼.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책읽는도시’ 정책을 포함하여, 2014년부터 군포, 인천, 강릉, 전주 등에서 ‘독서대전’을 개최하였음.
- 또한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지역의 독서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민-관 협력형 정책 추진 모델’을 제시함.

② 우수한 사례 개발

- ‘책읽는도시 김해’의 전담조직 구성, 조례 제정, 사업 추진체계와 세부 프로그램 등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아왔음.
- 통합도서관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책두레 서비스는 시립도서관 5개소뿐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관 36개소 등 44개소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전국 최초의 통합도서관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높은 수준의 통합시스템임.
- 학교도서관 지원, 청소년인문학읽기전국대회 등 교육지원 사업은 학교 안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섰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교육문제는 더 이상 교육당국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
- 청소년인문학읽기전국대회는 대립토론, 찬반토론 위주의 기존 독서토론과는 다르게 ‘비경쟁 독서토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음. 소통과 협력이 중심인 이 토론모형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감.

③ 꾸준한 정책 추진

- 김해시는 2007년 ‘책읽는도시’임을 선언한 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음. 시기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긴 하였으나, 사업의 축소나 예산 삭감 없이 ‘책읽는도시’ 정책의 주요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함.

2) 과제

① 민간의 참여와 자생력 확대

- 김해시 독서진흥정책의 가장 큰 특성은 관(김해시)이 주도적으로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임. 이는 적극적으로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들의 공통 특성이기도 함.
- 반면, ‘책읽는도시’ 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관심은 저조한 편이며 민간 독서활동의 자생력과 지속성은 낮은 편임. ‘김해의 책’ 사업과 청소년 인문학읽기전국대회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지만, 이외의 사업이나 ‘책읽는도시’ 전체를 논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는 없음.
- 독서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시민의 지지도 제고, 독서 생활화 등을 통해 ‘책읽는도시 김해’가 김해시의 기본 시책으로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시민 지지기반을 만들어 가야 함.
- 특히 도서관, 직장, 학교, 마을 단위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 독서동아리가 생겨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을 조성해야 함.

② 정책 우선순위 격상 및 조직 개편

- ‘책읽는도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전담부서의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2010년 신설된 ‘도서관사업소’는 당시 전국에서 유일한 국 단위의 도서관정책부서였음. 2014년 평생교육사업소로 바뀌었고, 2017년에는 교육지원 분야가 중심이 되는 인재육성사업소로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 영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짐.

- 전담부서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나아가 지역 내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이 충분히 연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③ 공공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인력 확보

- 김해시는 2017년 현재 시립도서관 5개관을 운영 중이며 1개관을 새로 건립 중임. 김해시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78,198명으로, 전국 평균 52,688명보다 높아 여전히 공공도서관 수는 부족함. 중장기적으로 40,000명당 1관을 목표로 잡고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공도서관의 정규직원 수가 충분치 않아 요구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인력 충원이 필요함.

④ 사회적·지역적 변화를 고려한 정책 수립

- 지난 10년간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 있음.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양극화, 일자리 감소, 고용안정성 약화 등이 주요 사회 과제가 되었음. 스마트폰이 상용화되었으며, ICT와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생활양식이 바뀌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과 직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
- 지난 10년간 김해시는 지속적인 택지개발의 영향으로 인구가 약 7만 명 증가하였음.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노인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면 지역의 인구유출과 노령화는 심각한 상황임. 장유 지역 등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기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현재 7,600여 개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음. 제조업 사업체의 비중이 큰 산업의 특성상 외국인노동자 또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안산시 다음으로 외국인수가 많음.
- 이러한 사회적, 지역적 변화를 고려하여 ‘책읽는도시’ 정책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VI.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 도서관·독서진흥정책의 필요성
2. 김해시 <비전2035> 목표와 추진전략
3. ‘책읽는도시 김해’ 중·장기 비전과 목표
 4. 발전 로드맵
 5. 세부 실행 과제

VI.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 도서관·독서진흥정책의 필요성

- 우리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해 2017년 현재 고령인구 비중이 13.8%임. 또한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있음.
-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양극화, 일자리 감소, 고용안정성 악화 등이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었음. 이에 따라 이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 주도 성장정책 등 고용안정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속화되고 있음. 2016년 알파고(AlphaGo)의 등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됨. 인공지능이 인간을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인간이 기계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었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통적인 관계망이 약화되고 SNS 등 온라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되고 있음. 최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계층의 정보소외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효율성, 합리성, 전문성 등이 핵심 덕목이었던 산업화시대와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 창의력, 집단지성, 타인과의 관계능력과 같은 덕목이 중요해질 것임.
-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새로운 시대에도 독서가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키우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독서는 지적·정서적 성장뿐만 아니라, 취업·대인관계·업무능력과 같은 실용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됨.

<표90> 독서능력(Literacy)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 연구결과 요약

- 취업과 업무능력 면에서 현저히 낙후한다
- 저임금/저소득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 아이디어의 궁핍에서 헤어날 수 없다
- 세상을 읽고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 자기 계발의 기회를 놓친다
- 정서지수(EQ)가 낮고 행복개발 능력이 부족하다
- 기억력, 판단력, 사고력이 감퇴하고 치매 위험에 노출된다
- 인간 이해력 부족으로 대인관계/동료관계에 지장 초래
- 사회참여/공동체 활동의 능력이 떨어진다
- 가치관을 잘 확립하지 못하고 늘 자신감이 없다

- 새로운 시대의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함. 특히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 등에 대한 시설, 자료, 서비스인력을 갖추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함.

<표91> 도서관의 중요성

- 취업 기회의 창출, 평생학습, 자기계발의 토대 시설
- 지식과 부가가치의 생산기지
- 정보 접근의 사회적 평등 확장
- 자녀 양육 경비를 분담하는 사회적 지원 기관
- 사회적 약자(노인, 아동, 여성 등)를 위한 복지 안전망
- 친밀공동체 형성의 장, 주민의 웰빙개발 기지
- 경제 주체들을 위한 정보센터
- 공연, 전시, 창작활동 등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지
- 한 도시의 문화적 보물, 기억과 비전
- 지속적 시민교육의 장

-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다양해졌음. 도서관은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또한 공공도서관은 지역 교육,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함.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및 독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2. 김해시 <비전2035> 목표와 추진전략

1) 비전의 방향

- 동남부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상징적 미래상 정립
- 김해시에는 희망을, 시민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미래상 제시
-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요조사, 워크숍 등 의견 수렴을 통한 비전 설정
- 김해시의 세부 발전목표가 모두 망라될 수 있도록 함축적인 비전 설정
- 정부3.0의 국정운영방침과 지역발전정책 동향을 적극 수용한 비전 설정

2) 비전 :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

<그림51> 2035 가야 비전



3. ‘책 읽는 도시 김해’ 중·장기 비전과 목표

<그림52> 중장기 비전과 목표



4. 발전 로드맵

<그림53> '책읽는도시 김해' 장기 발전 로드맵



<표92> '책읽는도시 김해'의 단계별 발전 계획

구 분	기 간	목 표	주 요 과 제
구축기	2007 ~ 2016	책읽는도시 김해 인프라 조성	■ 공공도서관 건립 ■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 ■ 작은도서관 지원 ■ '김해의 책', 북스타트, 인문학읽기전국 대회 등
확대기	2017 ~ 2021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조성	■ 민관 거버넌스체제 구축 ■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 ■ 작은도서관 지원체계 정비 ■ 독서동아리 지원 ■ 범시민 독서캠페인 전개
	2022 ~ 2026	읽고 쓰고 토론하는 도시	■ 특화도서관 건립 - 가야역사도서관, 다문화도서관, 기업지원도서관 ■ 시민작가 양성 ■ 김해·가야 콘텐츠 제작 지원
안정기	2027 ~ 2031	세계로 뻗어나가는 책읽는도시	■ '책읽는도시 국제 네트워크' 구성
	2032 ~ 2036	글로벌 책문화 1번지	■ 세계 책의 전당, 책 테마파크 건립

5. 세부 실행 과제

정책 영역	정책 과제
제도 정비	1) 민-관 거머넌스 체제 구축 2) 정책부서 개편 - (가칭)지식정보사업소 신설 3) 새로운 슬로건 선정 4) 홍보 확대
독서문화진흥 정책	1) 공공도서관 확충 2) 특화도서관 건립 3) 서비스인력 확보 4)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5) 독서동아리 활성화 6) '온 시민 도서관 회원증 만들기' 캠페인 실시
교육지원 정책	1)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 노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전문인력 및 장서확충 확대 지원 - 학교 독서 프로그램 지속 지원 2) 학교 연계 독서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인문학읽기전국대회 모형 확대 보급 - 학교 독서동아리 활성화 3)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협력 강화
민생복지지원	1) 육아의 사회적 지원 - 북스타트 시행체제 개편 - 북스타트 연계 공동육아 지원 2) 지식정보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
산업지원	1) 지역 독서생태계 조성 - 지역 창작·출판 육성, 지역서점 활성화 2) 산업 정보 지원 - 기업 비즈니스 지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 도서관을 통한 창업·취업 지원 서비스 3) '책 읽는 직장' 환경 조성 - 직장 독서 환경 조성 지원 -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시행
국제화	1) 국제교류 - '책읽는도시' 국제 심포지움 개최 - 외국문학 읽기 - 국내외 문학관 초대전시, 교환전시 2) 세계적인 책의 도시 조성 - '세계 책의 전당' 건립 및 운영 - '가야문화와 연계한 가야독서기행' 콘텐츠 개발

1) 제도 정비

<그림54> 제도 정비를 통한 ‘책읽는도시’ 발전 방안



① 민-관 거버넌스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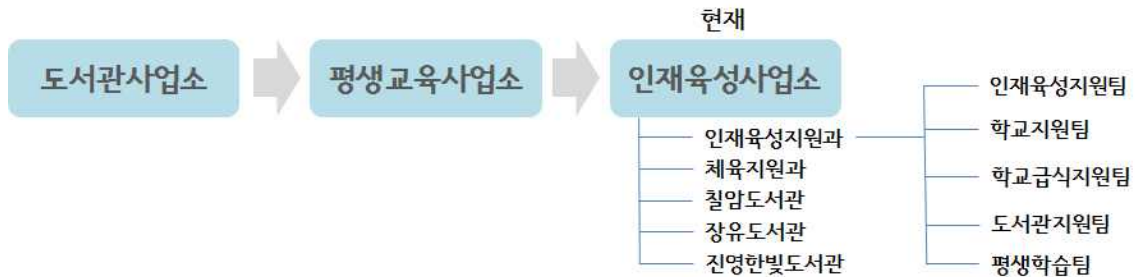
- 김해시는 타 공공기관, 주민, 지역사회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범시민적 독서운동을 추진하고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책읽는도시’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범시민적 협의를 끌어낼 수 있는 기구가 없음.
- ‘책읽는도시 김해’의 제2단계 확대기 사업 전개를 위해 시민참여 및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의 정착이 필요함.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기관, 시민, 학계, 민간단체, 독서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네트워크 구축

*** 참고사례 - 고양시의 ‘독서 거버넌스 체제’ 구축**

- 고양시는 2016년 10월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고양’을 선포하고 독서·도서관 정책을 핵심 시책으로 삼을 것을 선언함.
- 기존의 고양시도서관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작가, 학자, 독서운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고양 추진위원회’를 구성함.
- 또한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도서관 시민참여단’을 조직함.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양성에 기여함.
- 이외에도 고양시의 독서·도서관정책을 알리는 ‘찾아가는 고양시 도서관 홍보단’, 고양시에 거주하는 작가들의 모임인 ‘고양시작가단’, ‘고양시 북스타트위원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범시민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② 정책부서 개편

<그림55> '책읽는도시' 전담조직 변천 과정



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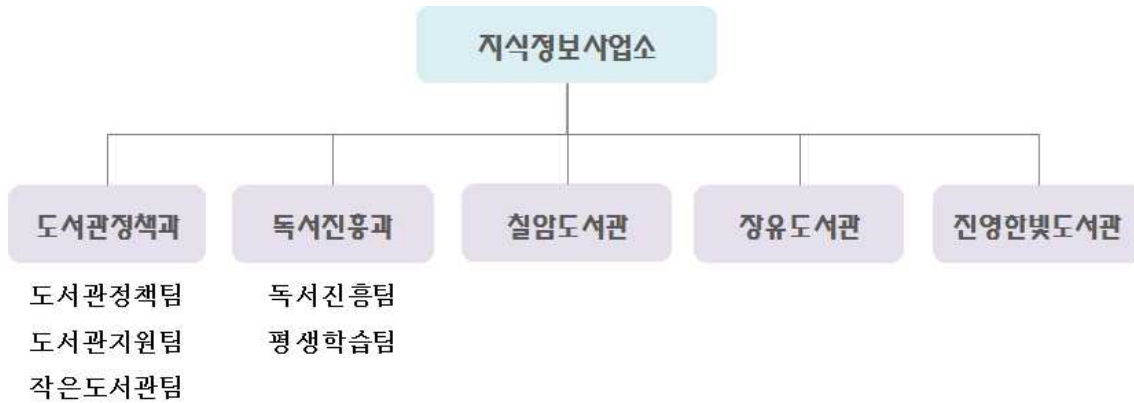
- 김해시는 '책읽는도시' 정책의 효율적·유기적 수행을 위해 서로 다른 부서에 흩어져있던 업무를 통합하여 2007년 10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독서·도서관 전담부서인 도서관정책팀을 신설함. 이후 2010년에 기존 평생학습지원과를 개편하여 도서관사업소를 조직함.
- 이후 평생교육의 비중이 증가하여 2014년에 평생교육사업소로 이름을 바꿨다가, 2016년 12월에 인재육성사업소로 다시 직제를 변경하였음.
- 2017년 7월 현재 도서관·독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인재육성지원과의 도서관지원팀임. 도서관지원팀은 도서관정책 수립, 통합도서관시스템 운영,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학교도서관 지원, 김해의 책·북스타트 등 독서진흥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나. 평가

- 인재육성사업소 조직은 크게 교육지원 부문, 체육지원 부문, 도서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도서관 부문은 조직의 규모나 업무의 중요도로 볼 때 별도의 사업소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현 도서관지원팀은 조직의 규모와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업무범위가 넓음. 따라서 독서진흥 부서와 도서관 부서를 구분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음.

다. 조직체계 개편안

<그림56>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부서 개편안



○ 개편안

- ‘(가칭)지식정보사업소’ 신설
- 2과 3도서관 체제

<표93> 부서별 담당 업무

과	팀	업무내용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팀	도서관 정책 수립, 공공도서관 건립, 대외협력, '책읽는도시' 홍보 등
	도서관지원팀	통합도서관시스템 및 책두레 서비스 운영, 북스타트, 교육청 도서관 지원 등
	작은도서관팀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 평가, 작은도서관 운영자/실무자 교육 등
독서진흥과	독서진흥팀	김해의 책, 독서동아리 지원, 북 페스티벌,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평생학습팀	성인문해교육, 평생교육기관 관리, 평생교육사업 운영 등

* 타지역 사례

1. 군포시

- 군포시는 책임는사업본부 산하에 책임는정책과와 각 도서관을 두었음. 정책부와 사업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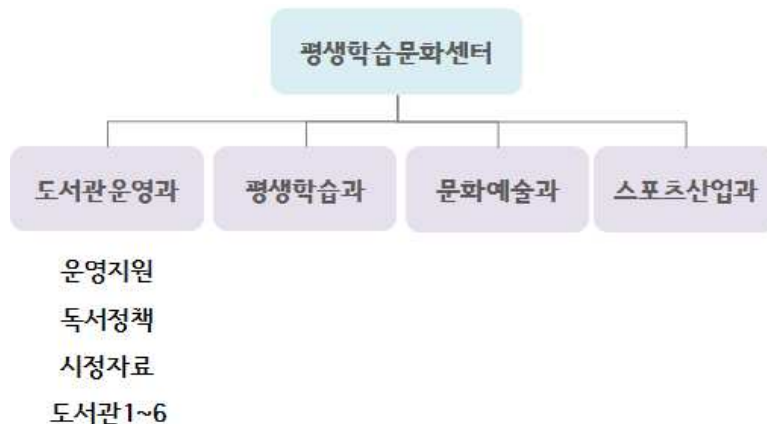
<그림57> 군포시의 독서·도서관 전담조직 체계



2. 순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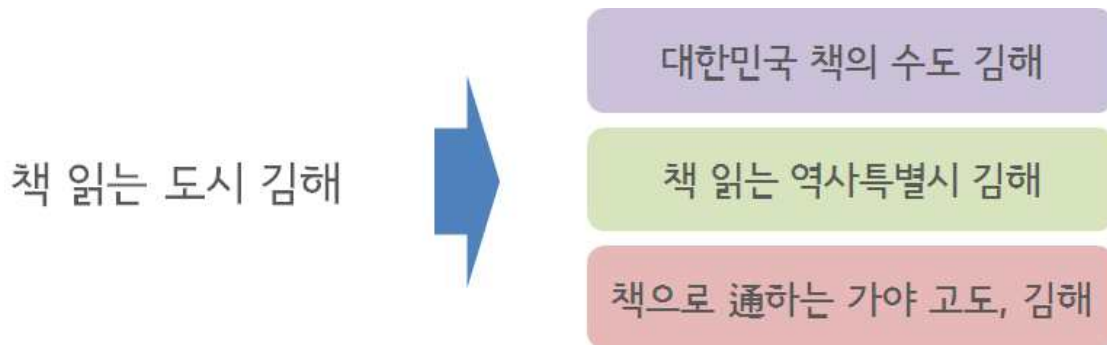
- 순천시의 독서·도서관 업무는 평생학습문화센터 산하의 도서관운영과에서 전담하고 있음. 도서관 지원 업무와 독서정책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시정자료를 수집하는 전담부서를 둔 것이 특징임.

<그림58> 순천시의 독서·도서관 조직체계



③ 새로운 슬로건 선정

<그림59> '책읽는도시 김해'의 새로운 슬로건 구상안



- 김해시의 독서·도서관정책의 재도약을 위하여 '책읽는도시'라는 슬로건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이외에 검토된 슬로건 후보	
1. 김해는 책이다	13. 김해를 읽다!
2. 책도시 1번지 김해	14. 다독다감(多讀多感) 김해
3. 책으로, 김해로	15. 책으로 행복을 품은 인문 세상, 김해
4. 책 세상, 인문 행복 도시, 김해	16. 역사를 읽는 도시 김해
5. 김해는 읽습니다	17. 책향기 나는 김해
6. 책으로 미래를 여는 가야 특별시, 김해	18. 독서문화특별시 김해
7. 책특별시 김해	19. 대한민국 책의 수도 김해
8. 책과 역사를 잇는 평생학습특별시 김해	20. 책 읽는 가야 특별시, 김해
9. 천년 고도의 독서 만세, 김해	21. 책에서 꽃핀 가야 고도, 김해
10. 책이 숨쉬는 도시 김해	22. 넓은 도서, 넓은 역사, 책 세상 김해
11. 가야인문도시 김해	23. 책은 김해로, 역사는 가야로
12. 읽고 익고 잇는 김해	

- 새로운 슬로건
 - 1안 : 대한민국 책의 수도 김해
 - 2안 : 책 읽는 역사특별시 김해
 - 3안 : 책으로 통하는 가야 고도 김해

○ 타 지자체 사례

- 군포시 : 책나라 군포
- 고양시 : 아주 특별 한 책의 도시 고양
- 성남시 : 성남은 읽습니다
- 수원시 : 인문도시 수원
- 파주시 : 책읽는도시 토론하는 파주
- 미국 시카고 : Chicago is Reading

④ 홍보 확대

- ‘책읽는도시 브레인스토밍, 작은도서관 관계자 간담회, 시민 제안사항 등에서 ‘책읽는도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요구가 있었음.
- 기존의 사업별, 각 도서관별 홍보가 아닌, ‘책읽는도시’ 전체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방위적인 홍보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홍보 확대 방안
 - BI 수정 및 적극 활용
 - 책-가야문화 연계
 - SNS 활용 홍보
 - 지역신문/방송 연계 홍보
 -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 독서정보 제공 포털
 - 김해시 도서관 및 서점 지도 제작
 - 관내 주요 장소에 독서 상징 조형물 설치
 - 독서정보 LED 안내판 설치

※ 참고 사례 - 군포시의 독서진흥정책 홍보

군포시는 독서진흥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책나라 군포’를 브랜드화 하여 독서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리, 공원, 공공시설 등에 ‘책나라 군포’를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함. 관내 대표축제인 철쭉축제와 책을 연결시키기도 함.

<그림60> 군포시 사례



2) 독서문화진흥 정책

① 공공도서관 확충

- 여전히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있음.
 - 민선 7기에 적극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필요(2-3개관)
 - 주촌지구 우선 검토
 - 도시개발계획에 도서관 건립계획 포함
 - 중장기적으로 인구 4만 명 당 1관 목표(최소 13개관 필요)

② 특화도서관 건립

- 가야의 왕도, 다문화 인구,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도시 등 김해시의 특색을 살린 도서관을 건립
 - 가야 역사 특화 도서관
 - ‘가야왕도 김해’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가야 역사 특화 도서관’ 건립
 - 가야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김해시와 관련된 향토자료 전문 도서관으로 특화
 - 다문화도서관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에 글로벳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편
 - 양질의 다언어 자료를 확보하고,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개발·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문화도서관 건립
 - 기업 비즈니스 지원도서관 등

③ 서비스인력 확보

<표94> 김해시립도서관 인력 현황

	합계 (A+B)	정규직 (A)	정규직 중 사서	비정규직 (B)
합계	149(3)	54(3)	25(3)	95
칠암	34(2)	16(2)	6(2)	18
화정글샘	31	8	4	23
장유	39(1)	13(1)	7(1)	26
김해기적	16	6	3	10
진영한빛	29	11	5	18

* 괄호는 시간선택제

출처: 김해시 제공자료

- 2017년 5월 현재 김해시 산하 공공도서관 5개관의 직원 수는 총 152명임. 이중 정규직 인력은 57명, 비정규직 인력은 95명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62.5%나 차지하고 있음.
- 도서관 현장에서는 직원 수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체계 미흡 등의 애로점 등을 호소하고 있음.
- 도서관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도서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인력 확보가 필요함.
- 현재 건립중인 장유복합문화센터 도서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반드시 적정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④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가. 작은도서관 평가시스템 도입

-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

모할 수 있음.

나. 비지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실시

- 작은도서관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비지원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통합도서관시스템에 포함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도서관자료의 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소외지역 작은도서관의 공립화

-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소외지역의 작은도서관을 공립화하여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함.

라. 작은도서관의 특성화 유도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특색에 맞게 작은도서관의 특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주민의 특성 및 인구분포,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 지역의 역사, 운영주체의 철학 등을 고려한 특성화
- 주제 특성화
 - 생태·환경, 그림책, 미술, 음악, 문학, 철학, 인권, 평화, 다문화 등
- 이용자 특성화
 - 어린이,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

마. 작은도서관 관계자 교육 강화

- 관장과 전담인력, 자원봉사자, 주민, 운영위원, 주민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바. 작은도서관 홍보 강화

- 작은도서관이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밀착형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김해시 작은도서관의 공통 BI 개발
 - 김해시 도서관지도(접이식 팜플렛) 제작(2017년 10월 제작 예정)
 -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적극 활용
 - 작은도서관의 홍보활동을 적극 권장(평가에 반영)

사. 작은도서관 지원 펀드 조성

- 작은도서관의 부족한 운영비 보충하고, 시설 개보수와 같이 개별 작은도서관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지원 펀드를 조성함.

⑤ 독서동아리 활성화

- 독서동아리는 개인적·수동적 독서활동이 아닌 집단적·적극적 독서활동으로, 독서문화 확산시키고 공동체의식 함양하는 데 가장 좋은 활동임.
 - 독서 생태계 기반을 확충하고 읽고 토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독서동아리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으로 독서동아리에 대한 수요와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음.
-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매년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김해시도 2017년 현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과 참여하는 독서동아리 수가 적고, 도서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자발성과 확대성이 부족함.
- 따라서 시민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독서동아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바꾸고 예산과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음.
-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
 - 독서동아리 실태조사 : 독서동아리 수, 참여 인원, 계층별 참여 현황, 지원방안 등 파악
 - 독서동아리 지원 확대 :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 독서동아리 활동가 양성 : 독서동아리 활동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멘토링할 수 있는 활동가 발굴 및 양성
 - ‘1인 1독서동아리’ 캠페인 : 시민들의 독서동아리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활동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서점, 카페 등에서 독서동아리를 결성하거나 모임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 독서동아리 간 상호 협력·교류할 수 있는 통로 제공
 - 독서동아리 한마당 실시(연1회) : 독서동아리 축제, 독서동아리 교류의 장

⑥ ‘은 시민 도서관 회원증 만들기’ 캠페인 실시

<표95> 통합도서관시스템 연령별 회원 비율

구분	통합도서관 회원				연령별 인구수	회원비율
	남	여	알수없음	합계		
영유아 (만 7세미만)	1,507	1,616	243	3,366	38,618	8.7%
초등학생 (만 7~12세)	9,230	9,018	1,653	19,901	35,830	55.5%
청소년 (만 13~18세)	12,360	13,461	2,380	28,201	43,207	65.3%
성인 (만 19세 이상)	46,079	77,236	19,917	143,232	411,767	34.8%
알수없음	179	227	297	703	-	-
합계	69,355	101,558	24,490	195,403	529,422	36.9%

출처 : 김해시청 제공자료

- 2016년 말 기준 김해시 통합도서관시스템 회원 수는 195,403명으로, 전체 인구의 36.9%에 해당함. 영유아 회원의 비율은 8.7%로 가장 낮는데, 모든 출생아들에게 북스타트 꾸러미를 나눠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음.
- 모든 시민들이 도서관 회원증을 만드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서관에 대해 알리고 도서관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음.
- 어린이·청소년 회원 수 증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회원증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음.

3) 교육지원 정책

①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 김해시의 모든 초중고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 전담인력 부재, 장서의 낮은 질 및 장서량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김해시에서 2009년부터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학교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의 주요 내용

- 노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및 장서확충 확대 지원
- 학교 독서 프로그램 지속 지원

② 학교 연계 독서 프로그램 확대

가. 청소년인문학읽기전국대회 모형 확대 보급

- 김해시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청소년인문학읽기전국대회는 ‘비경쟁 독서토론’이라는 새로운 독서토론의 모형을 제시하였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후속사례를 만들어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인문학읽기대회 운영 노하우와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여 비경쟁 독서토론 모형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개별 학교와 학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인문학읽기대회의 확산에 대한 요구는 대회 운영위원회와 참가자들로 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이미 다른 지역에서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학급별·학교별 비경쟁 독서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나. 학교 독서동아리 활성화

- 담당교사의 지도 아래 운영되는 독서동아리가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실시함.
- 학교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
 -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 도서구입비, 간식비 등
 - 독서동아리 담당교사 교육 : 학생들의 자발적 독서동아리 활동을 돕기 위한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
 - 학생 독서동아리 한마당 : 학생 독서동아리 교류의 장 마련

다.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협력 강화

- 학생들의 독서동아리 활성화와 도서관 협력수업 등을 위해 학교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은 필수임.
- 예를 들어 학생 독서동아리 활동에 필요하지만 학교도서관에서 복본을 소장하기 어려운 책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자료들을 공동수서하거나 공공도서관에서 단체대출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방학 중 학생들의 독서동아리 모임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음. 또한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자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4) 민생복지지원

① 육아의 사회적 지원

가. 북스타트 시행체제 개편

- 김해시는 매년 모든 출생아들에게 그림책 2권이 들어있는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있고, 각 도서관별로 진행하는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편임.
- 그러나 영유아의 도서관 회원 가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북스타트 꾸러미 배포가 도서관 이용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후속프로그램이 책과 관련 없거나 지나치게 학습 위주여서 ‘평생독자를 만든다’는 북스타트 운동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음.
- 북스타트 시행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
 - 북스타트 홍보 강화 : 북스타트가 꾸러미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순수 자원활동가 체제로 전환 : 학습·기능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 책·공동체 중심의 프로그램을 위해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조직을 순수 자원활동가 체제로 전환
 - 부모 및 양육자 책모임 확대 : 육아에 지친 양육자들이 같이 책을 읽고 소통하며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양육자 책모임을 확대

나. 북스타트 연계 공동육아 지원

-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을 통해 모인 양육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공동육아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동육아는 모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갖는 형태이고 만족도도 높음.

② 지식정보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

-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는 만큼 지식정보소외계층도 증가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에서 저소득층, 다문화인구, 장애인, 노인, 등 지식정보소외계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식정보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의 주요 내용
 - 대체자료 및 이용 장비 확보 : 큰 활자 책, 오디오북 등
 - 장애인/노인 대상 서비스 강화
 - 병영독서 지원
 - 다문화도서관 건립 및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확대

5) 산업지원

① 지역 독서생태계 조성

- 독서생태계는 책과 관련된 환경과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용어로, 책의 창작부터 유통, 소비, 그리고 재창작으로 이어지는 순환계를 형성하고 있음. 지역의 독서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서생태계가 원활히 순환될 필요가 있음.
- 김해시의 경우 독서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소비의 영역에 해당하는 도서관과 독자의 활동은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창작(저자, 출판사) 영역은 자원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유통(서점) 영역도 운영 상황이 좋지 않은 편임.
- 따라서 지역 창작과 출판을 육성하고 서점 활성화를 지원하여 건전한 독서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독서생태계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
 - 지역 창작·출판 육성 : 김해·가야 관련 책을 저술하려는 저자나 출판사를 지원하여 지역 콘텐츠를 확보하고,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에서 해당 도서를 적극 홍보
 - 지역서점 활성화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 구입시 관내서점 우선 구입 제도화,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도서대출제’, ‘나눔 북뱅크’ 사업, ‘도서관 포인트 시스템’ 등의 도입 검토

*** 참고사례 - 충북의 ‘상생충북book’**

-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한 독서운동
 - 지역작가의 책을 지역출판의 힘으로 펴내고, 동네서점을 통해 사고팔고, 도서관에서 함께 읽는 상생의 책읽기를 도모
- 새로운 문화생태로 만들기
 - 지역작가가 쓴 지역 이야기를 우선으로 하여 목록 제작
 - 출판과 서점조합의 협업으로 동네 서점에 지역저작물을 유통·판매
 - 서점과 도서관에서 전시하고 저자와 만나는 기회를 마련
 - 도서관과 학교는 해당목록을 공유하고, 우선 구입
 - 지역 작품을 읽는 문화와 지역 저자의 창작의지를 북돋우는 문화가 순환함
- 지역 책을 알리고 함께 읽기
 - ‘이웃의 삶, 이웃의 이야기 전시’ : 이달의 책 선정
 - 매월 저자와의 만남 : 동네서점, 작은도서관
 - 서점과 도서관지도 제작, 지역출판 도서자료 목록 만들기
 - 동네서점 구매인증 쿠폰, 인증샷
- 참여 기관 및 단체
 - 조직 : 운영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 참여기관단체 : 충북문인협회, 충북작가회의, 청주지역서점연합회(17개점),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45개소), 충북시민재단(충북NGO센터), 지역출판네트워크
 - 협력 및 협약기관 : 청주시의회, 청주시립도서관, 충북도교육청, 청주YWCA,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충북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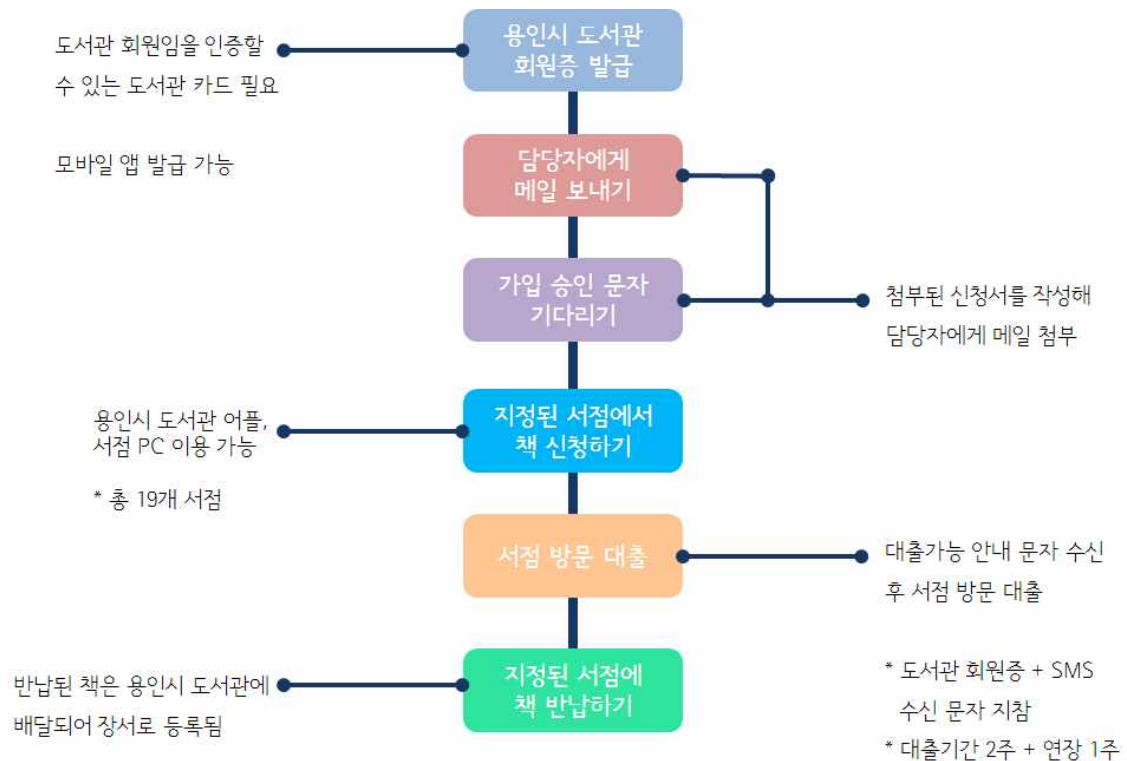
*** 참고사례 - 의정부시 도서관-지역서점 마일리지 제도**

- 의정부 시민의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의 대출 실적을 포인트화 하여 지역서점에서 도서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 반납도서 1권당 100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10원 단위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 이 제도를 통해 공공도서관에서의 도서 대출권수가 증가하고 서점 이용도 활성화 되고 있음.

* 참고사례 - 용인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시민들이 서점에서 새 책을 무료로 빌려본 뒤 반납하면 책값을 지자체가 지불하는 제도로, 2016년 용인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음.

<그림61>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시행 절차



- 2016년 한 해 동안 총 13,686명의 시민이 동네서점에서 54,460권의 책을 대출하고, 동네 서점당 매출이 평균 10% 이상 늘어나면서 일반시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서점의 매출 증가라는 상생효과를 낳음.
- 이 사례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부천시, 안산시, 오산시, 여주시, 나주시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음.
- 용인시는 최근 도서관과 지역서점간의 검색·대출·반납 등 도서관리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통합 처리하는 기능을 담은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온라인 특허를 신청하였음.

<표96> 용인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참여서점

구분	서점
처인구 (3)	명지문고, 용인문고, 최강서점
기흥구 (9)	구갈대지서점, 동백문고, 문화서점, 반석서점, 보라서점, KS기흥문고, 블루키문고, 한울문고, 나르북
수지구 (7)	광고서점, 비전문고, 수지 상현문고, 수지문고, 수지문고 학원납품점, 하나문고, 한솔서적

* 참고사례 - 부천시 ‘나눔 북뱅크’ 사업 및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그림62> 부천시 ‘나눔 북뱅크’ 포스터



BUCHEONBOOK

서점에 가신다고요?
나눔 북뱅크에
영수증을
기부하세요!

나눔 북뱅크!
7월 20일, 신원중서점(원종동),
제일문고(고강동)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나눔 북뱅크란?

동네서점과 도서관 상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민이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후, 구매 영수증을 기부하면 도서 정가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하여 시립도서관에 책으로 후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나눔 북뱅크는 부천시점업협회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나눔 북뱅크 참여 방법

별약서점에서
도서구입

도서구매 영수증
적립할 기부

기부 영수증
1% 포인트 적립
(서점)

적립된 포인트
도서관에 도서기부
(분기별)

나눔 북뱅크 참여 서점
신원중서점(672-8911) : 부천시 소사로 712(원종동, 지하1층)
제일문고(679-6611) : 부천시 역곡로 479(고강동)



판타지아 부천

- 부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눔 북뱅크’ 사업은 2016년 7월에 시작된 동네서점과 도서관의 상생 프로젝트임. 시민이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입하여 영수증을 기부하면 도서 정가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한 후, 분기별로 서

점에서 시립도서관에 책으로 후원함.

- 부천시는 2015년부터 지역서점과 협약을 맺어, 지난해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의 50%를 부천서점업협의회 소속 서점 13곳에서 순차적으로 구매 계약하여 동네서점 살리기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협약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동네서점 홍보 및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동네서점에서 진행하고, 동네서점은 공원 속 미니책방, 나눔 북 뱅크 사업 등의 독서정책을 후원함.

② 산업 정보 지원

- 도서관은 항상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자원 및 교육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옴. 또한 디지털시대에 도서관은 기업가정신 및 비즈니스 개발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연결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시의 특성에 맞게,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센터로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공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함.
- 또한 김해고용센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와 협력하여 취업정보와 함께 취업에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제공함.
-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서는 각종 전자저널을 구비해야 하며, 전문 인력 배치도 필수임.
- 산업 정보 지원의 주요 내용
 - 기업 비즈니스 지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 도서관을 통한 창업·취업 지원 서비스

③ ‘책 읽는 직장’ 환경 조성

가. 직장 독서 환경 조성 지원

- 직장에서 문고 설치, 직장 독서동아리 운영 등 독서 환경을 갖추고자 할 때 김해시에서 지원함.
- 문고 설치와 독서동아리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거나, 단체대출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나.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시행

- 독서경영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 개인의 창의력을 이끌어내고 직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이끌어내는 경영방식을 뜻함.
- 김해시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를 시행하여 직장에서의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음.

6) 국제화

① 국제교류

- ‘책읽는도시’의 국제화는 독서인프라뿐만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음.
- 국제교류의 주요 내용
 - ‘책읽는도시’ 국제 심포지움 개최 : 독서를 주요 시책으로 삼는 국내·외 주요 지자체들이 함께 모여 ‘책읽는도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 외국문학 읽기 : 자매도시와의 연계, 매년 한 나라의 문학작품을 정해 읽는 프로그램
 - 국내외 문학관 초대전시, 교환전시 : 국내외 문학관 등의 자료를 임대 전시하고 관련 기획 행사를 추진

② 세계적인 책의 도시 조성

- ‘세계적 책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계적 책 관련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함.
- 주요 내용
 - ‘세계 책의 전당’ 건립 및 운영
 - 가야문화와 연계한 ‘가야독서기행’ 콘텐츠 개발

Ⅶ. 김해시 도서관 활성화 방안

1.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2.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3. 작은도서관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

VII. 김해시 도서관 활성화 방안

1.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1) 공공도서관 확충

<그림63> 김해시 도서관 지도



- 김해시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75,732명으로, 전국 평균 52,688명과 경남 평균 51,765명보다 많아 공공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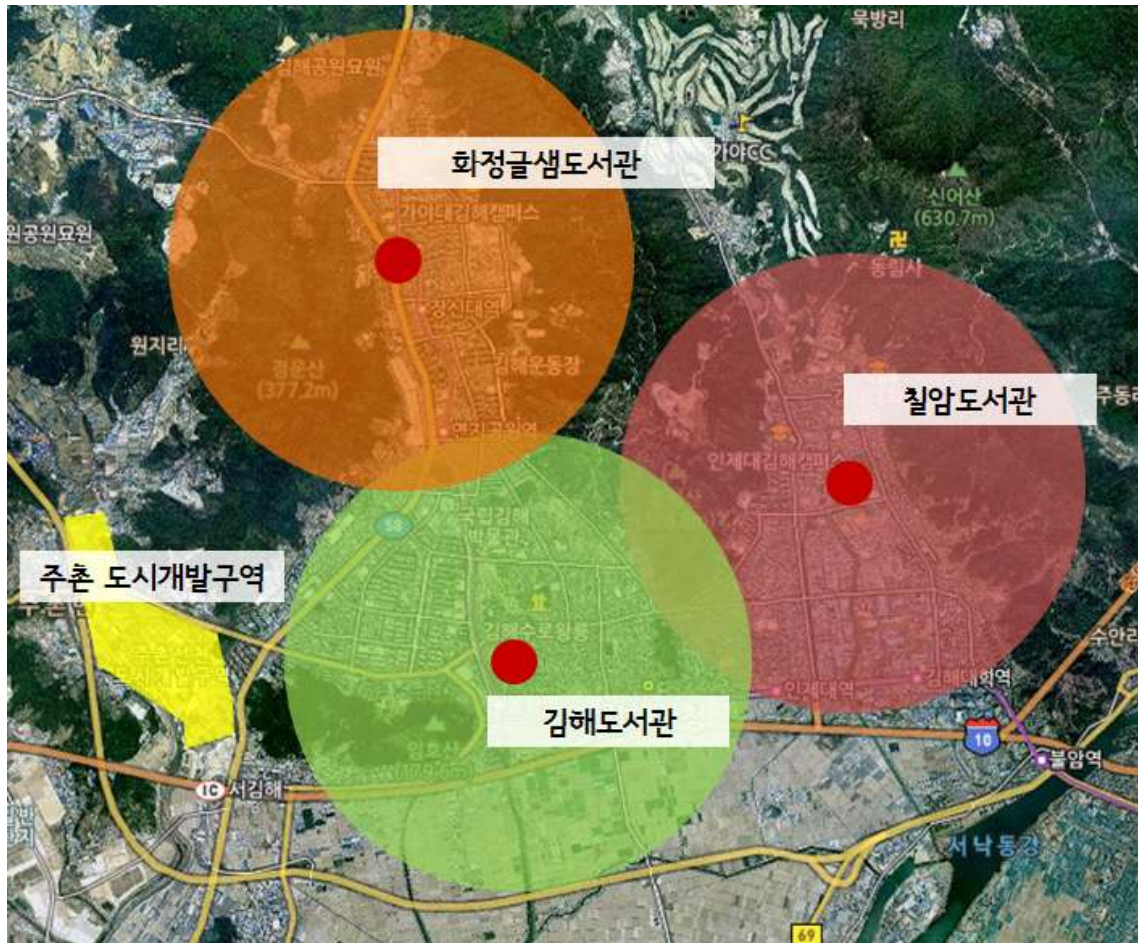
<그림64> 지역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 『2016 한국도서관연감』

- ‘2017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서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음. 비록 작은도서관이 55개소나 운영 중이고 모든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지만, 시민들은 작은도서관보다는 중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을 더 선호함. 작은도서관은 시설, 장서, 서비스 등에서 공공도서관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음.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범위, 서비스 대상 인구, 시민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18년까지 인구 45,000명당 1개관 수준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임.
- 장기적으로 김해시가 인구 40,000명당 1관을 목표로 할 때 필요한 공공도서관 수는 13개관임. 현재 시립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 개관 예정인 도서관까지 합하면 8개관으로, 장기적으로 5개관 정도 추가 건립이 필요함.
- 공공도서관을 건립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범위와 인구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범위를 2km로 잡을 때, 김해시의 동 지역은 대부분 공공도서관 서비스권 안에 포함됨.

<그림65> 김해시 시내권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범위



- 우선 주촌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음. 현재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촌지구는 2018년부터 6,900세대, 2만 명의 인구가 입주할 예정임. 그러나 가장 가까운 김해도서관과 직선거리로 3km 이상 떨어져 있어 도서관 접근성이 낮음. 따라서 주촌지구에는 새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칠암도서관과 화정글샘도서관, 김해도서관은 2km 이내의 거주인구가 최소 8만 명 이상으로, 서비스 대상 인구가 비교적 많음. 따라서 이들 지역은 중·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거나,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공립화한 후 공공도서관의 분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표97> 김해시 시내권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수

도서관명	서비스지역	인구수(명)	합계(명)
칠암도서관	삼안동	38,820	83,887
	활천동	45,067	
화정글샘도서관	북부동	84,316	84,316
김해도서관	동상동	10,376	111,171
	부원동	10,099	
	회현동	9,468	
	내외동	81,228	

인구수 출처 : 김해시청 홈페이지(2017년 7월 기준)

- 불암동 지역은 약 8,50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 접근성 낮아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공공도서관 분관 건립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공공도서관 사서 인력 확보

<표98> 김해시공공도서관 인력 현황

(단위 : 명)

도서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계	사서직	행정직	전산직	기타	사서직	기타
김해칠암도서관	14	6	4	1	3	7	14
김해장유도서관	12	6	3	0	3	10	18
김해시립화정글샘도서관	8	4	2	0	2	6	21
김해시립진영한빛도서관	11	5	3	1	2	5	22
김해기적의도서관	6	3	2	0	1	3	7
김해도서관	29	18	8	0	3	10	9
진영도서관	5	2	1	0	2	1	1
합 계	85	44	23	2	16	42	92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15년 기준)

- ‘김해시립도서관 사서 간담회’에서 사서들은 업무량과 이용자 수에 비해 사서 인력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음. 정규직 사서가 부족하면 사서의 전문성을 신장·발휘하기 어렵고, 이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시립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의 인력 편차도 심함. 칠암도서관, 장유도서관, 화정글샘도서관은 비슷한 규모의 교육청 소속 도서관인 김해도서관에 비해 정규직원 수는 28~48% 수준, 정규직 사서 수는 22~33% 수준에 불과함.
- 김해시 도서관이 지역 지식·정보·문화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규직 사서 인력을 확보해야 함.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2배 수준까지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함.
- 2018년 개관 예정인 장유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을 비롯하여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할 때에도 시민들에게 질 높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함.

3) 도서관 및 사서의 전문성 강화

① 공동수서 실시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통합도서관시스템으로 묶여있지만, 수서는 도서관간 협의 없이 각 도서관별로 진행하고 있어 복본자료가 많고, 장서의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도서관서비스의 핵심은 ‘자료’이므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보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개별 도서관 단위가 아닌, 김해시 전체 단위로 수서를 실시하는 ‘공동수서’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김해시는 2016년에 시립도서관 5개관을 주제별로 특성화하기로 함. 공동수서는 장서의 특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② 사서 전문성 강화

- ‘시립도서관 사서 간담회’에서 사서들은 ‘도서관간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각 도서관이 경쟁구도 속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음. 또한 행정업무가 많고 인력은 적어 사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사서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필수임. 또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사서들이 최신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4) 특화 도서관 건립

① 가야사 특화 도서관 건립

- 김해시는 가야 역사의 중심지로, 수로왕릉과 허황후릉, 분산성 등 역사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임. 또한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도시이자 전국 기

초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다문화 인구가 많은 지역임.

- 가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김해시는 가야 건국 2천년을 맞아 가야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가야 역사문화도시 복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가야 역사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며, 가야 관련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가야사 특화 도서관’ 건립할 필요가 있음.

② 다문화도서관 건립

- 가야는 고대 삼국과 일본, 중국, 인도와도 교류했던 글로벌 국가이자 다양성의 국가였음. 김해시가 가야의 전통을 계승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 도서관’ 건립이 필요함.
- 현재 글로벌도서관이 다문화 자료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간과 예산, 인력 등의 한계가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따라서 별도의 다문화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적절함.

③ 비즈니스 지원 도서관 건립

-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시의 특성에 맞게, 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할 ‘비즈니스 지원 도서관’ 건립이 필요함.

* 참고사례 : 미국 뉴욕 주 미들컨트리 공공도서관의 비즈니스 정보 지원

- 미국 뉴욕 주 미들컨트리 공공도서관(MCPL) 내부에 위치한 밀러비즈니스자원센터(Miller Business Resource Center)는 비즈니스 장서, 컴퓨터, 회의실 등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일대일 비즈니스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서들은 도서관을 찾는 기업 및 사업자에게 BIZLINK를 통한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및 사이트 추천, 산업동향 분석 및 시장조사, 기업프로필 및 시장점유보고서 검색, 인구통계 조사, 법률 및 비영리 정보원 조사, 인적자원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도서관비즈니스커넥션 (Library Business Connec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 또는 창업희망자를 모아서 발표회 및 간담회 형식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각종 전문 정보를 제공함.
- 또한 매년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소매상, 서비스업체, 기업을 위한 ‘무역박람회(Strictly Business Trade Show)’를 개최하고,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계획서 경연대회(Plan! Write! Succeed!)’를 진행하며, 가을에는 여성 사업가들을 위한 ‘여성엑스포(Women’s Expo)’를 열어 각종 영리사업과 예술 등의 비영리 영역을 망라하고 있음.

2.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1) 김해시 작은도서관의 과제

① 작은도서관의 자발성 약화

- 작은도서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및 인터뷰 결과, 시비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김해시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작은도서관은 본래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지역운동의 차원에서 시작했음. 반면, 김해의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법 의거하여 만들어지고,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운영되어왔음.
- 김해시의 작은도서관은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1관당 매월 150~200만원의 시지원금을 받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시지원금 이외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과금 납부, 시설개보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김해시의 지원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②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의 형평성 문제

- 김해시는 작은도서관 36개소에 매월 150~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17개소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비지원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2012년 이후에 개관한 곳으로, '받는 곳만 계속'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비지원 작은도서관은 통합도서관시스템에도 포함되지 않아 다른 도서관에 비해 이용자의 편의가 적음.

③ 작은도서관 관리시스템 부재

- 36개소에 시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 프로그램 수와 질, 자원활동가 수와 자원활동 내용 등 운영현황과 이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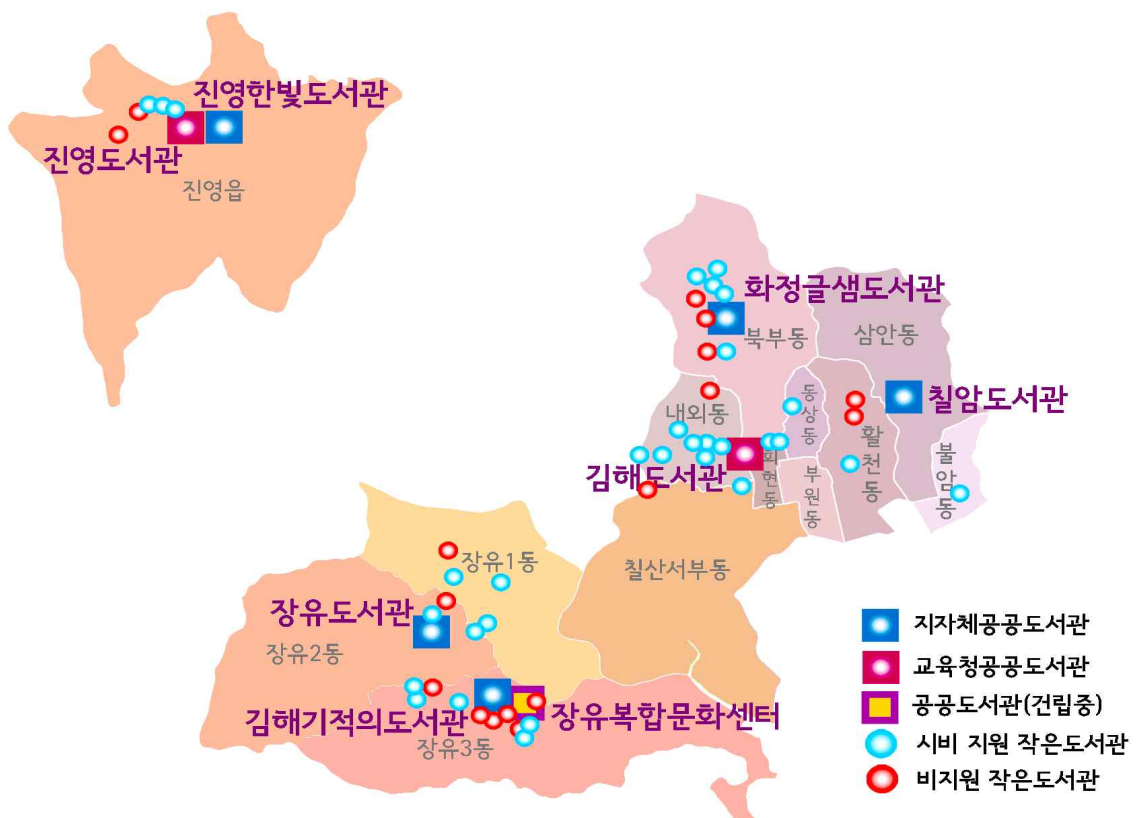
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특히 비지원 도서관의 운영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또한 적절한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지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없음.

④ 도서관 서비스 권역 중첩

- 김해시의 일부 지역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끼리 서비스 권역이 중첩되고 있음.
- 특히 북부동 화정글샘도서관 주변, 진영읍, 김해기적의도서관 주변, 내외동 일대, 2017년 현재 건립 중인 장유복합문화센터 주변은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끼리도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가 예상됨.

<그림66> 김해시 도서관 밀집지역



- 이 문제는 공동주택단지 개발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었고, 김해시가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한 결과에 따른 것임.

※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해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표9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⑤ 작은도서관별 운영 편차 심화

- 2016년 12월 기준으로 시비 지원 작은도서관 36개소의 월간 평균 대출자수는 90.4명, 월간 평균 대출권수는 443.6권임(책두레 서비스 이용실적 제외). 36개소 중 대출자수가 평균 이하인 곳은 25개소, 대출권수가 평균 이하인 곳은 24개소로, 2/3 가량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하루에 대출자수가 1명 이하인 곳도 5개소로 나타나 작은도서관별 운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100> 시비 지원 작은도서관의 월간 대출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상호대차 제외)

시비 지원 작은도서관수	총 대출자수	총 대출권수	1관당 대출자수	1관당 대출권수
36개소	3,254명	15,969권	90.4명	443.6권

출처 : 김해시 제공자료

⑥ 농촌지역 이용자 확보의 어려움

- 대부분 농촌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은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애초에 농촌지역의 인구가 적은 이유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층인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과 학교도서관 활성화도 작은도서관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귀가시간이 늦어짐. 또한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서 더 편하게 책을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함.

⑦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주민대표회의 간의 갈등

-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일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주체와 주민대표회의 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 작은도서관의 운영 권한에 관한 문제로, 운영주체와 주민대표회의 간에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는 것으로 파악함.
- ※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운영위원의 위촉 권한을 관장이나 기존 운영위원회에 부여할 것, 작은도서관과 주민대표회의 간 마찰이 있을 시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① 작은도서관 평가시스템 도입

-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② 비지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실시 및 통합도서관시스템 도입

- 2017년 현재 김해시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18개소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7개소, 상가 작은도서관은 2개소, 교회 작은도서관이 9개소임.
- 비지원 작은도서관 중 교회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9개소 중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는 곳은 시비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옳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비지원 작은도서관도 통합도서관시스템에 포함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도서관자료의 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교회 등 종교시설 안에 설치되어있는 작은도서관(9개소)은 특정 주민들만이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들 작은도서관을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김해시는 현재까지 종교시설 작은도서관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③ 문화소외지역 작은도서관의 공립화

- 면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의 작은도서관은 대체로 이용자 수가 적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이들 작은도서관은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

- 따라서 김해시가 이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공립화하여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총액인건비제 등의 이유로 김해시가 직영하기 어려울 경우, 도서관 전문 단체나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반드시 해당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추진해야 함.

④ 작은도서관의 특성화 유도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특색에 맞게 작은도서관의 특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통합도서관시스템과 책두레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이 같은 책을 소장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특성화를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특성화는 크게 주제 특성화와 이용자 특성화로 나눌 수 있음. 주제 특성화는 생태·환경, 그림책, 미술, 음악, 문학, 인권, 평화, 다문화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장서를 갖추고 프로그램을 실시함.
- 이용자 특성화는 어린이,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 특정 이용자층에 맞게 장서를 갖추고 프로그램을 실시함.
- 개별 작은도서관의 특성화 방향은 지역 주민의 특성 및 인구분포,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 지역의 역사, 운영주체의 철학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특히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밀집한 지역은 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가 중첩되기 때문에 특성화가 필수라고 볼 수 있음.

- 도서관 밀집지역의 작은도서관은 불필요한 자원 소모를 줄이기 위해 자연소멸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운영자와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함.

⑤ 작은도서관 관계자 교육 강화

- 작은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관장과 전담인력, 자원봉사자, 주민, 운영위원이라 할 수 있음. 작은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철학, 노하우 등에 따라 그 운영 방향과 이용 행태, 활성화 정도가 달라짐.
-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자, 전담인력,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의 이용자에서 협력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⑥ 작은도서관 홍보 강화

-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대출자, 프로그램 참가자 등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작은도서관이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밀착형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을 더 친숙히 느끼게 하고, 시민들 가까이에서 양질의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볼만 함.

- 김해시 작은도서관의 공통 BI 개발
- 김해시 도서관지도(접이식 팜플렛) 제작
-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작은도서관의 홍보활동을 적극 권장(평가에 반영)

- 작은도서관 홍보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활동소식, 양질의 도서정보, 다양한 프로그램과 독서캠페인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⑦ 작은도서관 지원 펀드 조성

- 작은도서관의 부족한 운영비 보충하고, 시설 개보수와 같이 개별 작은도서관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펀드는 시민과 기업의 후원금, 김해시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이는 시민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 지역 도서관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음.

* 참고사례 - 런던의 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

- 런던시의 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은 런던시와 스페이스하이프가 협력하여 만든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2014년에 시작됨. 2016년 기준으로 200만 파운드(약 29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중 60% 이상의 금액이 시민펀드로 모금되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여 지역개발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런던시가 예산의 75% 이하 기준으로 후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아이디어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충당됨. 모금액 총액이 예상금액을 넘어서면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들이 실행함.

- MCCP는 런던시의 많은 유휴공간을 야외시장, 영화관 등의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하였고, 런던시의 도시재생과는 MCCP의 파급효과를 자체 분석하여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오프라인 플랫폼을 함께 구축해나가고 있음.

런던 클라우드펀딩 도시재생 프로그램 모델의 구조도



3. 작은도서관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

1) 작은도서관 평가시스템 도입의 의의

-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책 마련으로 전국 작은도서관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2015년 기준 총 5,595개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작은도서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의 질적 향상,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작은도서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김해시는 2007년부터 시비를 들여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 사용 내용이나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특히 시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에 대한 파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작은도서관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고,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김해시 작은도서관 평가시스템 도입의 유의점

① 줄 세우기를 위한 평가가 아닌, 개선과 발전을 위한 평가 실시

- 작은도서관 평가의 목적은 작은도서관 운영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따라서 각 작은도서관 운영의 성과와 한계, 강점과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게 하는 평가

가 되어야 함.

- 이는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여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함.

② 작은도서관 운영자, 실무자, 이용자와의 충분한 협의

- 작은도서관 평가는 작은도서관 현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 현장과의 논의 없이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는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
- 작은도서관 안에서도 관리자와 실무자 등 관계자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작은도서관과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표를 개발해야 함.
- 또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 논의구조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③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실시

- 국가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실태를 조사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는 대부분 정량평가에 그치고 있음.
- 작은도서관이 그 목적과 가치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 도서관자료의 질이 얼마나 우수한지,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작은도서관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량적인 평가로는 측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실시하여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공동주택/단독주택지역/농촌지역을 분리 평가

- 작은도서관은 위치와 설립 유형에 따라 주변 인구 수, 인구 구성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다름.
 - 아파트도서관은 농촌지역 작은도서관보다 이용자수가 당연히 많을 거라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유형에 따라 공동주택/단독주택지역/농촌지역 세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은 그 목적과 역할이 다름. 따라서 향후 공립 작은도서관 수가 증가할 경우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3) 김해시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구성안

<표101> 김해시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구성안

평가항목	배점	설 명
전담인력 확보	15	작은도서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 역량을 가진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함
자원봉사 활성화	12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함
도서관 환경	25	작은도서관은 주민 모두가 제약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체계적 운영	25	작은도서관은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함.
홍보	10	작은도서관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이용할 있도록 유도해야 함.
재정	20	작은도서관은 자발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자료관리	30	작은도서관은 정보복지와 자료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질의 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함.
자료대출	15	작은도서관은 누구나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도서관자료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대출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함.
지역사회와의 협력	15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협력과 연계를 도모해야 함
프로그램 운영	25	작은도서관은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해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
탐구와 학습	20	작은도서관은 전담인력, 자원봉사자의 탐구와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총점	212	

<표102> 김해시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세부항목

항목	지표	배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212			
전담 인력 확보 (15)	전담인력 배치 여부	10	있음	10	전담인력: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유급/무급 상관 없음)
			없음	0	
	전담인력의 전문성	5	사서자격증 소지	5	<관련자격증>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평생교육사
			관련 자격증 소지	2	
			없음	0	
자원 봉사 활성화 (12)	상시자원봉사자 수	5	6명 이상	5	1주일에 5시간 이상 봉사자
			3~5명	2	
			3명 미만	1	
	자원봉사자 1인당봉사시간	5	50시간 초과	5	해당 도서관에서 봉사한 시간
			30시간 이상	3	
			30시간 미만	1	
	자원봉사자의 실무회의참여	2	있음	2	연간
			없음	0	
	<가점>전문분야 봉사단체 구성.활동 여부	5	전문분야 봉사단체 구성.운영	5	예)큰책만들기&읽 어주기, 책보수,자체북스타 트등
도서관 환경 (25)	개관시간	10	주 40시간 이상	10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3	
			주 20시간 미만	0	
	주말개관	5	토.일요일 중 1일 8시간 이상 개관	5	
			토.일요일 중 1일 4시간 이상 개관	2	
			4시간 미만 개관	0	
	도서관 전용 공간	5	도서관 전용	5	
			타시설과 병용	0	
	식별안내문	5	외벽간판, 이용안내판 모두 설치	5	유리창시트지부착 은 외벽간판에서제외
			외벽간판, 이용안내판	2	

			중 1개 설치		
			없음	0	
체계적 인운영 (25)	연간운영계획 수립	5	수립	5	
			미수립	0	
	문서화된업무지침 (운영매뉴얼)	5	있음	5	
			없음	0	
	운영일지 작성	5	작성	5	
			미작성	0	
	운영위원회	10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10	
			반기별 1회 회의	4	
			연 1회 회의	2	
			구성만	1	
			운영위원회 없음	0	
		5	<가점>주민대표자의 참여	5	주민자치위원 입주자대표위원 공동체대표위원등
홍보 (10)	자체 소셜 미디어 개설, 홍보	5	월 5건 이상	5	카페, 밴드, 페이스북 등
			월 3건 이상	3	
			없음	0	
	통합홈페이지에 홍보게시물등록수	5	연간 12회 이상	5	김해시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연간 7~11회	2	
			연간 3~6회	1	
			연간 3회 미만	0	
재정 (20)	연간운영예산 (김해시지원금제외)	10	400만원 이상	10	주민자치위원회, 기업체, 임대위 등으로 부터 공과금(전기료, 수도세) 대납이 있는 경우
			250~399만원	7	
			100만원~249만원	4	
			100만원 미만	0	
		5	<가점> 지역사회의 운영비 지원	5	
	공모사업 지원 횟수	5	5회 이상	5	정부, 민간, 김해시 지원사업 포함
			3~4회	3	
			1~2회	2	
			없음	0	

	후원행사 개최 여부	5	개최함	5	
			개최 안 함	0	
자료 관리 (30)	신간도서 비율	10	301권이상	10	최근2년이내출간도 서
			201~300권	7	
			100~200권	4	
			100권미만	1	
	수서횟수	5	월 1회 이상	5	(장서관리계획수립 에따른) 정기적인구입주기
			분기별 1회	3	
			반기별 1회	2	
			연 1회	1	
	자료선정위원회	5	월 1회	5	
			분기별 1회	3	
			반기별 1회	2	
			연 1회	1	
			미구성 혹은 개최 안 함	0	
	장서점검 실시 여부	5	실시	5	연간
			미실시	0	
	장서의 질	5	높음	5	1.이용자계층적합도 2.특화장서비율 3.주제도서배가
			중간	3	
			낮음	1	
자료 대출 (15)	대출권수	10	상위20%이상	10	자관대출 + 책두레 발송
			상위20~40%	7	
			상위40~70%	5	
			상위70~100%	3	
	대출기록처리	5	도서관리 프로그램 이용	5	
			수기 혹은 엑셀 이용	0	
지역 사회 협력 (15)	김해시독서문화진 흥사업 참여횟수	10	5회 이상	10	<대상사업예시> -김해의책말하기대 회 -북스타트자체추진 -축제부스운영등 *공모사업은제외
			3~4회	7	
			1~2회	3	
			없음	0	
	타기관,단체와의 협력정도	5	높음	5	MOU체결후지속적 인협력사업추진
			중간	3	
			낮음	1	

프로그램 운영 (25)	독서프로그램 운영횟수	7	상위30%이상	7	
			상위30~60%	5	
			상위60%미만	3	
	독서외프로그램 운영횟수	3	상위30%이상	3	학습(자격증), 취미, 실용 위주
			상위30~60%	2	
			상위60%미만	1	
	프로그램만족도조 사 실시여부	5	90% 이상	5	프로그램별 설문 조사 실시 여부
			50~90%	2	
			50% 미만	1	
	프로그램의 (구성)질	5	높음	5	
			중간	3	
			낮음	2	
	독서동아리 구성.운영횟수	5	3개 이상	5	대상:월1회 이상 정기 모임
			1개 이상	3	
			없음	0	
	<가점>소외계층대 상 프로그램운영	5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탐구와 학습 (20)	관장의 직무관련교육참여	5	10시간 이상	5	외부기관(단체) 포함
			5시간 ~ 9시간	3	
			1시간 ~ 4시간	2	
			없음	0	
		5	<가점>김해시 주최 교육 참여	5	
	전담인력의 직무관련교육참여	10	20시간 이상	10	외부기관(단체) 포함
			10시간 ~ 19시간	7	
			5시간 ~ 9시간	4	
			1시간 ~ 4시간	2	
			없음	0	
		5	<가점>김해시 주최 교육 참여	5	
	상시자원봉사자 1명당 교육참여	5	10시간 이상	5	<상시자원봉사자> 1주일에5시간이상 봉사자 (운영위원포함)
			5시간 ~ 9시간	3	
			1시간 ~ 4시간	2	
			없음	0	
현장 평가	<가점>특성화 정도	5		5	
	<가점>발전 가능성	5		5	

부록

1. 김해 브레인스토밍
2. 김해시립도서관 사서관담회
3. 김해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담회
4. 차미옥 인터뷰
5. 홍미선 인터뷰
6. 조강숙 인터뷰
7.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 설문지(성인)
8.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 설문지(학생)

<부록1>

‘책 읽는 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록

일시 : 2017년 4월 11일 14시 ~ 16시

장소 : 김해시청 사업소동 3층 회의실

참석자(가나다순) :

강홍준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김영란 교육희망 김해학부모회

김영백 (사)한국서점연합회 김해시서점조합 조합장

김은아 김해여성복지회 이사

김진수 김해시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김창준 김해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귀순 장유도서관 북스타트 활동가 대표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은희 김해도서관 문헌정보과장

장상호 경남전자정보도서관 관장

차미옥 장유도서관 관장

최경림 능동초등학교 교사

하윤근 경남전자정보도서관 과장

안찬수 >

김해시가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한지 10년이 되었다. 오늘의 자리는 앞으로의 10년을 고민하는 자리이다. 또한 독서 및 도서관문화가 발전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해나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오늘 교육계에서도 여러 분이 오셨다. 평소의 생각, 비전, 제안 등을 편안히 말씀해주셨으면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과제 도출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강홍준 >

경상남도교육청은 제2청사의 1층을 북카페로 만들어 개방하고 있다. 150평 규모에 1만권의 책을 갖췄고, 주로 어린이 독서공간, 동아리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이를 사례로 관공서 등의 시민개방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인문학읽기전국대회 모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전국 독서토론대회도 비경쟁독서 토론대회로 바뀌었는데, 이는 의미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기업과 연계하여 시민을 위한 전국인문

학대회를 실시하고, 재정지원 협력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가능하면 확대하려 애쓰고 있는 중이다.

김창준 >

지금 맡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행복교육지구는 타지역에서는 혁신교육지구라 불린다. 교육이 지나치게 학교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김해시는 경남에서 최초로 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그러나 아직 타 기관 및 시청과의 소통이 원만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지금은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마을학교’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등의 기관도 그 후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닌, 다른 부분의 역할도 담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최경림 >

김해시청은 몇 년간 200만원씩 ‘책 읽는 학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하다. 학교에서는 담당자의 열의만으로도 원활한 독서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2008년에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앞서 나온 인문학읽기전국대회는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정도로 내실 있게 진행됐는데, 고등부를 넘어 초등·중등도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방과 후 교사들의 독서동아리 모임 공간이 부족하다. 시에서 가까운 공공도서관에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김창준 장학사께 제안 드리고 싶다. 지금 행복교육지구에서 행복학교·혁신학교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독서 및 도서관 중심의 사례가 전국 단위로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독서와 도서관을 연계하여 구상해주시면 좋겠다.

장상호 >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은 김해에 소리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데, 시각은 가장 제약이 큰 부분이다. 다른 장애 유형은 공공도서관에서 수용이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 서비스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점자나 수화 등을 인지시켜 장애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소리작은도서관은 인원이 1명뿐이기에 어려움이 많다. 마지막으로 음성도서, 데이지도서 등을 시각장애인에게 한정하지 말고 노인 계층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하윤근 >

청소년 대상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이와 관련된 강의 요청은 많지만 너무 산발적이다. 김해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자아형성 과정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도서관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리작은도서관은 카페처럼 되어있으니,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된다.

김은아 >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책 이야기를 하고 싶다. 초고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의 도서관은 여전히 아동도서, 일반도서 위주다. 노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하다. 성인문해 또한 마찬가지다. 시민참여와 성취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 아동도서를 통해 노인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버리는 책을 활용할 수 있는 책 나눔 행사를 크게 하면 좋겠다.

김영백 >

도서관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이용자 수는 한정적이다. 새로운 이용자 유입이 부족하며 홍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유서점 입구에는 학원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광고란이 있다.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홍보물을 서점에 비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점은 판매가 주목적이다 보니 연계 과정에서 세심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나눔 행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다. 일본은 시차원의 재활용센터를 갖추고 재활용품을 모아 수리한다. 판매하지는 않지만 시민 누구나 빌려 쓸 수 있다. 우리 역시 중고책으로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 >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면서 장소에 대한 고민이 크다. 작은도서관에 모임 장소 제공을 요청했는데 대여조건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 작은도서관 소속 독서동아리로 등록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우리가 거절했다. 도서관 소속이 아니어도 도서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독서모임은 소통이 화두다. 서울의 '수유너머'를 보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독서모임을 진행한다. 김해시도 아이와 어른을 넘어선 소통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박귀순 >

북스타트 활동가로서 말씀드리겠다. 북스타트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아이들의 참여 기회가 적다. 그러나 규모를 더 늘리자니 힘이 부친다. 독서는 영유아 때부터 시작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작은도서관에서 북스타트를 진행한다면 많은 엄마들이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빠들의 북스타트도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된 행복교육지구에 아이디어를 더하고 싶다. 부모를 대상으로 간단한 놀이교육을 진행하여 방과 후 놀이교실을 함께 진행해도 괜찮을 것이다.

김진수 >

10년 전 김해에서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한 이후로 작은도서관이 55개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17개 기관은 김해시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김해시 지원금은 제한이 많아 사서 급여조차 주기 벅차다. 작은도서관의 열악함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다음으로 홍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수막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홍보를 극대화해야 한다. 끝으로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 모임 장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시청을 통해 김해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주시면 좋겠다. 절차와 조정만 거친다면 공간을 최대한 개방할 수 있다.

이은희 >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다. 김해도서관에는 하루에 4,200명의 이용자가 찾는다. 이용자 수는 늘지만, 자료대출은 감소하고 있다. 프로그램 이용자가 자료이용자로 흡수되지 않는다. 교육감이 독서와 도서관에 관심이 많음에도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 다 같이 협조해야 한다. 어찌면 <책 읽는 도시>라는 슬로건도 바꿔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협력에 관한 부분이다. 김해도서관은 서비스영역이 넓어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진행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시립도서관이 5곳이나 있지만, 지리적 여건과 소속 문제로 협력에 어려움이 많다. 시민들이 도서검색을 할 때 편의를 도모하도록 시스템 통합이 필요할 것이다. 프로그램도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이다. 김해는 지역 특성상 다문화가정이 많다. 김해도서관은 다문화 계층이나 취약계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특히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 흔히 장애도가 가장 낮다고 여겨지지만, 심각한 증상의 사람들이 많다.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 북스타트를 제안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어느 순간 김해에서 <책 읽는 도시>의 홍보가 사라지고 있다. 시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등의 관중을 불문하고 종합적으로 홍보하였으면 좋겠다. 리딩네트워크를 통한 한 책 읽기, 쓰기 활동 등을 권하고 싶다.

차미옥>

앞서 말씀하신 것 중 많은 일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했다. 2007-2010년까지의 장유도서관의 사업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도서관 사서로서 도서관은 책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인문학, 북스타트 등도 프로그램 이용자가 책으로 오게 하는 장치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듣고 관련된 책으로 이끄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다.

장유도서관은 직장인 인문학과 실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기업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직장인 인문학이 도서관을 넘어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장유도서관은 2008년에 실버자료실을 개설한 적이 있다. 영유아 이용자가 담보상태인 것에 반해 노인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단순한 안락한 공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도서관과 함께하는 인생이모작’이다. 재테크, 웰다잉, 줄혼, 치매예방 등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장유도서관 1층에는 알뜰도서 교환 장터가 있다. 그러나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방치 아닌 방치 상태인 만큼, 앞으로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홍보 이전에 도서관 이용자가 많이 없다. 도서관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자를 독서 이용자로 끌고 가는 문제는 고민을 넘어 함께 공유해야 한다.

안찬수 >

다들 저마다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그러나 서로 협력할 수도 있었음에도 소통과 홍보가 부족해서 한계가 드러났다. 요약하여 말씀드리겠다. 교육청과 기업의 협력으로 인문학 강좌가 개설됐다는 강홍준 장학사의 이야

기는 흥미로웠다. 박종훈 교육감은 독서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부터 EBS와 연계하여 비경쟁토론을 진행하는 중이기도 하다. 최경림 선생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인문학읽기대회가 고등학교뿐만이 아닌, 초·중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동아리 공간은 언제나 고민이 되는 문제다. 행복교육지구는 매번 아이들의 책읽기 중심으로 갈 것을 제안했지만, 아직 사례가 나오지 않아 죄송스럽다. 경남전자정보도서관, 소리작은 도서관을 교육청과 연계시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장애인이 어떻게 책을 읽는지에 대한 문제는 비장애인 또한 고민해야 한다.

김은아 선생께서 노인 책읽기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셨다. 다른 책읽기 활동과 성인 문해교실을 연관시키면 의미 있는 활동이 나올 것이다. 또한 책 나눔 행사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독서문화진흥계획’에도 관련계획이 있었지만 쉽지가 않다. 김해시에 공간이 있다면 헌책을 모아 책을 교환하는 페스티벌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영백 선생은 홍보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다. 우리는 도서관, 학교, 서점 등의 책과 관련된 문화교육기관을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김영란 선생께서는 동아리에 관한 고민이 많으시다. 남녀노소 독서모임은 일종의 프로그램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직접 도전해서 만들 수도 있다. 박귀순 선생은 북스타트를 작은도서관으로 확대시키자는 말씀을 하셨다. 공동연구를 하면 좋을 부분이며, 놀이 프로그램은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진수 관장은 작은도서관협의회장으로서, 지원금 문제, 홍보 문제 등을 얘기하셨다. 작은도서관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는 문제는 각 기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이은희 선생은 슬로건을 변경하자는 큰 제안을 주셨다. 소속기관은 다르지만, 협력차원의 사람·자료·프로그램의 공동기획은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다. 책두레 서비스 역시 검색이라도 가능하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홍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홍보가 약해진 건 사실이다. 김해시 전체로 보면 ‘책 읽는 도시’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다. 또한 여전히 도서관을 찾지 않는 이용자도 많다. 그런 분들을 끌어들이는 게 큰 과제다.

‘책 읽는 도시’ 초창기에 김해시에 제안했던 게 있다. 15년 전 도서관계는 일본 우라야스시 도서관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우라야스시는 일반회계의 1%를 도서관에 투자한다. 그러나 김해시는 도서관이 확충기였기 때문에 최소한 2%를 투자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만큼 예산이 확대되진 않았지만, 김해시

는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 성장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비록 국가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동력이 떨어졌지만, 이는 김해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강홍준 >

경남의 도시 중에서도 김해는 독서토론이 정착된 분위기이다. 김해교육지원청에서도 초·중등학교 독서토론 행사를 지원한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주시면 좋겠다. 책 쓰기 프로그램도 지원이 가능하다. 경남에서는 작년에 학생 저자의 책 123권이 나왔고, 그중 3권은 ISBN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출판은 경비가 발생한다, 김해시에서 도울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다음으로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제안해보겠다. 간헐적으로 책을 읽는 독자와 비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생활의 장으로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작은 카페도 책을 비치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는다. 카페 운영자들을 독서활동의 주역으로 끌어들이어도 좋을 것이다. 공모를 통해 ‘책 읽는 카페’로 인증시켜주는 등의 환경을 구성해준다면, 간헐적 독자가 독자층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찬수 >

많은 독서프로그램이 지속적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후감 쓰거나 골든벨 등이다. 간헐적 독자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독자화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을 펼친 바가 있다. 지속적 독자는 책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지만, 간헐적 독자는 관심분야 등을 통한 유도가 필요하다.

김창준 >

도서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다. 최경림 선생께서 행복학교가 독서 및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셨다. 행복학교 사업에서 독서와 도서관의 중요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김해교육지원청은 행복교육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다. 시민단체, 복지단체, 노동인권 부분 등의 여러 자원을 조사하고 있다. 도서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

최경림 >

경남점자정보도서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올해 김해의 책은 후천적 시각장애 학생의 이야기다.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강홍준 장학사의 북카페 공모 제안이다. 아이디어를 더 확장하여, 순천 지역 도서관처럼 테마를 만들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독서인구 부분이다. 프로그램 이용자가 평생독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고민이다. 그러나 이 또한 기다림이 아닐까? 당장 우리 학급부터 차근차근 나아가 학교를 넘어 지역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여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했던 것처럼 독서수업과 동아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장상호 >

청소년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공모할 생각이다.

하윤근 >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은 음성도서과 점자도서를 제작한다. 기간도 오래 걸리며 많은 양의 도서 제작은 어렵다. 그렇기에 베스트셀러 위주로 제작하게 된다. 서비스 및 지원 확대를 위해 김해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주면 좋겠다. 저작권 문제로 현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

안찬수 >

그 부분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사실은 가능하다. 출판사의 반발이 있다. 출판사의 제작파일만 있으면 음성·점자로도 제작이 가능하지만, 유출 우려로 데이지 형식 파일을 넘기지 않는다. 좋은 제안이지만 김해시에서 풀기는 어렵다.

김영란 >

노인층에 그림책을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모임도 출판에서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 그림책 만들기 강좌에서 더 나아가 출판을 추진해보고 싶지만, 동아리 모임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시 차원에서 김해시의 출판사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차미옥 >

준비하는 게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김진수 >

36개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을 합치면 독서전문가만 400명이다. 이들 모두 열성적인 사람들인 만큼, 조금 더 많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노인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에 대해 건의해주시길 바란다.

이은희 >

김해는 분명한 ‘책 읽는 도시’로, 관 주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독서문화운동이 도서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출판문화 쪽으로도 진행됐으면 좋겠다. 서점, 독서동아리, 북스타트 활동가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해시가 계속 인문학을 교육하고 육성하여, 사람들이 책 읽는 문화시민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차미옥 >

김영란 선생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우리는 5주 과정으로 그림책 만들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작품 2개가 더미북으로 나왔다. ISBN의 등록은 1년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면 고려해볼 것이다. 그게 누적되면 1인 출판이 된다. 이번에 독립출판을 지원하는 곳과 접촉해보려 한다. 부여, 진주, 제주를 능가하는 그림책이 김해 엄마들한테 나오면 좋겠다. 이은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 주도형의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서든 정책적으로 충분히 도울 것이다.

안찬수 >

값진 얘기들에 대해 감사드린다. 김해가 우리나라의 독서 및 도서관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기까지의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귀중한 고견을 정책으로 잘 담아내겠다. 오늘의 브레인스토밍은 10년 뒤를 기약하면서 마치겠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부록2>

김해시립도서관 사서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7년 3월 8일 15시 ~ 17시 30분

장소 : 화정글샘도서관

참석자(가나다순) :

강보람 김해시청 도서관지원팀 주무관

길경덕 화정글샘도서관 주무관

김은엽 화정글샘도서관 주무관

김정순 장유도서관 주무관

김지현 진영한빛도서관 주무관

서동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간사

송영주 장유도서관 주무관

송희정 칠암도서관 주무관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윤인영 김해기적의도서관 주무관

정주연 화정글샘도서관 주무관

편민아 장유도서관 주무관

안찬수 >

김해시와 미국의 시애틀(Seattle)은 규모가 비슷하다. 시애틀의 도서관 정책을 눈여겨보면, 사서 데보라 제이콥스(Deborah Jacobs)가 눈에 띈다. 그녀는 1990년대 초에 도서관발전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만 각하됐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시민참여토론을 수십 회를 진행했다. 도서관 건립, 자료확충, 어린이실 확립, 게이자료실 등에 관한 문서를 만들었고, 도서관 건립 확대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10년에 걸친 계획이었다. 오늘 자리를 만든 것은 김해가 의미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김해는 230개 가까운 지자체 중에서도 독서 및 도서관을 시책으로 처음 펼친 도시다. 지난 10년간 잘한 것과 부족한 것이 있다. 근무자로서 느꼈던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 시 전체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평소 가지신 생각, 비전, 제안 등을 편안히 말씀해주셨으면 한다.

정주연 >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하기 어렵다. 공통과제인 인력문제가 제일 시급하다.

교육청과 지자체 도서관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양적으로는 많이 늘었지만 인력이 적정하지 않다. 특성화된 도서관이 거의 없을뿐더러, 교육 시스템부터가 전문사서를 배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에 급급하다 보니 현장에서 연계사업을 펼치기도 어렵다. 김해시의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다. 사서에 대한 무용론과 회의까지 나온다. 김해시도 더 이상의 도서관 확충보다는 인력 확충, 사서교육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심화가 필요하다.

안찬수 >

도서관의 이원화는 정부에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김해에서 사례를 한 번 만들어보자. ‘책읽는도시’를 시작할 때도 이원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교육청도서관이 통합도서관시스템 안에 들어오기로 합의가 됐었다가 결국 무산되었다. 자료라도 함께 공유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길경덕 >

사서가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내 업무가 전문성을 갖췄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전문사서의 역량을 제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사서와 공무원의 역할 사이에서 혼동된다. 사서로서의 기대치가 있지만 현실에서 너무 먼 이야기다.

안찬수 >

도서관별로 도서를 각각 구입하는가? 희망자료 및 참고자료 부분에서 공동 협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김지현 >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이라 생각한다. 작년에 공동수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각 도서관의 신간도서는 대부분 같다. 같은 책이 작은도서관에서만 30권이 넘게 나올 때가 있다. 큰 낭비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가 시청 소속이다 보니 보고할 내용이 너무 많다. 사서로 들어왔음에도 사서가 아닌 일을 더 많이 한다. 교육청 도서관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고민이다.

안찬수 >

미국 워싱턴DC의 공공도서관은 각 도서관의 전문영역이 있어 같은 작가의

책을 사더라도 크게 중복되는 일이 없다. 아직 김해가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다.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마다 같은 책을 전부 갖출 필요는 없다. 도서관별 특징과 이용자 행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베이스가 부족하다. 공무원과 사서 사이의 정체성이 모호하지만,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면 자기 영역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정주연 >

책보다는 행사가 더 중요하게 되어 있다. 책은 중요한 평가대상이 아니다.

박현주 >

사서로서의 역할이 아닌 다른 업무에 회의감이 든다. 그중 하나가 문화강좌로, 비중이 너무 크다.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알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사서가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도서관에 문의전화가 올 때도 대다수가 문화강좌에 대한 내용이다. 문화센터와 도서관 사이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본다.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분리할 필요가 있다.

서동민 >

여주시에서 프로그램 전담 사서를 별도로 채용한 사례가 있다.

김지현 >

사서로서 문화강좌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강좌수가 많으면 잘된다는 시선이 있다.

강보람 >

도서관도 다른 부서처럼 성과를 수치화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안정적으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된다. 참가자가 없어 강좌가 취소되는 일이 생기면 곤란해진다. 또한 시립도서관 3개관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김해시는 시청 안에 정책부서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으나, 지금은 역할이 축소되었다. 사서직 인원이 늘어나 행정직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한다.

안찬수 >

김해시는 ‘책읽는도시’ 정책을 따라 처음으로 정책부서를 만들었다. 그 이전에는 사서직이 본청에서 일한 사례가 없었다. 도서관 실무와 정책업무는 엄연히 다르며, 그 경험은 개인에서 그치는 게 아닌, 김해시 사서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부서를 통해 사서들이 순환보직으로 오가며 전체 사서 직렬이 안목을 갖추는 때, 도서관 발전은 앞당겨질 것이다.

윤인영 >

김해기적의도서관은 타 시립도서관보다 특성화 프로그램이 많다. 하지만 평가에 치이다 보니 새로운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 또한 경쟁구도이기에 타 도서관의 공모사업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계약직이 많아서 업무 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순환보직도 좋지만 각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배치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좋은 프로그램의 공유도 좋지만, 색깔이 없어지는 건 지양해야 한다. 기적의도서관은 가족놀이, 생태, 자연의 세 가지 색깔을 지닌다. 자연이 받쳐주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은 도서관까지 같은 색깔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각 도서관이 저마다의 색깔을 지닐 수 있도록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안찬수 >

어린이도서관은 타 도서관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 직원도 충분해야 하고, 자원 활동가도 함께 해야 한다. 학부모를 부모로 바꾸는 게 도서관의 역할이다. 학부모는 경쟁의 마인드가 있다. 도서관은 경쟁의 공간이 아니다.

김정순 >

김해시는 책두레가 활성화되었는데 몇몇 문제가 있다. 빌린 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용자가 책두레를 남용하는 것 같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책 읽는 운동으로 집중되면 좋겠다. 프로그램은 타 기관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다. 결국은 장서가 중요한데, 특성화를 위해서는 사서의 역량이 중요하다. 근무와 병행하여 전문성을 갖추는 여건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순환보직을 하다보면 내 역량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과 장서의 특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척도로 비교되지는 않을 것이다.

안찬수 >

고양시는 작년에 사서들끼리 토론을 진행하여 도서관을 특화시켰다. CI도 새

로 만들어 홍보물에 활용하고 있다. 김해시립도서관에도 CI를 제안하고 싶다.

편민아 >

김해시의 전체적 분위기는 양적팽창을 우선시하고 있다. ‘책읽는도시’를 이끈 우리 사서들의 업무 만족도가 낮다. 경쟁구도 위주이다 보니 협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회의감도 크다. 상호간의 협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인력 문제, 주제별 수서 등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어야 전문성을 더 드러낼 수 있다.

송영주 >

도서관 수에 비해 직원 수가 너무 적다. 업무량이 많음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자료를 갖추고는 있지만,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김해는 단기간에 ‘책읽는도시’의 붐이 일어난 것에 비해 도서관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민간조직이 빈약하다.

안찬수 >

유종필 구청장이 있는 관악구를 사례로 들고 싶다. 관악구는 도서관을 기반으로 동아리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킨다. 도서관을 사랑하고 열성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코어역할을 한다.

송영주 >

장유도서관은 자발적인 시민모임을 갖췄지만, 다른 기관은 협력할만한 조직이 없다. 활성화되고 같이 커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많이 부족하다.

안찬수 >

특성화의 재점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고양시는 사서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특성화를 고민했다. 권역으로 17개인데 4가지 주제가 있다. 사서들이 지시가 아닌 주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서동민 >

고양시는 처음에 도서관별로 하나씩 특성화 주제를 정했지만 막상 해보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사서들이 주기적으로 내부회의를 통해 도서관·지역·주민의 특색에 맞는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모든 도서관이

특성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지금은 특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찬수 >

아직은 초기과정이다. 시 전체 사서들이 모이는 자리가 필요하다. 실무만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김은엽 >

지난 10년의 시스템이 어느새 안정기에 접어든 느낌이다, 안정은 개인들을 평준화시킴과 동시에 앞의 문제와 연계된다.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같은 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당장 북스타트에 참여한 아이들만 생각해도 단계별 서비스를 고민해야겠지만, 평준화와 안정화 사이에서 흐려지는 게 있다.

안찬수 >

김해시 사서간의 협력, 교육, 연수 등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서로서 갖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1년에 한번이라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덴마크 어느 공공도서관에서는 티타임을 통해 업무 얘기를 나눈다. 오전시간임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 1년에 몇 번이라도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개별 직원이나 기관만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정책부서에서 조직해야 될 것이다.

정주연 >

정책부서는 이미 작은도서관 관리, 통합도서관 시스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을 지원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함께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김은엽 >

게기가 필요한 일이다. 2007년까지만 해도 업무가 분담되어 있어 모이는 자리가 잦았다. 우리끼리 모으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송희정 >

같은 맥락으로 직원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기적으로 각자의 도서관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질 수 있는 게기가 있으면 좋겠다.

안찬수 >

업무를 잘 하다가도 한번 매너리즘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렵다. 김해시 서서들끼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인력문제가 핵심으로 다가온다. 그건 한계가 아니라 조건이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장차 중책을 맡을 분들이신 만큼, 방향 및 방향을 놓치지 말고 계속 가져가면 좋겠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부록3>

김해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담회 회의록

일시 : 2017년 3월 7일 19시 ~ 21시 30분

장소 : 장유도서관

참석자 :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서동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간사

김해시 작은도서관 관장, 실무자, 운영위원 38명

서동민 >

올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책읽는도시'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과제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김해시 독서 및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김해시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겠다.

안찬수 >

작은도서관은 '책읽는도시'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이 바뀌고 시책사업도 굴절을 겪었다. 김해시는 특이하게도 초기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하나로 묶어 통합시스템을 만들었다. 사업기관임에도 공립에 가깝게끔 김해시에서 일정액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비 지원받지 못하는 도서관도 있다. 김해시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김해시 작은도서관의 발전상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정리해 구체적인 발전 방안 등을 보고서에 담을 것이다.

관장 1 >

불암동작은도서관은 아파트가 아닌 곳에 있는 대표적인 도서관이다. 교통상으로 열악해서 이용자 수도 많지 않고, 딜레마에 빠질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좋은 말씀 듣고 배우려 한다.

관장 2>

김해시 작은도서관은 비교적 잘 운영되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용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발전시

켜야 한다. 예산 지원과 돈이 전부는 아니다.

관장 3 >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관장으로서 책임질 문제가 너무 많다. 또한 각자의 생업이 있어 운영위원 위촉부터가 힘이 든다. 관장을 맡을 사람이 없다보니 한 사람이 연임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관장들이 열정을 내도록 도와주는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열정페이로 싫어하듯이, 우리 또한 급여가 필요하다.

관장 4 >

‘책 읽는 도시’ 사업도 10년이 됐는데, 나는 책 읽는 도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오면서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다. 이 자리를 통해 10년간의 어려움이 자료로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관장 5 >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비를 지원할 때 김해시와 주민대표자회의가 협의를 통해 지원 범위와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면 좋겠다.

관장 6 >

김해의 작은도서관이 전국에서 가장 잘 지원되고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 도서관의 문제는 아파트도서관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 김해시 작은도서관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나 주민단체 등에서 구성할 수 있다고 나온다. 지금 우리 아파트는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자격상실 공문까지 받은 사람이 여전히 입대위 회장을 하고 있다. 그 직위로 운영위원을 몰아내고 작은도서관 운영권마저 가져가려 한다. 부당하다며 항의하고 시청에서 공문까지 줬음에도 해답이 없다. 조례 문구 하나가 도서관장과 운영위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입대위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부분은 김해시에서 해결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아니라 어느 작은도서관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운영위원 1 >

김해시 작은도서관 초기부터 일을 해오면서 숱한 고충을 겪었다. 입대위와의

갈등은 나도 겪어봤다. 안타까운 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의 입장이 어정쩡하다는 것이다. 민원을 넣어도 정확한 대처를 안 해준다.

관장 7 >

시 지원금이 초창기의 월 2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중이다. 전담인력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운영비는 적고 서가도 부족한데 시에서는 무조건 책을 사라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도서관별 중복되는 책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관장 8 >

김해시민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과 도서관이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 작은도서관도 많을수록 좋다. 그 비용을 김해시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김해시에서 연간 1조3천억 원을 쓰는데 작은도서관 예산이 총 9억 정도다. 최소 18억만 되어도 충분히 잘 운영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조례에서 운영위원회 관련 문구를 수정하면 좋겠다. ‘운영위원회를 동장이 구성해야 한다. 2년 후에 동장이 바뀌면 그 땐 또 다시 구성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처음에 도서관이 생길 때만 동장이 구상하고, 동장 임기 종료 후에는 도서관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관장 9 >

우리 아파트 도서관은 실무자와 관장의 갈등이 있다. 업무를 분리했음에도 마찰이 있다. 운영기금의 대부분은 사서의 봉급으로 나간다. 우리가 보기에는 책 수서가 아닌 다른 일은 봉사자가 감당할 수 있다. 결국 대표회의에 사서의 계약해지를 안건으로 올렸지만 반대표가 많아 무산되었다.

운영위원 2 >

관장직과 사서직의 갈등을 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서를 마냥 해고하자고 말하는 건 해결이 안 된다. 사서들도 고충이 있지 않겠는가?

관장 10 >

외곽·시골지역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비해 외부 지원이 부족하다. 김해시가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저희가 50만원이나 자부담을 해야 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임대위 등으로부터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외곽지역과는 차별을

뒤서 지원하면 좋겠다.

관장 11 >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비지원 도서관에게 가장 시급한 건 책두레 서비스다. 비지원도서관 전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된 곳부터 책두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관장 12 >

관장이 사서를 믿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사서를 믿고 힘을 실어주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작은도서관협의회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10년 이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전에 작은도서관협의회가 확실하게 시민단체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관장 13 >

전에는 아파트 입대위에서 매달 3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시 지원금까지 있으니, 예산을 쓰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에서의 지원금이 없어진데다가, 학교의 방과 후 활동과 겹치면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자생력을 키우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운영이 침체되면서 시에서 나오던 지원금도 깎였고, 입대위에 대한 지원요청도 거부당했다. 현재 바자회를 통해 간신히 금액을 채우고 있다. 시는 지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도서관 운영만으로도 벅차다.

관장 14 >

이용자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체제에 대해 잘 모른다. 도서관이 시의 것인지 개인의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관장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도 모른다. 시에서는 보조금만으로 충분하다 여기고, 입대위는 시 지원을 핑계로 지원을 거부한다. 자체적인 문화강좌와 수익금으로 행사를 꾸려나가고 있었지만, 그나마도 학교의 방과 후 활동으로 어려움이 있다.

관장 15 >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시 지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도서구입비로 써야 하는데, 이는 작은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우린

매 분기마다 적자가 나온다. 10%의 비율을 조정할 수 없다면 상·하반기로 나눠 구입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운영시간이다. 조례개정을 통해 운영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도서관은 맞벌이 주부가 많기에 저녁 이용자가 많다. 개관시간 관련으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사서의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잦다. 도서관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세 번째는 책의 MARC 작업이다. 업체에 따라 비용이 제각각이다. 시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주면 좋겠다.

관장 16 >

작은도서관 초기의 사랑방 이미지가 거의 사라졌다. 몇 년 전에 김해시청에서 작으도서관의 불만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집계된 결과물을 듣지 못했을 뿐더러 개선책도 나오지 않았다. 탁상행정과 실무 사이의 괴리가 크다. 우리는 지난 2014년에 사단법인 작으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 공모하여 도서관을 리모델링했다. 한정된 공간을 책으로 가득 채우고자 천장까지 닿는 서가를 들이려고 했으나, 작으도서관 기준을 근거로 거절당해 2,000권의 책을 폐기해야 했다. 각 도서관은 책을 기부 받거나 공모 받는 경우 또한 많기에, 책을 구입하더라도 배가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시 지원금으로 꼭 책을 사라 하지 말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관장 17 >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많이 부족하다. 난방비, 시설비, 신간구입비 등의 항목을 정해서 지원하면 유용할 듯하다. 상황이 어렵다보니 신간도서 구입을 위해 기존도서를 팔고 있다. 작으도서관은 신간 구입이 어려워 이용률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임대위와의 관계에 따라 도서관 상황이 달라진다. 다행히 우리 도서관은 임대위로부터 분기별 20만원을 지원받아 신간을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관장직을 위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 판공비나 봉사마일리지를 더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관장 18 >

‘책읽는도시’를 시작한지 어느덧 10년이다. 그러나 홍보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시민들은 김해시의 작으도서관 지원 여부를 잘 모른다. 관장이 무보수직이라는 것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0년이면 시스템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이용자 앞에서 도서관은 읍이 된다. 이용자도 시민이고 봉사자 역시 시민이다.

안찬수 >

김해에서 펼친 지난 10년간의 실험은 대단히 어려운 구상이었다. 여러분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법적으로 공동주택의 대표 기구는 관리사무소가 아닌, 주민조직인 임대위이다. 우리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법이 믿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위가 있다 하더라도,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모인 운영위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관장인데 정작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 여기엔 여러 질문이 녹아있다. 김해시의 실험이 어려웠던 이유는 작은도서관이 공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초기 정책 설계 때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이 사립이었다. 사립의 기본은 자율성이다. 이를 전체 시스템으로 묶으면서 간극이 생겼다.

아까 나온 의견으로 특성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김해시 도서관은 책두레 서비스로 통합되어있다. 특성화를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는 여건이다. 당장 가능한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노력이 더 필요하다.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민간영역에서 자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처럼 시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 분들께서 시의 지원을 증대하고, 관장직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다. 시의 지원을 늘리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 자립과 지원 사이에서 큰 판단이 필요하다. 그에 앞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 더 발언하실 분이 있는가?

관장 19 >

김해시의 지원 없이 작은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다. 비지원기관이기에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인문강좌, 자기개발 스터디 등을 진행한다. 작은도서관의 첫 번째 역할은 많은 사람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데 있다. 관장이라는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와 고민하는지에 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봉사직 관장이라도 교육이 필요하다. 절차를 밟아 사례비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치는 스스로 높이는 법이다. 시에 얘기할 부분은 정확히 얘기하고, 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안찬수 >

좋은 말씀 감사하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으로 마치겠다.(*).

<부록4>

차미옥 관장 인터뷰

일시 : 2017년 3월 7일 16시
장소 : 장유도서관 관장실
질문자 :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응답자 : 차미옥 김해 장유도서관 관장

안찬수 >

‘책읽는도시’가 올해로 10년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것 같다. 몇 가지 질문을 들고 왔다. 10년 전에 ‘책읽는도시’를 의욕적으로 시작했다. 그 사이에 진영한빛도서관이 개관하고, 김해시에서는 처음으로 사서직 관장이 되셨다. 총평을 들어보고 싶다. 지난 10년간의 경과, 발전과정, 한계를 짚 들려주셨으면 한다.

차미옥 >

‘책읽는도시’를 기획하면서 10대 시책을 세웠다. 일례를 살펴보자면, 북스타트, 김해의 책 사업,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작은도서관 지원, 책두레 사업, 기적의 도서관 건립, 청소년인문학읽기대회 등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총평을 하자면, 아직 시민들이 ‘책읽는도시’와 독서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물론 선도적이었거나 긍정적인 결과 또한 많다. 그러나 1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이용자나 시민이 아닌 관 주도 형식으로 머물고 있다.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주 대상이 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어차피 도서관·독서정책은 행정가들이 하는 게 아닌 시민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시민들이 호응하는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책 읽는 도시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안찬수 >

김해시가 ‘책읽는도시’를 선포한 게 2007년이다. 김해처럼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읽는도시’를 표방하는 지자체가 늘어났다. 또한 중앙정부가 그걸 예산을 들여 2014년부터 ‘책읽는도시’를 지정하

고 있다. 그 앞에 김해시가 선두로 있다.

차미옥 >

김해시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좋은 일이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법을 ‘책읽는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다른 도시와 협력하여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안찬수 >

공공도서관도 김해기적의도서관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다. ‘책읽는도시’를 선포하면서 추진했던 게 마지막이다.

차미옥 >

장유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3월 개관이 목표다. 겹으로 보이는 도서관은 4층 건물로 체육시설과 공연장이 포함된다.

안찬수 >

공공도서관 확충이 지체되었다는 느낌이다. 조금 더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차미옥 >

도서관 개수와 독서 인구추이를 살펴봐야 한다.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라 칭하더라도, 시내에는 이미 3곳의 도서관이 있다. 그리고 장유 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주촌 지구가 있는데 2018년 말까지 5천 세대가 입주된다. 그곳에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다.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따르지 않겠는가?

안찬수 >

통합도서관시스템에 김해시가 기회비용을 많이 지불했다. 처음으로 한 지자체 안에 통합시스템과 서비스망을 만들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결시켰다. 그렇게 작은도서관이 준공립화되었다. 그건 굉장한 도전이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늘어나면서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늘어났다. 기능 및 역할, 서비스권역 중첩, 예산의 효율성 등을 평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차미옥 >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김해시의 작은도서관은 아파트단지 도서관, 주민센터 내 도서관, 외곽의 면 지역 도서관 등으로 나뉜다. 도서관의 주변 환경과 이용자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안찬수 >

크게 보면 시비를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이 28개에서 36개가 되었다. 예산이나 운영의 자립성을 고려하더라도 통합도서관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의 사정은 열악하다.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원도서관과 미지원도서관간의 편차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김해시 도서관 정책의 큰 과제다.

차미옥 >

도서관 조성을 안 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리에 따라 도서관의 봉사권역을 설정하고 있다. 도서관과 도서관 사이의 반경 2km로 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정한 범위가 있기에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작은도서관을 원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까이에 공공도서관과 다른 작은도서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다. 시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으로 지원 혹은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찬수 >

김해의 작은도서관 중에는 사서가 월급을 받는 곳이 있다. 명예관장이 있으며 운영위가 잘 이루어졌다.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가 잘 자리 잡은 곳도 있지만, 처음 구상했던 것만큼 원활하지 않는 곳도 많다. 그것을 재설계할 필요는 없는가?

차미옥 >

외곽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운영위원회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와 도서관 운영자 간의 갈등으로 개관이 늦춰진 경우도 있었다.

안찬수 >

비지원 도서관에 대한 지원, 도서관 간의 편차, 구성원간의 갈등관계 등이

김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작은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차미옥 >

도서관 평가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가항목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한다. 그리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함께 이루어져한다. 현재 지원금은 최저운영비인 만큼 기본 지원금은 그대로 두고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현재는 비지원 도서관도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문제를 안고 있다.

안찬수 >

기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 비지원 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차미옥 >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빼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비지원 도서관 중에서도 전담인력이 상주하거나 잘 운영되는 곳이 있다. 책두레시스템에 영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림 북카페가 책두레에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D/B 구축비와 대출반납 프로그램 지원이라도 되면 좋겠다 싶기도 하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찬수 >

책두레 서비스는 초기에 비해 이용 상황은 어떠한가?

차미옥 >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문제를 일으켰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한 프로그램과 김해시의 프로그램이 다르다. 그래서 국가전체를 하나의 서비스 권역으로 운영하게 될 책이음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다. 이를 변경하려 해도 비용부담이 크다. 공공도서관 몇 군데만 바꾸면 되는 다른 시군과는 다르다. 우리시는 시스템에 연결된 42개를 모두 교체해야한다. 만만치 않은 예산부담을 안게 되었다.

안찬수 >

도서관 영역을 얘기해보고 싶다. 외국인인력지원센터 내에 다문화자료를 서비스하는 글로벌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가?

차미옥 >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도서관, 글로벳 도서관 등은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이용대상에게 다가 가기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조성한지 10년이 넘는 작은도서관들이 조금씩 노후화되고 있다. 책만큼이나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다. 도서관 조성비 지원과 리모델링비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안찬수 >

10년 전 뉴욕의 SIBL을 참고하여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구상한 적이 있다. 김해시는 한국 지자체 중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늘어났으며 이주노동자들 또한 많아졌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차미옥 >

김해에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계획될 즈음 담당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비즈니스 지원 도서관이 생기면 KS, JIS 등의 산업규격이나 수출조건, 법규 등 상담을 위한 자료제공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장점을 호소했다. 결국 잘 되지는 않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안찬수 >

학교도서관은 어떠한가? 김해시가 발전하려면, 김해에서 살겠다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주성이 중요하다. 그 당시 교육영역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되는 것을 보며 놀란 기억이 있다. 도서관을 통해 학교도서관 쪽으로도 영역을 넓히려고 했었지만 교육청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

차미옥 >

모 중학교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지원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김해시에서는 정책방향을 전담사서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도서관 문을 개방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전담사서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서가 없는 학교가 많다. 학교와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사서파견 예산을 지원하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학교도 있었다. 그래도 효과가 좋은 편이다. 학교도서관 사서들과 도서관관계자를 위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고, 독서운영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

면서 자란 친구들이 공공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한다.

안찬수 >

독서 쪽으로는 김해의 책과 북스타트가 있다.

차미옥 >

김해시는 동사무소에서 출산기념으로 북스타트 책을 전수로 나눠주고 있다. 출산기념품을 책으로 전하는 뜻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김해기적의도서관은 북스타트 플러스 도서를 사전에 신청 받아 나눠주고 있다.

김해의 책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독서계층을 크게 둘로 나눈 다음 일반도서와 아동도서를 선정하는게 주효했다고 본다. 독서릴레이, 토론, 작가와의 만남, 아동도서를 각색한 가족극, - 가족극을 본 작가들이 정말 좋아했다 - 독후감상문대회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서 선정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결성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안찬수 >

김해 청소년인문학읽기대회가 올해로 9년차다. 지금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등의 단위로 퍼져나갔다. 지금은 김해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차미옥 >

예전만큼 참가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는 것 같다. 타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직접 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많아진 탓인 것 같다. 비경쟁 독서토론이라는 독특한 방식도 좋은 것 같고, 청소년 인문학 읽기대회에서 만난 작가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참가학생들은 더 하지 않겠는가.

안찬수 >

지금까지 김해시 도서관 발전을 위해 애써온 노고에 감사드린다.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후배 사서들과 시민들을 위해 나누어주시길 빌며, 앞으로 10년, 20년 김해시 도서관 문화 발전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까 한다. (*)

<부록5>

홍미선 팀장 인터뷰

일시 : 2017년 3월 8일 13시 30분 ~ 14시 45분

장소 : 화정글샘도서관

질문자 :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응답자 : 홍미선 김해시청 도서관지원팀 팀장

안찬수 >

정책연구는 현상과 실태를 파악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한두 가지라도 구현이 돼야 의미가 있다. 주무부서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궁금하다. 어제 간담회에서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정말 획기적인 밑그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홍미선>

그렇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은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관장님들은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며,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방향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고맙다. 우리는 서로 각자 취하는 방법이 다를 뿐,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작은도서관은 운영자의 관심이 적어 걱정이 크다. 이것은 자발성이 없는 민간단체에 공적인 책임이 강제된 것에서 비롯된 문제점이다. 인력과 자생력을 기대하기 힘든 문화소외지역의 거점 도서관 10개소는 점진적으로 공립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해시는 지난 10년간 민과 관이 함께 로드맵을 구상했고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했다. 이제 전반적으로 체계가 잡혔다고 본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이라 속도와 양에 쫓기는 느낌도 있었다. 그래서 자체 동력을 상실했다고 할까.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교감과 준비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사업 전반에 기관, 단체, 개인 모두가 각자의 포지션을 잃고 있다는 생각도 종종 든다. 이래저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해야 하는 작은도서관 실무자는 고충이 많다.

안찬수 >

다른 지자체 작은도서관의 출발을 생각해보면, 사립기관이지만 일정 부분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니 지자체에서 도서구입비, 프로그램비를 일부 지원하였다. 김해시는 조금 더 앞서나가 통합도서관시스템으로 묶었다.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묶으니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작은도서관을 전담할 직원이 필요하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지 않으면 민원은 더 늘어날 것이다.

홍미선 >

작년에 부산 맨발동무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워크숍을 했었다. 사립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다. 작은도서관 관계자 교육을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곳으로서 꼭 지켜야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작은도서관의 바람직한 상을 먼저 그릴 필요가 있다.

안찬수 >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은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감소하였다. 그러다 다시 작은도서관이 의제가 되니 6,000개까지 증가했다.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 제안해야 한다. 개개의 작은도서관이 보지 못하는 측면을 봐야 한다. 교육, 홍보, 공동사업 등이다. 지원을 더 늘리기보다는 공동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을 권장하는 건 단순히 문화정책에만 포함된 게 아니다. ‘책읽는도시’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여러 정책에 깊게 걸쳐있다. 예를 들어 국제화정책에서는 책을 매개로 한 국제교류나 심포지엄, 유네스코 책의 수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인천은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김해에서의 중소기업과 책읽기의 결합은 강하게 뒷받침되진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민간에는 실제로 시행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중에 책과 관련된 요구가 있으면 독서경영을 생각할 수 있다. 초기에 아쉬웠던 점은 김해시의 학교와 교육청과의 연대협력 부분이었다. 당시 김해시는 진학과 연관되어 인재들이 유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해시는 정주성을 높이하고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 연장선상으로 책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싶다. 성남시는 독자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지금의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만들어졌다. 성남은 어린이·청소년·성인을 위한 책읽기 사업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예산이 첫해가 160억 원, 이듬해에 200억 원이 편성되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주 서비스 대상은 같다. 특히 지자체 쪽에서 고민이 많다.

홍미선 >

김해시의 올해 교육재정이 292억으로 전체 재원의 2.8%다. 교육예산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 성남은 도교육청이 역할을 맡고 기초지자체가 재원을 지원한다. 반면 김해시는 재원이 부분씩 나가고 있다. 그 재원을 활용하고자 책날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예산확보를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안찬수 >

나중을 위해서라도 잘 담아내야 하는 부분이다.

홍미선 >

그렇게 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인력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안찬수 >

어려운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지 10년이 지났다. 총 3,000억원의 프로젝트를 했지만 인력 부문은 거의 전진이 없었다. 그러나 조금 더 향상된 안목으로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아직 가장 중요한 사람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 정규직은 묶여있고 비정규직은 비대해졌다. 고용의 안정성 문제가 있다.

홍미선 >

관리자와 노동자의 갈등이 계속된다.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전담사서 교육을 마치고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 작년은 비정규직 분들 사이에 순환근무를 받아들이냐 마느냐가 뜨거운 화두였다.

안찬수 >

본인은 무엇을 담고 싶으신가?

홍미선 >

조직과 예산이다. 기본적으로 조직이 있으면 따라오는 예산이 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확충이다. 김해는 성장하는 도시로 당장 내년부터 주촌에 입주가 시작된다. 해당 부서와 논의하여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부문은 외곽 지역 작은도서관 중 시소유 건물에 있는 곳은 공립화시킬 수도 있다. 생림면 북카페가 대표적인 사례다.

안찬수 >

10년 전 ‘책읽는도시’를 준비할 때 TF팀이 아닌, 정책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처음의 요구였다. 사서분들이 도서관에서만 근무해서 정책에 대한 경험이 없다. 순환근무를 통해 본청에서 근무하고 책임을 맡아보는 게 중요하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책부서 유무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질이 달라진다. 군포시의 ‘책읽는 군포’는 원래 팀이었으나 과를 거쳐 국으로 승격했다. 군포시는 각 부서 업무와 연계하여 책에 관한 100대 과제를 내놓았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책과 연결된다. 김해 역시 선도적으로 사례를 만들었기에 실무적으로 힘드신 점이 많았겠다.

홍미선 >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도움이 컸다. 작은도서관 부문은 민관이 협력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책두레를 참여시킬 때 저항이 굉장히 심했다. 책사회에서 디딤돌이 되어주셨기에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안찬수 >

다들 어려운 역할을 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김해교육청,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김해교육연대 분들을 모아 브레인스토밍을 한 적이 있다. 계기가 되면 도서관 계열이 아닌 분들도 함께 모아주시면 좋을 듯하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다.(*).

<부록6>

조강숙 과장 인터뷰

일시 : 2017년 3월 8일 17시 30분 ~ 18시 30분

장소 : 카페 바이크

질문자 :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응답자 : 조강숙 김해시청 관광과 과장

안찬수 >

10년 전에 김해시가 책읽는도시를 선포하고 10대 시책을 정하여 추진하였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하 책사회)이 ‘책읽는도시 김해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각종 사업들이 추진됐다. 그때 담당 계장이셨는데, 지난 10년을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조강숙 >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내용은 대부분 시행했다. 작은도서관, 통합도서관, 기적의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원 등이다. 하지 못한 것이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다. ‘책읽는도시’가 고비를 넘기면서 작은도서관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작은도서관은 발전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으며, 리모델링 또한 필요하다. 굳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할 할 사람이 필요하다.

안찬수 >

지난 10년간의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고민해보자. 무슨 과제를 내놓을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주무부서에서 담당이 바뀌더라도 참고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조강숙 >

‘책읽는도시’ 정책이 1번 시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순위 안에 있어야 한다. 새로운 도서관 정책의 기회는 늘 있으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아파트 건립 시 넣게 되어있음에도 시에서 지원이 잘 되지 않는다. 작은도서관에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가 많다. 작은도서관 지원 펀드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 해마다 이루어

지는 복지기부를 보면 시민펀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작은도서관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역사문화도시 복원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가 고대사를 발굴 및 복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가야사는 6개 시군에 걸쳐 있다. 가야사 연구를 국가사업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제안했다. 일이 추진된다면 가야사 전문도서관이 김해에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 사학계에 가야사를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안선이나 수심 같은 지표조사가 축적되어 있다. <삼국유사> 원전을 비교해도 현재 지면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다른 계통의 학자들과 연구 중이다. 가야사는 고대사와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열쇠다. 고대사에서 출발하여 역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할 도서관이 필요하다.

안찬수 >

가야사는 한일 양국에 있어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고대 언어만 하더라도 고구려와 백제, 일본의 언어가 거의 흡사하다.

조강숙 >

대마도에는 백제의 흔적이 굉장히 많다. 석곽묘양식은 가야시대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듯 우리가 고대사에 대한 탐구를 해야 동북아의 여러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 다양성의 시대로 가야하는데,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김해는 가야 시절부터 다양성이 인정되는 도시였다. 캐나다 밴쿠버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이 이민자 아카이브를 진행한다. 삶, 직업, 자손 등의 통계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김해에만 34개국의 사람들이 머무는 만큼, 작은도서관이 아닌 다문화에 특성화된 전문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들을 시민의 한 주체로서 뿌리를 존중해주고, 튼튼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안찬수 >

스톡홀름 다문화도서관은 100여개의 언어를 제공하고 있다. 중동 난민사태 때, 난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스웨덴이었다. 스웨덴에 가면 자신의 언어로 된 책이 있다는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조강숙 >

도서관이 그 나라의 정신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뿌리와 말을 알게 도와줄 수 있다. 한국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것이다.

안찬수 >

뉴욕의 지도자들은 뉴욕을 금융과 문화의 수도로 만들려 했다. 사서들은 러시아 혁명, 나치당 집권과 같은 사건이 터지면 유럽에서 책을 수집했다. 나치의 박해를 받아 망명한 사람들도 뉴욕을 많이 찾았다. 뉴욕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나간 게 브로드웨이다. 그 뿌리는 책이다. 다양성을 보장하는 도시가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미리 비전을 갖추고, 우수한 학자, 문화예술인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한다.

조강숙 >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찬수 >

일본의 철학자 츠루미 준스케(鶴見俊輔) 등은 대학촌에 청년들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를 만들었다. 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별 자료를 모으고, 대학생들이 씨름을 만들어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비전을 담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김해시가 아시아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공간이다.

조강숙 >

우리는 지난 10년간 공무원 책모임을 해왔다. 책을 읽으며 자기를 나타내는 자리를 가진다. 각 직렬별로 사람이 모여, 업무수행 능력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이기도 했다.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빈곤, 성소수자, 난민 등의 주제로 몇 달 간 공부한 것이 자연스레 업무에 녹아든다. 경쟁이 아닌 공감과 동료애가 함께한다. 만약 각 파트별로 공무원 책모임이 있다면 연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공무원으로서의 시야가 있다면 헌법, 후불제 민주주의 등에서 이해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안찬수 >

다른 지자체는 시민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정부정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책 읽는 모임이 도서관 지지 모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일정한 지원을 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시민들은 독서동아리를 도서관에 등록함으로써 공간과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관악구가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동아리 200-300개를 지원한다.

조강숙 >

사서 인력이 조금씩 늘어나고 사서직 관장도 생겼다. 그러나 아직 더 늘어나야 한다. 이는 우리의 과제다.

안찬수 >

원도심 재생사업은 성과가 있는가?

조강숙 >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보인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내실을 채워야 한다. 그들이 뿌리를 내려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문화도시를 진행하면서 문화 방면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엮을 계획이다. 주체는 주민들이나 활동가들이며, 인제대학교 교수들도 협력하고 있다.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 내 문화활동가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20-30명 규모이고,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작은도서관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이 생길 것이다.

안찬수 >

김해시에서 지원한다면 많은 걸 시도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이 왜 그렇게 출발했는지, 그 정신에 대해 공동홍보 활동 등이 필요할 것이다. 김해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 다녀온 적이 있다. ‘책읽는도시’ 초기에 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실현되지는 않았다. 시립도서관 하나를 특성화하여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조강숙 >

도서관대회에 가보니 기업지원에 쓸 수 있는 솔루션과 프로그램이 많았다.

안찬수 >

바쁜 시간을 내어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 (성인)	ID	
---	------------------	----	--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김해시의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서정책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고자 김해시민 여러분께 의견을 여쭙는 설문을 실시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도서관 이용 현황, 주민 독서실태 결과,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은 김해시의 도서관 건립과 활발한 운영, 독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해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관기관 : 김해시

연구기관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조사문의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02-3675-8780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답자 분류

성 별	1. 남 2. 여					
연 령	1. 18-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69세 6. 70세 이상					
거주 지역	행 정 동		법 정 동			
	1. 장유1동		유하동, 내덕동, 무계동, 부곡동, 신문동			
	2. 장유2동		삼문동, 대청동			
	3. 장유3동		관동동, 율하동, 장유동, 응달동, 수가동			
	4. 동상동		동상동			
	5. 회현동		봉황동, 서상동			
	6. 부원동		부원동			
	7. 내외동		내동, 외동			
	8. 북부동		구산동, 대성동, 삼계동			
	9. 칠산서부동		강동, 명법동, 이동, 전하동, 풍유동, 화목동, 흥동			
	10. 활천동		삼정동, 어방동			
	11. 삼안동		삼방동, 안동			
	12. 불암동		불암동, 지내동			
	13. 진영읍 14. 주촌면 15. 진례면 16. 한림면 17. 생림면 18. 상동면 19. 대동면					

I. 김해시민 독서실태 조사

문1. 귀하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을 얼마나 되십니까?

(전자책 포함,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웹툰) 제외)

1) 평일 _____시간 _____분 2) 주말 _____시간 _____분

문2. 귀하의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 | |
|--------------------------|---------------------------|
| 01) 일(공부) 때문에 바빠서 | 02)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
| 03) 다른 여가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 04) 몸이 불편하여 책 읽기가 어려워서 |
| 05)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 06)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
| 07) 책을 읽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 08) 책을 사볼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 09) 책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 10)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11) 책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 12) 기타 (_____) |

문3. 귀하는 책 읽기가 사회생활(대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01) 매우 도움이 된다 | 0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03) 보통이다 |
| 0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0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문4. 지난 1년(2016년) 동안 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웹툰) 제외)

1) 종이책 _____권 2) 전자책 _____권

☞ 한 권도 읽지 않으신 분은 문9로 가십시오.

문5. 귀하는 자신의 독서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01) 매우 충분하다 | 02) 충분한 편이다 | 03) 보통이다 |
| 04) 부족한 편이다 | 05) 매우 부족한 편이다 | |

문6. 귀하는 주로 어디에서 책을 읽으십니까?

- | | | |
|-----------|----------------|--------------------------|
| 01) 집에서 | 02) 직장(학교)에서 | 03) 출퇴근이나 통학 등 이동 시 차안에서 |
| 04) 도서관에서 | 05) 장소를 가리지 않음 | 06) 기타 |

문7. 귀하는 책을 주로 어떻게 구해보십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 | |
|-------------------------------|-----------------------|
| 01) 직접 구입해 본다 | 02) 도서관에서 빌려본다 |
| 03) 주위 사람에게 빌려본다 | 04) 도서대여점에서 빌려본다 |
| 05) 선물로 받는다 | 06) 직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본다 |
| 07) 관공서, 카페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것을 본다 | 08) 기타 () |

문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책을 몇 권이나 구입하셨습니다? 또한 책 구입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 1) 종이책 _____권, 총구입비 _____원 2) 전자책 _____권, 총구입비 _____원

II. 공공도서관 / 독서 환경

“공공도서관에는 시립도서관, 아파트/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등도 포함됩니다.”

문9. 귀하는 지난 1년간(2016년) 공공도서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 문9-1로 가세요) 2) 없다 (☞ 문10으로 가세요)

☞문9-1. [공공도서관 이용자만] 귀하는 공공도서관을 월 평균 몇 회 정도 이용하십니까?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은 연간 이용 횟수로 응답해 주십시오.

월 _____회 또는 연 _____회

☞문9-2. [공공도서관 이용자만] 주로 어떤 이유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셨습니다?

- | | |
|----------------------|----------------------------|
| 1) 독서 및 도서 대출을 위해 | 2) 자료조사, 연구를 위해 |
| 3) 공부, 학습을 위해 | 4) 도서관의 각종 행사,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
| 5) 자녀의 도서관 이용을 돕기 위해 | 6) 기타 (_____) |

☞문9-3. [공공도서관 이용자만] 귀하는 어느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 | | | |
|-----------------------|------------------|-----------------|
| 1) 철암도서관(삼방동) | 2) 장유도서관(대청동) | 3) 화정글샘도서관(삼계동) |
| 4) 진영한빛도서관(진영읍) | 5) 김해기적의도서관(울하동) | 6) 김해도서관(봉황동) |
| 7) 작은도서관(도서관명: _____) | | |
| 8) 이용하는 도서관의 이름을 잘 모름 | | |

-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9-5. [공공도서관 이용자만] 주로 이용하시는 공공도서관의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 집에서 멀다 | ☐ 도서 및 자료가 부족하다 |
| ☐ 시설이 낙후됐다 | ☐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
| ☐ 유익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 개관시간이 짧다 |
| ☐ 도서관 이용 절차가 까다롭다 | ☐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
| ☐ 별다른 아쉬운 점이 없다 | ☐ 기타 () |

문10. [공공도서관 비이용자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01) 도서관에 읽을 만한 책이 없다 02) 일이 바빠서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다
- 03) 도서관이 집에서 멀다 04) 직장 도서실(또는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
- 05) 도서관 대여점을 이용한다 06) 도서관 개관 시간이 짧다
- 07) 도서관 이용 절차가 까다롭다 08) 독서상담, 안내를 해주는 사서가 없다
- 09)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다 10) 도서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11) 읽고 싶은 책은 사서 읽는다 12) 기타 ()

문11. [직장인, 자영업자만] 다음 중 현재 일하는 직장에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직장 내에 도서실이 있거나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 ☐ 2) 직장의 권장도서 목록이 있다
- ☐ 3) 원하는 책을 직장에서 구입해준다 (책 또는 도서구입비 지원 모두 해당)
- ☐ 4) 직장 내에 독서 모임이 있다
- ☐ 5) 저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 ☐ 6) 독서와 관련된 인사고과 제도가 있다
- ☐ 7) 회사 전체에서 책 읽기를 강조하는 편이다
- ☐ 8) 기타()
- ☐ 9) 직장에 도서실(도서관), 독서활동, 독서 프로그램 등이 전혀 없다

IV. 김해시의 도서관 / 독서진흥 정책

문14. 귀하는 ‘책읽는도시 김해’, 혹은 ‘책도시 김해’라는 슬로건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 1) 여러 번 들어봤다 2) 한두 번 들어본 적 있다 3) 들어본 적 없다

문15. 김해시는 2007년에 ‘책읽는도시’를 선포하고 공공도서관 확충, 작은도서관/학교도서관 지원, 독서 캠페인 실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보급 등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같다 / 계속 추진하면 좋겠다
- 2) 별로 필요하지 않은 정책 같다
- 3) 잘 모르겠다
- 4) 기타 ()

문16. ‘책읽는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김해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안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응답자 특성

* 통계 처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 01) 중졸 이하 02) 고졸 03) 대졸(재학생 포함) 04) 대학원 수료 이상

DQ2. 귀하의 직업은?

- 01) 관리자 (기업체 경영주, 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차장급 이상)
 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사/약사/과학연구직/교수/예술가/변호사 등)
 03) 사무 종사자 (6급 이하 공무원, 기업체 과장급 이하)
 04) 서비스 종사자 (이·미용원, 간병인,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승무원, 통역원 등)
 05) 판매 종사자 (영업원, 매장 판매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0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림업, 어업, 축산업 숙련직)
 0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생산현장에서의 기능직, 제과/제빵사, 재단사, 용접원, 전기공 등)
 08) 장치·기계조작·조립직 종사자 (공장 등 생산현장에서의 기계 조작직)
 09)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일용직, 배달원, 이삿짐운반원, 우편집배원, 주유원, 환경미화원, 가사도우미 등)
 10) 군인
 11) 자영업 종사자(5인미만 소규모 공장 주인, 소규모 상점 주인 등)
 102 학생(취업 준비중인 졸업자 포함)
 13) 전업주부
 14) 은퇴/무직
 15) 기타 (_____)

DQ3.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수당/상여금/이자소득/연금 등을 포함한 총액)

- 01) 100만원 미만 02) 100~200만원 미만 03) 200~300만원 미만
 04) 300~400만원 미만 05) 400~500만원 미만 06) 500~600만원 미만
 07) 600~700만원 미만 08) 700만원 이상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면접상황 (조사원이 기입)	면접일시	____월 ____일 (오전/오후) ____시 ____분
	면접장소	
	조사원 성명	

관리자		검증		에디팅		코딩	
-----	--	----	--	-----	--	----	--

	김해시 독서실태 조사 (초·중·고등학생)	ID	
---	-------------------------------	----	--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와 책임있는사회문화재단은 김해시의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서정책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고자 김해시민 여러분께 의견을 여쭙는 설문을 실시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김해시의 도서관 건립과 활발한 운영, 독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해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관기관 : 김해시

연구기관 : 책임있는사회문화재단

조사문의 : 책임있는사회문화재단 02-3675-8780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답자

학교명		학 년	_____학년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	--	-----	---------	-----	------	------

※ 초등4학년~고등3학년만 응답해 주세요.

I. 독서실태

문1. 학생은 다음 활동을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평 일	주 말
A. 책 읽기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만화 제외)	_____분	_____분
B. 웹툰, 웹소설, 팬픽 읽기	_____분	_____분

문2. 학생의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01)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 02)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
| 03) TV, 컴퓨터, 휴대전화, 게임으로 시간이 없어서 | 04) 부모님, 선생님이 억지로 읽으라고 해서 |
| 05)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 06)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
| 07) 학교도서관 등 책을 빌릴 곳이 없어서 | 08) 책을 사볼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 09) 집안일을 도와야 해서 | 10) 부모님, 선생님이 독서 대신 공부하길 원해서 |
| 11)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 서 |
| 13) 기타 () | 12) 책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

문3. 학생은 책 읽기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01) 매우 도움이 된다 | 0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03) 보통이다 |
| 04)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05)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

문4.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종이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교과서/참고서/잡지/만화(웹툰) 제외)

_____ 권 (* 한 권도 읽지 않았으면 '0'으로 표시해 주세요.)

문5. 학생은 자신의 독서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01) 매우 충분하다 | 02) 충분한 편이다 | 03) 보통이다 |
| 04) 부족한 편이다 | 05) 매우 부족한 편이다 | |

문6. 학생이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두 개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01)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 02)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 |
| 03) 학교 공부나 숙제에 도움이 되므로 | 04) 진학이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므로 |
| 05) 도서관수업 시간에 과제 해결을 위해서 | 06) 책 읽는 것이 즐거워서 |
| 07) 친구들과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 | 08)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
| 09)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 10) 기타 () |

문7. 학생은 읽을 책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부터 두 개만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01) 선생님의 추천

02) 친구의 추천

03) 가족의 추천

04) 도서관, 서점을 둘러보다 즉흥적으로 선택함

05) 방송, 인터넷, SNS 등 대중매체 소개

06) 드라마, 영화의 원작을 찾아 봄

07) 기타 ()

문8. 학생은 책을 주로 어떻게 구해 보십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부터 두 개만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01) 직접 구입해서 본다

02) 부모님이 빌려오시거나 사다 주신다

03) 주위 사람에게 빌려본다

04) 학교도서관에서 빌려본다

05) 내가 직접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에서 빌려본다

06) 집에 있는 책을 읽는다

다

08) 기타 ()

07) 구입하지 않고 서점에 가서 본다

문9. 학교에서 지난 1년간 어떤 독서지도를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하십시오.

☐ 01) 책의 선택과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 02) 독후감 쓰기☐ 03)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04) 독서토론 및 발표☐ 05) 독서를 통한 과제 해결하기☐ 06) 표절(베끼기) 예방 지도☐ 07) 독서지도가 전혀 없었다☐ 08) 기타 ()

문10. 【모두 응답】 어떻게 하면 학생이 책을 더 좋아하게 될까요?

	전혀 필요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A. 책을 읽어주거나, 읽다가 궁금한 걸 물어볼 사람이 있다	☐	☐	☐	☐	☐
B. 내 수준에 맞는 책,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소개 받는다	☐	☐	☐	☐	☐
C.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 읽을 만한 책이 더 많아진다	☐	☐	☐	☐	☐
D. 책 읽기를 수행평가나 성적에 반영한다	☐	☐	☐	☐	☐
E. 친구들과 책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마련된다	☐	☐	☐	☐	☐
F. 흥미로운 체험활동(문학기행, 작가와의 만남, 독서캠프 등)을 한다	☐	☐	☐	☐	☐
G. 책을 고르고 읽는 방법, 책 읽고 글 쓰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	☐	☐	☐	☐
H. 독서관련 대회(독서퀴즈, 다독왕, 독서토론대회, 독후감대회)를 한다	☐	☐	☐	☐	☐
I. 학교나 가정에서 억지로 책을 읽게 하지 않는다	☐	☐	☐	☐	☐
J. 기타 (직접 써주세요)					

Ⅱ. 학교도서관 이용실태

문11. 학생은 지난 1년간(2016년)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01) 있다 (☞ 문 11-1로 갈 것)

02) 없다 (☞ 문 12으로 건너뛸 것)

☞ 문11-1. 【학교도서관 이용 학생만】 학생은 학교도서관을 어느 정도 자주 이용하십니까?

☐

- 01) 거의 매일 02) 1주일에 1~2번 03) 한 달에 1~2번 04) 한 학기에 1~2번
05) 1년에 1~2번

☞ 문11-2. 【학교도서관 이용 학생만】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

- 01) 학교공부, 숙제 02) 책 대출 03) 책 읽기
04) 인터넷 이용 05) DVD나 영화 감상 06) 독서 프로그램 참여
07) 도서관 활용 수업 08) 방과 후 교실 09) 기타 ()

문12. [모두 응답] 학교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01) 좋은 책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02) 사서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03)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면 좋겠다 04) 도서관 이용 시간을 확대했으면 좋
겠다
05) 대출 반납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06) 재밌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면
좋겠다
07) 기타 ()

Ⅲ. 공공도서관 이용실태

“공공도서관에는 시립도서관, 주민센터와 아파트의 작은도서관도 포함됩니다.”

문13. 학생은 지난 1년간(2016년) 학교 밖 공공도서관을 몇 번이나 이용했습니까?

_____번 (이용한 적 없으면 '0'이라고 적어주세요)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적 있는 학생 ☞ 문13-1로 가세요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적 없는 학생 ☞ 문14로 가세요

문13-1. [공공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만] 주로 어떤 이유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했습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

- | | |
|-------------------|--------------------------|
| 01) 책을 보거나 빌리기 위해 | 02) 학교 숙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
| 03)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 04) DVD나 영화 감상을 위해 |
| 05)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 06)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
| 07) 친구와 놀기 위해 | 08) 기타 () |

문13-2. [공공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만] 학생은 어느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 | | | |
|-----------------------|--------------------|-----------------|
| 1) 칠암도서관(삼방동) | 2) 장유도서관(대청동) | 3) 화정글샘도서관(삼계동) |
| 4) 진영한빛도서관(진영읍) | 5) 김해기적의도서관(울하동) | 6) 김해도서관(봉황동) |
| 7) 진영도서관(진영읍) | 8) 작은도서관 (도서관명 :) | |
| 9) 이용하는 도서관의 이름을 잘 모름 | | |

문13-3. [공공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만] 학생은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의 시설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만족하나요?

- | | | |
|------------|------------|--------|
| 01) 매우 만족 | 02) 대체로 만족 | 03) 보통 |
| 04) 대체로 불만 | 05) 매우 불만 | |

문13-4. [공공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만]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의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 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 01) 집에서 멀다 | ☐ 02) 책이 부족하다 |
| ☐ 03) 시설이 낙후됐다 | ☐ 04)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
| ☐ 05) 유익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 06)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 |
| ☐ 07) 이용 방법이 까다롭다 | ☐ 08)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
| ☐ 09) 별다른 아쉬운 점이 없다 | ☐ 10) 기타 () |

문14. [공공도서관 이용하지 않는 학생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01) 도서관에 읽을 만한 책이 없다 | 02) 공부 때문에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다 |
| 03) 도서관이 집에서 멀다 | 0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 |
| 05) 책이 낡고 지저분하다 | 06) 원하는 책을 찾기가 어렵다 |
| 07) 앉을 자리가 없다 | 08) 도서관이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 |
| 09) 도서관 이용 절차가 까다롭다 | 10) 독서상담, 안내를 해주는 사서가 없다 |
| 11)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다 | 12) 도서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 13) 읽고 싶은 책은 사서 읽는다 | 14) 기타 () |

-

-

-

‘책 읽는 도시 김해’ 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2017년 7월 18일

비매품

연구편집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서울 종로구 동숭3길 40 일석기념관 2층)

발행 | 김해시청